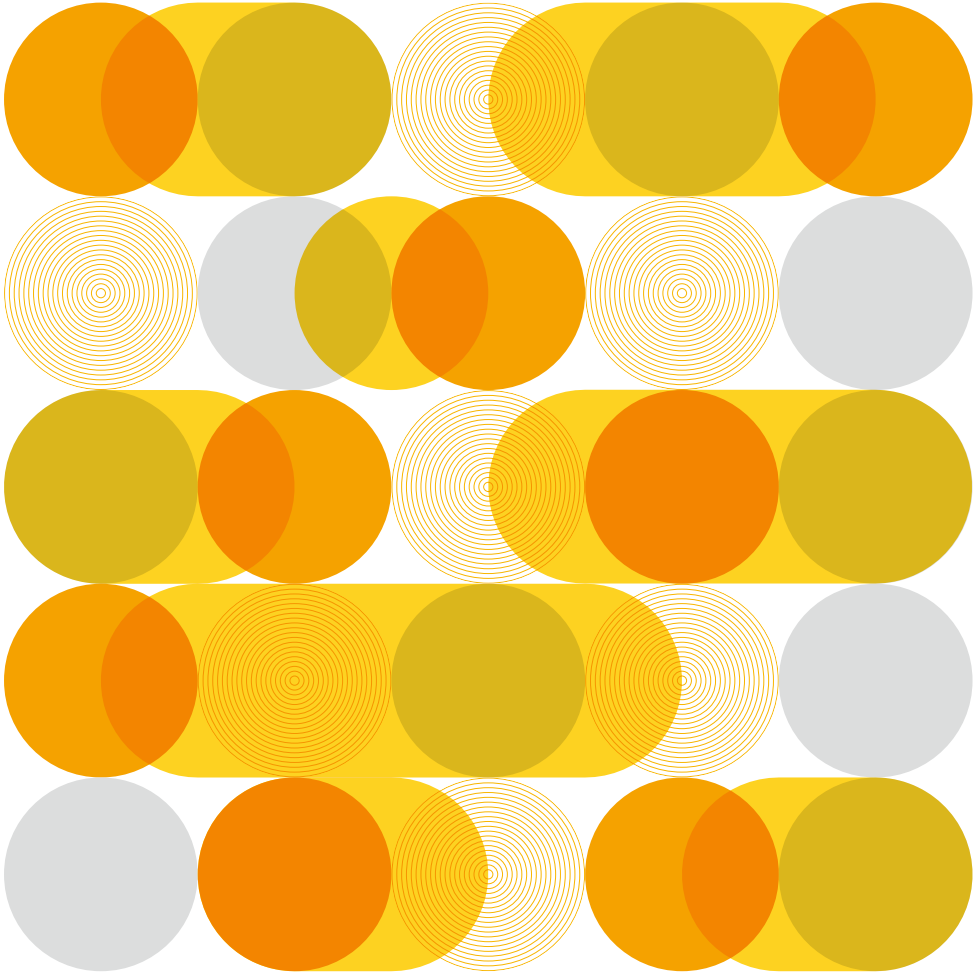
# 독서동아리가 쓰다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독서동아리 글모음



문화체육관광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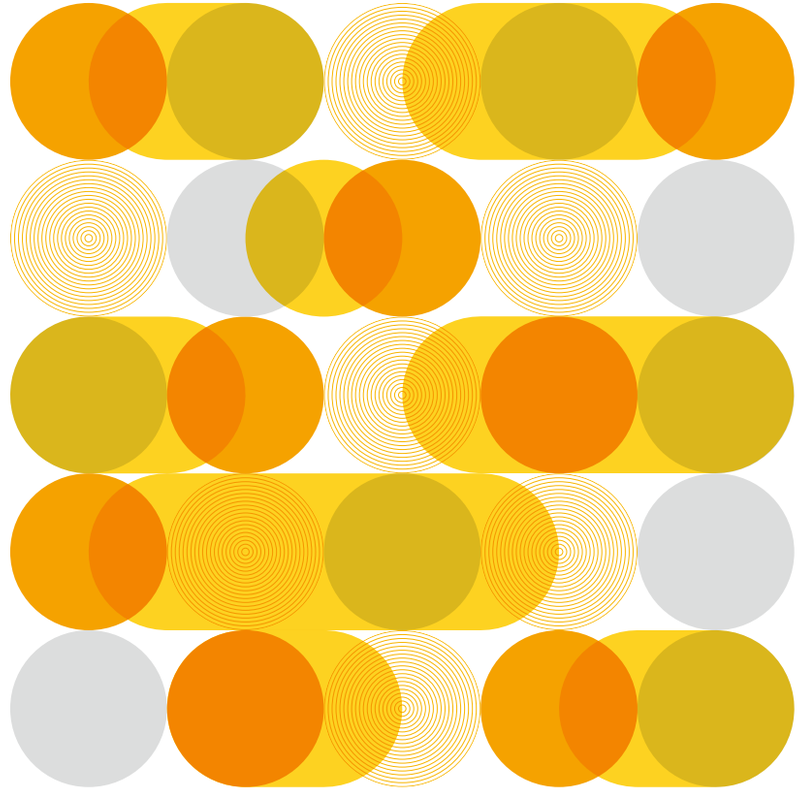
# 독서동아리가 쓰다

독서동아리 글모음

# 독서동아리가 쓰다

## 독서동아리 글모음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목 차

## 들어가는 글


**함께 읽으며 사회를 바꾸는 전국 독서동아리를 응원하며** 책읽는사회문화재단 08


## 1부 독서동아리 후기


01 **구존동이 아르쿠스** 아르쿠스 · 유인애 12

02 **서평 쓰기 작업 중** 센북클럽 · 김상렬 15

03 **독서동아리와 함께한 연극 나들이** 봄날의 곰 · 이영 18

04 **일로 만난 사이지만** 어독 · 류춘희 21

05 **우리들의 독서동아리 후기** 도란도란그림책읽기 24

06 **독서동아리에 관심 있는 누군가에게** 북세통 · 정인경 27

07 **엄마와 함께 친구와 함께 책과의 추억으로 자라난다** 까치북클럽 30

08 **한 작가 깊이 읽기** 유난히 38

09 **생각의 숲을 거닐다** 생각의숲 · 원미현 44

10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을 읽고** 어깨동무 · 이예영 46

11 **여기 책이 있고 사람이 있다** 책을 담다 · 김건영 49

12 **작은도서관 봉사활동에서 작은 꿈을 이루다** 은세계독서동아리 · 서재학 53

13 **책을 읽는다는 건** 석수시니어독서클럽 · 박인희 56

## 2부 독서동아리 서평


01 **행복한 달리기** 츄잉북 · 박하은 60

02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사회에서** 금요일 오후 두 시 · 김창환 63

03 **인문학을 공부한다** 책도끼 · 박자영 66

04 **투명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 책도끼 · 최지은 69

05 **반도체 수출규제 사태를 접하며** 따뜻한 독서모임 한국친구 일본친구 · 황성연 71

06 **우리,** 독서시사토론동아리(원페이지북) · 조진호 76

07 **연암을 접속하라** 봄날의 곰 · 최현정 79

08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금요일 오후 두 시 · 구춘영 83

09 **진심이 담기면 굿모닝도 기쁘다** 츄잉북 · 오은총 86

10 **이광래 교수님께** Art인문학여행자들 · 박정우 89

11 **지식보다 아름다운 무지** 츄잉북 · 류성두 92

12 **나만의 휘게를 찾아서** 마중물독서회 · 김보라 97

13 **우리가 만드는 이상한 정상가족** 책꿈 · 정동재 101

14 **사실로 다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조각들** 츄잉북 · 이선우 107

15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희망의 카메라** 젤리에서 젤리로 · 최봄이 110

16 **달콤함의 담보** 젤리에서 젤리로 · 임지연 113

17 **살수록 모르는 게 많아야 정상 아닌가** 좋아진다 · 문가람 116

18 **나와 다르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의정부 목요 독서모임 아침에 · 권윤경 120

19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하는 용기** 마중물독서회 · 강해숙 123

20 **재일교포, 그들에게 조국은 어디었는가** 너나우리 · 고광윤 127

21 **고유의 신념,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츄잉북 · 이진영 133

22 **심장이 따뜻하게 뛰고 있는데, 왜 춥겠니** 메리트 공주님 · 변춘희 136


## 2019년 독서동아리 토론 도서 50선


2019년 독서동아리 토론 도서 50선 142


## 2019년 전국 독서동아리 목록


2019년 전국 독서동아리 목록 150

# 함께 읽으며 사회를 바꾸는 전국 독서동아리를 응원하며

2019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400개의 독서동아리에게 80만 원씩을 지원하여 도서 구입, 원작 관련 공연 관람, 독서기행, 문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별도로 강연료를 지원하여 207개의 독서동아리가 저자와 만나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풀뿌리 독서동아리가 '함께 읽기의 힘'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 어른, 학부모, 교사,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카페, 도서관, 가정집 등 곳곳에서 책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길잡이'가 개최한 '독서동아리 권역별 워크숍'에서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 방문한 길잡이가 모임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사례를 모으기 위해 7명의 청년취재단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겨레와의 공동기획 '지은이와 함께 읽는 사람들'과 '우리 독서동아리를 소개합니다'를 통해 지은이와 독서동아리와의 만남을 도모하고 독서동아리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전했습니다.

올 한 해 각 지역의 독서 활동가로서 수많은 역할을 해낸 길잡이와 청년취재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읽기'의 위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전국의 수많은 독서동아리 회원분들, 고맙습니다.

독서동아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곧 개편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국 독서동아리의 소통을 도우며 계속해서 독서동아리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1부

# 독서동아리 후기

01

# 구존동이 아르쿠스

아르쿠스 · 유인애

## 아르쿠스를 만나다

사회 저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인생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 리스트를 보면 내가 읽은 책은 그중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볼 때마다 기가 죽지만 이건 내 분야가 아니어서 안 읽었다고 위안 삼는다. 독서가 취미라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비교적 많이 읽는다고 자부하는데 주로 문학 관련 서적들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내가 읽어야할 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학서적 읽는 것만도 매일 쫓기듯 벅찼다.

한 카페에서 책『총균쇠』를 읽는 모임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다. 책 제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흥미가 갔다. 마침 모임 장소가 우리 동네였다. 그렇게 시작한 게 독서모임 아르쿠스다. 지난 해 12월이었다. 반세기 넘게 서로 얼굴 모르던 사람들이 책 한 권을 매개로 만났다. 8명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책을 낭독했다. 그날의 좌장이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요점 정리를 한다. 좌장은 회원들이 매주 돌아가며 맡는다. 말하자면 진행자인 셈이다.『총균쇠』를 끝내고『정의란 무엇인가』,『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다. 처음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마냥 더듬거렸다. 한 페이지 읽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방금 읽은 내용이 다 날아갔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소화한다는 심정으로 계속했다. 거기에는 또 회원들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다. 모른다고 비웃지 않았고 조금 더 안다고 잘난 체하지 않았다.『월든』을 읽었고『융의 영혼의 지도』를 읽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리어왕』과『맥베스』를 읽었다.『리어왕』을 읽고 났을 때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연극 〈리어왕〉을 공연했다. 다 함께 보러 갔다.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했다. 그동안 수없이 보고 들었던 리어왕이 새로웠다. 명작의 재발견이었다. 요즘은『왜 지금 지리학인가』를 읽고 있다. 회원 중에 지리학 전공자가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다.

## 새로운 도전, 아르쿠스

여덟 명으로 시작한 모임에서 1명이 스케줄이 안 맞아 나갔고 또 1명이 같은 이유로 빠졌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이 나가서 지금은 회원이 5명이다. 어느 정도 인생의 철이 든 나이 5060이다.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감히 덤빈 사람들이니 연륜과 함께 학력 수준도 높다. 더구나 올해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보조로 책을 구매하니 금상첨화다. 우리 모임이 사적 동아리에서 공적 레벨로 격상된 듯싶어 어깨가 으쓱거린다.

아르쿠스는 라틴어로 무지개라는 말이다.  회원이 7명이었을 때 7개의 빛깔을 뜻하는 말을 찾다가 무지개를 생각했고 조금은 학구적인 느낌의 라틴어에서 아르쿠스를 찾았다. 만장일치였다. 사회과학 서적은 여전히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가끔은 아주 재미있다. 인생 고희에 만난 새로운 도전이다.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니 더 없이 기쁘다.

### 다시 일곱 빛깔로 돌아가기를

엊그제는 만추의 북한산에 갔다 왔다. 회원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모두 같이 갔다. 덕분에 영육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 좋은 건 서로 취하려고 노력한다. 서로 다른 듯싶어도 결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고 격려하는 모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바로 구존동이(求存同異)다. 아르쿠스의 자랑이다. 현재 5명 회원인데 2명이 더 채워져서 다시 일곱 빛깔의 무지개 아르쿠스가 되면 좋겠다. 어서 그날이 오면 좋겠다.



02

# 서평 쓰기 작업 중

센북클럽 · 김상렬

### 서평 쓰기 작업 시작

서평 쓰기 작업은 201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6년 하반기 〈얼굴 있는 서평, 내 인생의 책 한 권〉 프로젝트 이후 지속 가능하면서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한 줄 서평 쓰기〉를 시작하였다. 참고로 센북클럽에서 진행하는 도서는 아파트 온라인 네이버 카페, 밴드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부 공개된다. 2017년 초기 13권은 한 줄 서평과 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줄 서평의 진화는 추천자 도서 서평을 12권에 추가하였다. 추천자 서평은 센북 모임에서 도서를 추천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추천자가 독서모임 주관자가 되어 그 집에서 대체로 진행하기도 한다. 도서를 추천하는 입장에서 서평의 전체적인 내용을 향상하는 동시에 정보로서의 기능을 높였다는 평가이다. 현재 적용하는 방식은 한 줄 서평+별점/추천자 서평 외에 책 속의 한 문장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일부 도서에서 책 속의 문장 등을 소개하였으나, 한겨레 이문영 기자의 『웅크린

말들』을 읽고 너무 처연하지만 아름다운 책 속 글을 소개하자는 의미에서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도서부터 회원당 책속 문장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여 시행 중이다.

### 별점, 서평 참여 회원 수, 올해의 책 선정

함께 읽은 25권을 우선 정량적인 평가지표인 별점(5.0만점) 기준으로 분석하면, 『코스모스』(4.5), 『리스본행 야간열차』(4.5), 『베어타운』(4.4),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4.4), 『우리와 당신들』(4.3), 『당신이 옳다』(4.3), 『유라시아 견문 1』(4.3) 등이 회원들에게 사랑받은 도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본가의 탄생』(3.6)은 독서 성향 차이로 회원 간 편차가 큰 도서로, 『따로,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3.5)는 아파트 공동체 입문서이지만, 회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평가 자료는 도서별 서평 참여 회원 수이다. 18년 대비 19년 회원 수가 증가함을 고려하면, 2019년 11명의 참여로 공동 1위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11명)와 『유라시아 견문 1』, 10명이 참여한 공동 3위는 『나의 몫』과 『자본가의 탄생』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옳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 각 9명이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1위 『베어타운』(9명), 2위 『서울 선언』(8명)이 차지했고, 나머지 한 권을 제외하고 7명이 서평에 참여했다. 서평 참여도 지표는 회원의 도서 취향과 도서의 대중성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평가 지표로서, 2018년 연말과 2019년 상반기에 각각 '올해의 책 Best 3'을 선정했다. 2018년 선정 도서(해당 도서)는 3위 『베어타운』(5명), 4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3명), 5위 『코스모스』(2명)였다. 2019년 상반기 선정 도서는 1위 『당신이 옳다』(7명), 2위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6명), 공동 3위로 각 3명씩 추천한 『나의 몫』,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차지했다. 참고로 2018년 전체 1위는 『웅크린 말들』(7명), 2위는 『이상한 정상가족』(6명)에게 돌아갔다.



### 그 외에 센북클럽의 도서 흐름

실제 독서모임 참여가 가장 높았던 책으로는, 2019년에는 1위 『나의 몫』(10명), 2위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9명), 8명이 참석한 공동 3위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와 『자본가의 탄생』이 있다. 반면 2018년에는 한 권의 모임만 제외하고 모두 7명이 참석하였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전제하면, 역시 독서모임 참여율은 회원의 관심과 도서 주제가 관련이 깊다고 유추할 수 있다.

끝으로 회원별로 별점 부여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어, 원기(이하, 모두 존칭 생략)는 최대 4.0을 넘지 않는 다소 보수적인 별점(평균 3.7)과 민선은 도서별 확실한 평가로 평균 3.9점을 준 반면, 동규(평균 4.4), 민아(평균 4.2) 및 성주(평균 4.2)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별점 부여 방식은 도서 추천자에게 긴장감을, 공개 시점에서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03

# 독서동아리와 함께한 연극 나들이

봄날의곰 · 이영

### 책과 연극과의 만남

우리 동아리는 『오만과 편견』을 읽고 연극을 보기로 했다. 10명 인원이 같은 날 함께 연극 관람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3-4명이 한 조가 돼서 다른 날 각 조가 보기로 했다.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연극까지 연결하여 느낌을 나눌 수 있다는, 한번에 이어지는 이런 완벽한 끝마무리가 또 어디 있을까?

### 『오만과 편견』 작가와 작품 소개

제인 오스틴은 1775년 12월 16일 영국의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교구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습작을 하다가 16세 때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했고, 21세 때 첫 번째 장편소설을 완성했다. 1796년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는 와중에, 후에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된 서간체 소설 「첫인상」을 집필한다. 그러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다시 꾸준히 여러 작품의 집필과 개작 활동을 한다. 18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형제, 친척,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1809년 초턴으로 이사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작품으로 『이성과 감성』(1811), 『오만과 편견』(1813), 『맨스필드 파크』(1814), 『에마』(1815) 등이 있다. 4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민음사 책에서 발췌)

『오만과 편견』은 베넷가의 다섯 자매들 중에 둘째 리즈는 당당하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18세기 시대에 앞선 여성상 리즈와 말이 없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서툰 다아시와의 만남부터 서로에게 오만하고 거만하게 보이는 편견을 갖고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 다역 2인극 형태의 연극에 대한 호기심

연극 공연장을 몇 번 가보지 못했던 나는, 다역 2인극이라는 형태의 연극을 본다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여배우 1명, 남배우 1명이 각각 9인의 역할, 11인의 역할을 순간순간 바꾸며 숨 가쁘게 극을 이끌어가는 연극이었다.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제한 없이 주고받는 역할에, 때론 여배우가 남자 역할을, 남배우가 여자 역할을 하며 색다른 재미를 주기도 하였다.

비대칭적인 무대 연출이나 배우들의 변신 의상(입고 있는 드레스가 남자 역할을 할 때는 바지를 보여주며 변신이 된다.)은 이 연극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영국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배우 두 사람만의 출연에 지루할 수 있는 점들을 변신 의상이나, 소품 등으로 작은 변화를 주면서 극을 이끌어갔다.

빠르게 이어지는 대화는 다른 사람의 역할로 바뀔 때마다, 상대 역할이 누구인지 힌트 주기를 잊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대 배우의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해설을 덧붙이는 식으로 말이다.

### 연극을 보고 나서

계속되는 2인극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역할이 정신없이 바뀌니,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 깜빡거림도 없이 집중했다. 그러고 있자니 관람자인 나도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데, 160분(인터미션 포함)동안 공연자는 쉼표 없이 흐르는 극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다양한 배역 표현과 그 많은 대사를 막힘없이 해나가자면 보통 연습량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었을 것 같았다. 배우 역량의 한계를 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다. 왜냐하면 극의 전개가 길어질수록 다인의 역할로 몰두할 시간이 짧고 전환이 몇 초 단위로 바뀌어 그때마다 극을 음미하기도 전에, 이미 흐름은 흘러가고 어느덧 맥락 없이 극을 좇아만 가고 있었다. 연극이라기보다는 때론 낭독극을 보고 있는 것도 같았다. 연극이 끝나고도 대단한 배우들의 역량에는 기립 박수를 보내지만, 연극으로서의 기대는 공허한 느낌으로 남아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미스터 다아시와 리즈의 관계를 진지하게 묘사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고전의 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물과 성격, 심리 묘사를 배우 두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다. 항상 해오던 형식의 연극이 아닌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한 시도로 기획한 공연이라면, 분명 관람자는 『오만과 편견』의 책을 읽고 관람을 해야 그나마 연극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역의 2인극을 소화해내는 배우들의 열정에 진정한 존경심이 일었다.



04

# 일로 만난 사이지만

어독 · 류춘희

### 강렬한 책의 기억

오래 전 여성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책 한 권을 소개해주셨다. 그날 다른 장면은 기억에 없는데 유독 그 장면은 20년이 훨씬 넘게 흐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교단에서 열심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소회를 나누시다가 책을 한 권 소개해주셨는데, 핼레나 노르베르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였다. 이 책은 지금 누런색으로 퇴색이 된 상태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서 칸에 보관이 되어있다.

문득 그날이 생각나는 것은 그날 소개해주신 책을 당장 구입하고 단숨에 읽고 나서 오랫동안 묵상했던 시간이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물론 책이 전달했던 메시지가 중요하기도 했었지만 누군가가 소개해준 책 한 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 현재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생각에 더욱 그날이 생각났던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래된 미래』를 읽고 난 이후 나는 그 전의 나와 조금은 다른 생각을 자주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거스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주는 소중함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것이다.

### 지금까지 독서 습관을 유지해온 것은

지금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누군가가 소개해준 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는 문이 되기도 했으며, 궁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주는 참고서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책 사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즐기는 것은,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알려 주는 책도 좋지만,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좋은 책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장서 칸에 읽지 못한 책이 늘어 갈수록 책 사는 것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것을 분발해 보기도 하면서 독서 습관을 유지 해온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직장 동료들과도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가지고 싶었고, 내가 읽은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바쁜 직장인들이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며 책 읽기를 소홀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에 부담 없이 읽었던 책을 나누자 약속하니 그동안 혼자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던 몇몇이 알음알음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개해주는 책,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모여 모임을 만들고, 경험을 나누게 됐다.

### 어독 독서동아리의 시작

소개해주는 책은 읽기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이기도 했다. 점심시간 짧은 독서모임시간은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숲속의 맑은 공기 같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늘 바빠서 점심식사 후에 바로 책상에 앉는 습관을 가진 우리에게 바쁘지만 잠시 쉬어가는 점심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선물을 하고 싶어졌고, 마침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에 선정되는 선물까지 얻게 되었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리는 책을 구입해서 나누어 읽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 다른 동료들에게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저자를 초청하고 동료들을 초대해서 함께 책 읽기 응원도 했다. 가을 햇살 아래 숲속에 있는 책방으로 독서기행도 다녀오고, 한글날을 맞이해서 학글학자 최현배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외솔〉도 관람했다.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 문화 활동으로 좋은 영화도 한 편 나누어 볼 생각이다.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 올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가고 있는 중이다.

### 아름다운 기억으로 소중하게 기록할 것

20여 년 전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툭 던지신 책 소개가 지금껏 내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듯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독서모임에서 소개받았던 책 한 권이 후일 정년퇴직한 언제쯤에라도 한 줄 기억으로 남는다면 좋겠다. 일로 만난 사이라는 직장 동료들이 문학을 이야기하고, 독서를 통해 책 속에 담긴 철학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도 풍부하게 가꾸어갔던, 우리의 젊은 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소중하게 기록할 것이다. 어울림복지재단 직원들의 독서모임 '어독'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다. 주변의 도움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 날의 책 읽는 모임이 될 것이다.

05

# 우리들의 독서동아리 후기

도란도란그림책읽기

### 루아 엄마 문서영

저와 루아는 뒤늦게 독서모임에 들어와 참석한 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좋은 기억 뿐이에요. 첫 번째 참석한 날은 어렸을 적 들어본 노란 풍선 노래를 책으로 만나 아이들과 함께 듣고 불러본 아주 새롭고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참석한 날은 캠핑장에서 고기와 새우도 구워 먹고 수박도 깨서 먹고 아이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배드민턴도 치며 함께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솔이 엄마표 단호박 케이크였어요.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서 맛도 더 좋았고요. 아이들에게 읽어준 『말들이 사는 나라』 책도 정말 재밌었고 루아에게 엄마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거 같냐고 물어보니 화내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성도 됐어요. 여전히 화가 많은 엄마지만, 참석은 많이 못했지만 좋은 기억 뿐이에요. 글재주가 없어서 제가 느낀 점은 요 정도로 마칠게요.



### 인태 엄마 김희정

다시 읽는 그림책. 그림책은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소개하는 그림책을 읽고 나눌 때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 좋았어요. 그림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감탄하며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책장의 그림책은 줄어가지만… 또 아이가 부모가 되면 다시 그림책을 읽게 되겠죠? 즐거운 추억, 좋은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랑 엄마 김아영

저는 『노란 풍선』 그림책을 보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풍선 가지고 같이 게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섯 살짜리 아들도 그 노래가 며칠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는지 흥얼흥얼거리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림책과 연결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은규 엄마 이선림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구나를 열혈 동아리 대표를 통해 알게 되고, 일원이 되었네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어릴 땐 알지 못한 나(아빠 엄마는 항상 바쁘셨으니)! 20대가 되어서야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어릴 때부터 책과의 만남을 유도하게 되고, 아이도 그 유도에 잘 따라와 주는 듯하여 좋습니다.

### 우솔 엄마 박정영

동아리 모임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엄마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네요. 저 역시 어릴 때에는 그림책을 잘 못 보고 자랐네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일하는 엄마로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겸하느라 시간이 없어 다른 책을 못

읽고 있는 아쉬움이 없을 만큼 그림책의 매력에 듬뿍 빠지게 되었습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엄마들끼리 읽은 그림책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못 하는 듯해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자주 책을 보고 아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 같이 내면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들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모임에서는 함께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들과 함께하는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1월 모임에서 아빠들을 두 분이나 볼 수 있어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기뻤고요,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계속 이렇게 쭈~욱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6

# 독서동아리에 관심 있는 누군가에게

북세통 • 정인경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는 정인경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 일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우선 제가 독서모임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틀리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해?'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이러한 저의 모습은 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복사본을 보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부족한 엄마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의 이런 사고의 틀을 깨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을 전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라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 익숙해져 있던 사고의 틀을 깨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고,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면서, 동아리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동아리 모임을 시작하며 저의 편중되었던 사고들이 조금씩,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긍정과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는 연습이 되면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수용하려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책을 통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게 되면서,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저의 철학이 생기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동아리 활동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었죠. 처음 동아리 모임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년시절에도 토론이란 것을 즐기지도, 경험을 자주 갖지도 않았던 저였기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이 정말 불편하고 어려워 활동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울림을 통하여 수용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답니다. 독서 토론 모임 활동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기 위해 필사와 질문 만들기를 연습하고 독서 토론을 통해 경청을 하게 되면서 공감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며 저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에 몽실몽실 구름 위를 다니는 기분입니다. 책은 저의 새로운 동반자인 동아리 모임은 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는 코디네이터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아리 회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니, 저의 개인적이 성향에도 '다름'이 아닌, '음… 그렇구나'라는 인정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받는 기분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온기는 저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횟수와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의 탑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 너무 행복하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 그저 그런 날들이었지만 그런 일상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

# 엄마와 함께 친구와 함께 책과의 추억으로 자라난다

## – 까치북클럽 2주년을 앞두고

까치북클럽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엄마들끼리 모이다

2017년 3월 이후 초등 신입생의 엄마들은 서로를 알아가느라 크고 작은 모임들로 바빴다.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최고의 관심사인 엄마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독서의 재미에 푹 빠지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각기 다른 직종의 워킹맘 9명이 더 친해지게 되었다. 아이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고, 함께 읽기를 중시했던 엄마들이 친구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거기에 아이 친구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해보았던 엄마까지 더해지면서 독서모임의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다. 초등학교 첫해의 학교생활 적응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각자 더 부지런히 책을 읽어주고, 엄마들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2학년이 되는 해 1월에 여자아이 다섯, 남자아이 다섯, 그리고 9명의 엄마가 첫 독서모임을 시작하기로 정하고, 2017년 겨울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아이의 독서지도에 대한 책을 함께 읽기도 했고, 이 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면서 모일 때마다 늦은 밤까지 이야기가 끊어질 줄을 몰랐다. 독서모임의 이름은 함께 사는 마을의 이름을 따오고, 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까치북클럽'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매주 목요일 늦은 저녁 시간에 엄마들이 순번대로 본인이 선정한 책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매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큰 틀을 정하고 세부 모임 규칙도 정했다. 모두들 워킹맘이었기에 평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자녀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매력이었다. 엄마가 자신의 시각에서만 갇히지 않고 또래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큰 이점이었다. 서로의 아이를 함께 잘 키우자고 마음을 모으고, 비교나 자랑 등으로 멤버 간의 불화(?)가 생길 경우 그 관련 멤버들은 모두 나가야 한다는 농담까지 즐기면서 9명의 엄마들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자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들과 책과 함께 엄마도 아이도 서로 성장했으면 하는 강한 열정으로 독서교육 전공자 하나 없이 모임을 기획한 것이었다.

###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독서모임을 시작하다

워킹맘이 퇴근하고 저녁 차리기, 집 치우기까지 하고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적지 않은 인원을 위해 집을 매번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시민을 위한 무료 대관 시스템으로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을 매주 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남시 12개 도서관에 소장 상태를 앱으로 검색하며 같은 책을 여러 도서관에서 긁어모으다시피 발로 뛰며 준비하여 드디어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 모임은 특히나 엄마들도 아이들도 낯선 긴장 속에서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동화책을 엄마들의

합동 동화구연으로 읽고, 그림과 단어 연결하는 퀴즈, 흉내 내는 말로 문장 만들어보기, 골탕 먹은 호랑이 얼굴 그림 그리기, 다양한 출판사의 같은 제목 동화 비교해보기를 했다. 한 엄마가 쑤어온 팥죽도 함께 먹었다. 아이들은 서로 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새로운 모임의 첫 시간 이후 급속도로 친해졌으며 다음 모임의 선생님, 다음 모임의 책을 궁금해하며 모임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이어나가다

엄마 중에 국문학 전공자나 국어 교사가 없어서, 어떤 책을 함께 읽을까, 책을 읽고 어떤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활동과 연계 지을 수 있을까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했다. 시중에 아이들의 독서지도에 관한 책, 인터넷상의 초등 독후 활동, 추천 도서들은 넘쳤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보아서 맘에 드는 책과 질문을 뽑아내는 데는 워킹맘으로서 만만치 않은 추가의 시간 투자가 필요했다. 어떤 때는 애들이 떠들고 놀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것 같아 이런 작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무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들로, 전공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생각을 잘못 유도하게 되는 건 아닐까 자신 없기도 했다. 갑작스레 매주 대관하던 복지센터의 난방시설 문제로 대관 불가 연락을 받기도 했다. 책을 매번 사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성남시 여러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긁어모으다시피하여 여러 권을 준비하는데 인기가 많은 책은 다 대출 중이라 더 멀리 있는 도서관, 마을 곳곳의 작은 도서관까지 다니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모임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흐뭇한 선물이었다. 개성이 각자 매우 강했던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어울리기, 미리 온 친구가 테이블 배치 바꾸기, 자기 엄마 차례 때 반장 맡은 아이가 스스로 칠판에 오늘의 책 제목 써넣기. 또 모임에서 나누었던 책을 집에 가서 또 읽고 싶다고 빌려 가기, 작가의 다른 책, 다른 시리즈에까지 관심 넓히기, 엄마들에게 독서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하기, 말수가 유난히 없던 친구가 다음 모임 책에 대해 질문하기 등등. 아이들은 이 모임을 시작하게 해준 엄마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며 어느새 매주 목요일 독서모임에 너무나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물론 독서모임 후 매번 제공하기로 했던 과자나 간식도 큰 역할을 했지만 말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정으로 옮기게 된 영어 학원 스케줄 중복 문제, 그리고 계속되는 엄마들 순번의 모임 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모임 시작 8개월이 채 되기 전에 두 엄마와 두 아이가 빠져나가게 되었다. 나름 오랜 시간 가치관을 맞춰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멤버의 이탈로 남아 있는 멤버들까지도 수업 준비와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모임이 얼마나 갈까 불안해하며 갈등하기도 했다.

### 책과 함께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다

책 말고도 다양한 체험을 위해 엄마들은 머리를 맞대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자극 말고도 책에 대한 즐거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독서모임 시작 후 첫 번째 여름방학에는 책 1권당 열매 스티커를 붙여서 33개의 열매 스티커가 완성되었기에 '책나무 한그루 캠프'라는 제목으로 엄마와 아이에게 서로 상장을 만들어주는 1박 2일 이벤트도 가졌다. 자연휴양림에서 함께 빙수 만들기, 신문지로 패션쇼, 잔디광장 물총싸움 등도 했다. 독서모임으로 시작된 이 모임의 이벤트는 윷놀이 대항전, 영화 관람, 서로 보드게임 가르쳐주고 배우는 보드게임 1박 2일 캠프, 공원에서 보물쪽지 찾기, 목공 체험, 공연 관람, 놀이공원 나들이, 가족끼리 남한산성 나들이까지 진화하게 되었다. 서로 개성 강한 아이들이었지만 친구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갈등을 조율하면서 함께 잘 노는 모습,

말수 없던 친구가 스스로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해나갔다. 학교에서 재미있는 책이나 인기 있었던 작가의 책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어디를 함께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찾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스마트폰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 모임을 통한 성장을 증명해주었다.

### 다양한 시도로 독서모임이 다채로워지다

아이들의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개로 독서지도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비전공자들이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여럿이 모였다는 자체를 전문가들이 오히려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이런 모임의 취지를 높이 평가해서 엄마들을 위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답을 찾기 위한 읽기가 아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독서를 위해서는 이런 형태가 정말 훌륭한 접근이라는 평가도 받아서 엄마들이 오히려 당황하기도 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여러 엄마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다양한 독후 활동의 시도도 가능해졌다. 지구온난화라는 주제로 어린이 신문 사설과 원숭이 꽃신, 과학 동화까지 묶어 함께 읽어보고 환경달력 만들기도 해보았다. 달걀 요리 및 삶는 시간을 달리하는 실험으로 시작하여 병아리 부화, 각인효과까지 이어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머리가 좋아지는 약봉투 만들기, 초등입학을 앞둔 후배들에게 초등학교 생활 안내하는 글 쓰기, 설탕 간식 만들기 실험, 만화경 만들기, 우리 신 이야기 미니북 만들기, 자석 실험, 뫼비우스의 띠 만들기, 별주부전 가면 만들기, 신문 활용 수업, 까치북클럽 노래 만들기, 주인공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탄력받다

우연한 기회에 지원했다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2019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전국의 동아리들 중에서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 기뻤고 함께하는 엄마들도 아이들도 참 많은 힘을 얻었다. 첫 독서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여 전국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양한 독서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얼마나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지…. 그 후 지역의 길잡이 선생님이 각 동아리를 탐방하여 소식을 전해주기도, 각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활동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좋은 자료도 공유할 수 있었고, 더욱 분발하도록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각 동아리들의 모임 탄생 이야기와 활동 이야기들은 정말 각각 다 소중하고 특별하였으며 이런 책을 함께 읽는 즐거움이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진해졌다. 3개월마다 늦은 밤에 까치북클럽 모임 연구를 위해 엄마들이 모였었는데 지원사업으로 받게 된 돈을 어떻게 쓸지 즐거운 고민도 함께했다. 그 고민의 결과로, 별주부전을 함께 읽고 별주부전을 뮤지컬로 만든 공연 관람을 하기로 했다. 책과 영화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영화 관람도 할 수 있었다. 색과 선에 대한 창의적인 그림책을 읽고 미술과 그림이 접목된 공연을 보러 가고, 모임 때 도서관에 여러 권이 없는 책을 사기도 했다. 지원금이 없이도 자비로 다들 책을 사거나 책과 관련된 공연 관람을 해오긴 했었으나 지원금으로 응원받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 100회 모임 그 이상, 더 많은 동아리를 꿈꾸어 본다

2017년 아이들이 초등 1학년 때 만나 준비하고, 2학년 때 시작했던 모임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100회 모임을 향해가고 있다. 아이들의 성화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축하 이벤트를 위해 엄마들은 또 머리를 싸매며 즐거운 고민을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읽은 책도 80여 권이 넘지만, 아이들도 엄마들도 함께한 이 모임 덕에 얻게 된 것이 참 많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엄마가 함께하기에

버거운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한 번뿐인 초등 시절에 책과 친구들과 엄마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기억은 15명의 가슴속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엄마들이 가족들의 협조로 이런 모임을 함께하며 연구하는 모습들을 본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 큰 교훈이 있었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활동이 사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까치북클럽 어린이들의 동아리 한마디

**김동준** : 나는 용인휴양림에 간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독서모임인데 재미있는 곳도 많이 가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좋았다. 나는 친구들에게 독서모임을 추천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신윤아** : 나는 독서모임 중에 놀러가거나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았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미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실험하기, 활동하기, 만화작가 선생님께 사인 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애니코믹스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다.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았었는데 책으로 다시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다.

**조연재** : 독서모임을 하면 같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 좋다. 모든 책이 다 특별하지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 좋았다. 그 긴 이름을 아직도 외우고 있다. 휴양림에 가서 쉬기도 했고 뮤지컬도 보았다. 독서모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들 해보면 기쁠 거예요.

**오수민** : 나는 책도 함께 많이 읽고 함께 많이 놀기도 했던 것이 좋았다. 독서모임하는 친구들과 스포츠데이를 만들어 함께 축구하며 놀기도 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엄마와 함께해서 행복하기도 했다.



**정해찬** : 나는 독서모임을 하면서 많이 많이 놀러가서 좋았다. 그 덕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책도 읽고 간식도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모임을 알게 되면 좋겠다.

**정해철** : 나는 2학년 때부터 독서모임을 했다. 책도 많이 읽었지만 여행도 많이 갔었다. 여행 중에서도 1박 2일은 최고였다. 『지우개 따먹기 법칙』 책이 참 재미있었다. 만화작가를 직접 만나 사인 받은 것도 잊을 수 없다.

**문예린** : 나는 독서모임을 추천한다. 책도 읽고 놀러가고 특히 우리 모임의 노래도 있는 게 우리의 장점이다. 『자석 총각 끌리스』 책이 가장 재미있었고, 공연 보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권도윤** : 독서모임 친구들과 책도 많이 읽었지만 처음으로 용인자연휴양림에 가보았다. 친구들과 물총싸움도 하고 사마귀, 메뚜기, 장수풍뎅이를 잡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엄마, 독서모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08

# 한 작가 깊이 읽기

## – 유은실 전작 읽기를 마치며

유난히

### 신아영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을 좋아한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선악은 분명하게 나뉘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하지만 삶에서 선악은 구분하기 힘들고 수많은 폭력과 죄책감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세상은 개인의 불행을 다루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불행이 자신의 책임이라 믿게 한 것이다.

유은실 작가는 동화 속에 삶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면서도 사랑을 놓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책을 통해 계속해서 손을 내민다. 작가의 손을 잡고 걸어본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들, 폭력적인 상황과 가난이 있다. 그리고 따듯함이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며 계속 작가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었다. 작가는 계속 말을 걸고 또렷이 말해준다.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보라고.

어린이책을 하나의 도피처처럼 생각했던 내게 유은실 작가의 세계는 매력적으로 또 강렬하게 다가왔다. 동화임에도 작가는 현실 세계를 그린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줘도 괜찮을까 싶은데도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

유은실 작가의 이야기는 현실 속 차가운 세계 같지만 그와 달리 자칫 판타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따듯함이 있다. 작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통해 위로를 전한다. 억지로 괜찮은 척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면서 '그러게 언니'를 보내 사랑으로 품어준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소외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작가.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나중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작가. 내가 받은 유은실 작가의 인상이다.

### 진현

올해 2월 서울에서 만난 그녀는 내가 책을 읽으며 생각했던 여리고 섬세하고 수줍음 많으며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사람일 거라는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큰 목소리에 껄껄 웃음 지으며 욕설을 시원하게 내뱉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특히, 어린이책은 완전히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편에 서는 문학이어야 한다고, 어린이를 위한 글로 어린이들과 만나겠다는 다짐을 할 때에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다.

유은실 작가 책을 알게 된 것은 10년 전이다. 2007년에 출간된 『만국기 소년』 동화집을 2009년에 읽으면서부터이다. 공책을 뒤적여보니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에 「내 이름은 백석」, 「만국기 소년」, 「맘대로 천 원」에 담긴 빈곤함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나는 장편동화의 큰 서사에 더 흥미를 갖고 있었고, 섬세하게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사색하기보다는 사건과 인물 중심의 책 읽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에 이 작품의 매력에 깊이 빠지지는 못했었다. 또, 나는 미하엘 엔데를 비롯해 린드그렌, 뇌스틀링거와 같은 외국 작가들의 책 읽기에

더 중점을 두었고, 판타지 동화에 푹 빠져있었기 때문에 서양 판타지 동화를 찾아 읽고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는 데 힘을 기울였었다.

당시에는 '동화의 소설화 경향'이라는 내용으로 리얼리즘 동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기였는데 이 논의에 장작불을 붙인 작품이 유은실 작가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동화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작품이 출간되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동화를 찾아 읽게 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나온 동화는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읽고 있으니, 참 중요한 시기였었다.

잊고 있던 유은실 작가를 다시 만난 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다. 『나도 편식할 거야』를 아들에게 읽어주면서 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다. 이 책 때문에 아들은 "나도 편식할 거야"라는 말로 채소 안 먹기를 당당하게 주장했다가 나한테 혼나기도 했었다.

내가 그 후에 만난 유은실 작가 작품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이다. 2005년에 출간된 초판이 아니라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시리즈를 통해서 만났던 것이 2013년이다. 2013년에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창비 출판사 행사에 참여했다가 참여 인원이 적어서 운 좋게 대부분의 상을 싹쓸이하면서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시리즈 30권을 선물로 받았다. 이 시리즈 가운데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린드그렌 선생님'이 들어간 제목이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듯하다. '비읍이'의 성장담을 따라가면서 린드그렌 선생님을 회상했고, '그러게 언니'를 통해서 나도 '그러게 언니'를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 이때까지도 유은실 작가 작품에 대해 크게 애착을 갖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나 자신이 빈곤하게 자랐던 기억이 컸던 탓에 다시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방어기제가 있었다.

내가 유은실 작가 작품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책교실 모임 덕분이었다. 후배가 「보리 방구 조수택」 단편을 읽어주는데 내가 읽었을 때에는 와닿지 않았던 그 정서와 분위기, 먹먹함이 온몸을 때렸다.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먹먹하고 가슴에 와닿는 '윤희'의 독백을 듣는데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이 유은실 작품의 힘이구나! 그리고 읽어주기의 힘이구나! 함께 읽기의 힘이구나!'를 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 후 모임에서 『멀쩡한 이유정』, 『드림 하우스』를 함께 읽으면서 유은실 작가 작품에 더 매료되었다.

유은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빈곤한 삶 속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고 당당하다. 백석, 정아, 변두리의 주인공, 나의 독산동의 꼬마 비읍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비굴하지 않다. 씁쓸한 상황이고 누군가의 시선에는 참 별 볼일 없고 안타까운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켜나가는 자존감이 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여린 존재에 대해 섣부른 동정이나 냉정한 깔봄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 따뜻함이 유은실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다. '그러게 언니'처럼 나도 내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지혜**

최근에 꽤 가까워진 동료 선생님이 말해주었다.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한다. 듣고 보니 그렇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묻지는 않는다. 당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가장 묻고 싶은 사람은 유은실 작가였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정중하게 그러나 애정과 질투를 듬뿍 담아 묻고 싶었다. 물론 어떤 날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작품을 쓴 것인지 따져 묻고 싶기도 했다. 작가님이 우리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답변해내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하지만 작가님은 바쁘니까, 그

런 작가님을 대신해서 민영, 유진, 현, 아영, 지현 님이 답을 많이 해주었다.

그러니까 6명이 함께 유은실 작가의 전작을 읽은 시간은 텃밭에 모여 앉아 감자 캐는 일과 닮았다. 주렁주렁 질문에 질문이 끌려 올라오고 주거니 받거니 바구니에 감자를 담는 시간이다. 이 감자가 무슨 감자일까 곰곰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다 결국 맛있게 감자를 삶아 먹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참으로 배부른 날들이었다.

여러 날 중 『우리 집에 온 마고할미』가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특히 좋았다. 이상하도록 내게 위로를 주는 책이었다. 마고할미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다. 넘치는 생명력으로 주위를 말 그대로 거둬 먹이는 사람이다. 처음 책을 읽는데 씩씩한 할머니가 내게도 고봉으로 밥을 담아 앞에 턱하니 차려주는 것 같았다. 힘 좀 내라고. '축 처져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건강하고 넘치는 생명력이 내 마음까지 와닿았다.

유은실 작품은 대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는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슬픈 것은 슬픈 대로(내 이름은 백석, 만국기 소년) 어두운 것을 어두운 대로(변두리), 길 잃은 것은 잃은 대로(멀쩡한 이유정) 보여주고 대신 삶을 대하는 온기와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손을 내민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생명이 있는 건 다 힘들지."라고 말하는 마고할미처럼 아이들의 둥글게 말린 등을 쓸어주는 이야기를 쓴다.

끝에 가서 나를 또 한 번 울린 작가의 말처럼 마고의 자유와 즐거움이 내게도 다시 깃들면 좋겠다.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나면 좋겠다.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혹은 주위에 둥글게 등 말아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 책을 읽어주고 싶다. 그러다 우리도 "맑은 날은 밤하늘을 봐야지. 나는 세상에서 별이 아름다운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싫어."와 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싶다.

한 학기 동안 서로의 생각에 끄덕여주고 터무니없는 해석에도 일단 공감해주며 같이 텃밭을 일군 유난히 분과 선생님들에게 고맙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에 배부르게 쌓여가는 것이 있었다. 이 배부름을 어떻게 나눌지도 다시 모여 앉아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09

# 생각의 숲을 거닐다

생각의숲 · 원미현

## 내가 독서모임을 하는 이유

'하하하' 한바탕 크게 웃기도 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붉으락푸르락 화가 치밀게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 그리고 그 책을 함께 읽고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한 세 번째 생일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냈다.

한 달에 한 권. 오롯이 책과 마주하는 시간은 늘 설레고 행복하다. 혼자라면 몇 장 넘기지 못하고 포기했을 두껍고 어려운 책도 함께 나눌 책모임을 생각하며 용기 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끝을 향해 간다. 각자가 책을 통해 느꼈던 세계를 펼쳐 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토닥여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며, 성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특히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은 우리 생각의숲 모임 구성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한 번쯤은 저자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단 지원을 통해 임승수 작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뚜렷해진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던 『자본론』과 마르크스 철학을 다룬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과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얽혀있던 이야기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갔다.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 먹고사니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물질 중심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 교차했다.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뚜렷해진 것 같다.

생각의 틈 사이로 조금씩 들어오는 단어와 책 구절.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첫 장을 펼칠 수 있었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 이런 이야기 같이 해볼까'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책, 그리고 저자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재에서 미래로 이끌었다.

## 숲을 더욱 풍성하게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땅에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어 숲을 이뤘던 '부피에'처럼, 한 권, 두 권 읽어 내려간 책이 모여 숲이 되었고, 우리는 그 생각의 숲을 천천히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걷고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낙엽처럼 켜켜이 쌓여 나무를 그리고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매일 조금씩 변하는 숲을 만나고 있다.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포근한 햇빛과 무심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걷는 숲길이 즐거운 것처럼,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만나는 책과 소소한 이야기가 있어 우리는 지금에 귀 기울이며, 내일을 기다리게 된다.

10

#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을 읽고

어깨동무 · 이예영

## 천종호 판사님을 만나다

저자 강연 지원으로 호통판사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을 초청해 지역 주민과 함께 저자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자 강연회 때 판사님 책을 읽고 쓴 글을 판사님께 드렸는데 판사님께서 저자 강연회 후기로 SNS를 통해 이 글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 청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부산여중생 사건, 고베 아동 연속 살상 사건, 절도, 사기 등등 많은 사건들이 나온다. 나는 부산여중생 사건 피해자의 사진을 보았다.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 피범벅이 된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올려 자랑하는 등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을 10대 소녀들이 하였다는 사실에 더 놀라웠다. 이 부산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사람이 20만이 넘었다고 한다. 과연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소년들도 어른들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 책에 나오는 오영근 교수님은 청소년 범죄자와 성인 범죄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라 아직 미성숙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과학적, 뇌 발달 등등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직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 엘마이라에서 일어난 일

1974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인 엘마이라에서 일어난 일을 글과 영상으로 접했다. 10대 소년 2명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평화로웠던 마을이 한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자동차, 창문과 온갖 마을의 것들이 다 부서지고 교회는 온통 낙서로 가득하였다. 마을의 22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 두 소년은 체포되어 교정위원인 마크 얀지와 데이브 월트에게로 넘겨졌다. 하지만 이 교정위원과 판사는 소년들을 감옥에 보내기보다 다른 선택을 제안했다. 한 달 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두 소년에게 '감옥에 가라, 용서해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한 점을 쓰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반성문을 적어 오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소년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합의해 지금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행동을 한 두 소년들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줌으로써 이 두 소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 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 더 많이 따뜻해졌으면

천종호 판사님은 책에서 청소년 재판은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970년대에 이미 그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준 캐나다의 이야기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아닌 '기회'와 '회복'의 시간을 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깨닫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르게 비행소년들을 비판과 비난이 아닌 따스한 말과 따끔한 말로 보듬어주시는 천종호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한다. 판사님 같은 어른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이 사회가 더 많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11

# 여기 책이 있고 사람이 있다

책을 담다 · 김건영

행자가 상좌스님에게 물었다.

상좌스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좌스님이 답했다.

그저 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노는 것입니까?

혼자일 때는 스스로 잘 놀아야 하고 둘 이상일 때는 그것대로 잘 어울려야 합니다.

### 책을 담다

'책을 담다'의 결성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햇수로 2년이 되었다. 부산, 경남에 사는 직장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첫 모임에서는 정재찬 작가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소개하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시, 자작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요일 저녁이었고, 나는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한 카페에서 박성우 시인의 「두꺼비」를 낭독했다. 모두는, 각자 자신만

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형태소와 글자, 단어와 문장들이 카페 음악과 조화를 이루어 낭송되었다.

### 책을 담다를 소개합니다

우리 독서모임의 운영 취지는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4시에 모임을 가진다. 토론이 아닌 토의를 지향한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완독 후 참석한다. 독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모임을 이끄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은 세 가지였다.

매달 읽을 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발제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뒤풀이 장소는 이번에도 한정식 집 아니면 파스타인가?

도서 선정 시 온라인으로 추천을 받고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을 땐, 투표한 사람들이 모임에 오지 않는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버튼 누르기는 쉬워도 모임 장소로 몸을 이끌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추천할 책이 있다면 온라인 공간에 서평을 올리고 추천사도 함께 싣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게시글에 올라온 책으로 이야깃거리가 되는지는 운영진이 판단한다.

발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다. 발제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매번 중책을 맡게 되면 지리멸렬해질뿐더러 '책꾼'들의 모임이니만큼 많은 분들에게 발제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래서 정해진 방식은 '누구에게나 발제 기회는 열려 있다'.



### 열정 가득 신입 회원, 휘바휘바

단, 모임에 처음 참석해서 태양을 집어삼킬 만한 열정을 가진 분은 시베리아 대륙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 차가워질 수 있도록 뜸을 들인다. 이런 일이 있었다. 유발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가 열풍을 일으킬 시기였는데, 신입 회원이 사자후를 토해내며 말했다. "다음 달 도서는 유발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로 해보고 싶습니다. 발제도 제가 할게요." 오호라. 열망에 가득 찬 눈빛에 모두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잠적했다. 이유는 모임 당일 날 시작된 심한 독감이었다.

"저는 회원분들이 『사피엔스』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작가의 집필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끝. 발제문의 시작과 끝이었다. 자연스러웠어. 그렇지. 신입 회원에게 독서모임의 첫 느낌은 단물이 고인 추잉 껌 같은 것이지만 두 번째 모임부터는 아카시아향이 빠진, 씹어도 그만 뱉어도 그만인 고무를 씹는 느낌일 테지. 운영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입의 잠적 당일 아침, 운영진끼리 각 챕터별로 발제문을 만들어 모임을 진행했다. 핀란드에서 갓 공수해온 자일리톨 껌의 청량감이 모임을 감싸는 느낌이었다. 휘바휘바.

### 독서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장소, 도서, 규칙

모임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망과 함께하고 싶다면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부근, 한적한 바다가 그립다면 다대포, 타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면 김해. 우리가 모임을 가진 장소다. 뒤풀이 장소는 모임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식당이다. 식당을 섭외할 땐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기분이었다. 사실 처음 가본 집이지만, '여기가 맛집이에요'라고 말하면 다행히, 모두들 수긍해주었다.

책이 선정된 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 패턴도 독서모임에 맞추게 된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 대출 기한이 2주니까 퇴근

후 짬짬이 책을 읽는다. 연체되기 전에 책을 반납한다. 못 읽은 절반은 인근의 시립도서관에서 빌려도 좋지만, 반납한 책은 거기, 그곳에 그대로 있기에 재대출한다. 완독한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① 내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많이 듣는다.
②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③ 오고가는 대화를 기록해서 남기자.
④ 독서모임에서 받은 에너지로 한 달을 살자.
⑤ 다음 모임에 참가하자.

모임이 결성된 지 2년이 넘었으니 다 같이 읽은 책이 24권이 된다. 홍세화 작가는 『생각의 좌표』라는 책에서 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읽은 후 사색하고, 사람들과 나눈 후 최종적으로 정리 및 감상을 기록하면 된다고 했다.

발제 도서를 고르고 책을 구입하고,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고,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고. 역량과 에너지를 책과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때 독서의 기쁨은 두 배가 된다.

행자가 상좌스님에게 물었다. 그럼, 최고의 놀이는 무엇입니까.
상좌스님이 답했다. 놀이 중 최고는 독서요, 으뜸은 함께 읽는 것입니다.



12

# 작은도서관 봉사활동에서 작은 꿈을 이루다

은세계독서동아리 · 서재학

## 퇴직 후 겪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목표로 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멋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멋있고 아름답게〉 이것이 나의 황혼인생 목표다.

나의 황혼인생 첫 출발은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2007년부터다. 그즈음 나는 정년 퇴직자들이 겪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인생에 대한 막연함, 허허로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불안으로 느껴졌고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방된 것이 기뻐해야만 될 일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

## 성공적인 인생 3기 보내기

인생을 3기로 나눈다면 1기는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이고, 2기는 가정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시기이다. 그리고 3기는 자기 삶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인생 3기를 맞이한 그때 나는 이 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인생 3기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 내용을 책 읽기, 색소폰 배우기, 체력 단련, 봉사활동 등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가경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로부터 복지관 내에 있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권유받고 책 읽기라는 나의 생활 목표와 봉사활동이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은세계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은세계도서관은 가경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름이다. 이 도서관이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다. 처음 3년간은 순수한 봉사활동이었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에 만족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도서관 담당 사서가 친구 같은 분이라 좋았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희망도서 구입을 통해 요청하면 자비로 구입하지 않아도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 당시 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은 부족했고 책도 부족하여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증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책을 기증받게 되면 먼지를 털고 소독하여 사서가 도서를 분류하고 나와 함께 분류번호표를 붙이고 서가에 비치하는 일이 봉사활동의 주된 일이었다. 그리고 도서관 회원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고 회원에게 책을 빌려주거나 다 읽고 가져온 책은 수납 처리를 한 후 서가에 꽂아두는 것이 봉사활동으로 하는 일이었다. 그 후 도서관 봉사자로서 시립도서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여 사서 업무와 도서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2016년 봉사활동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회공헌 봉사활동자로 나를 추천하였고 그 이후 사회공헌 봉사자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은세계도서관은 그간 매년 신간의 책을 구입, 비치하여 현재 6000여 권의 장서를 갖게 되었고 헌책 기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는 큰글씨 책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노인들이 읽기 쉽게 배려한 큰글씨 책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 앞으로 나의 목표

나는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외에 더 보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 독서동아리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읽은 내용은 요약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하여 더욱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활동 중에서도 여러 자격증을 공부해 노인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상식도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 기록하는 자서전이 아니라 에세이 같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다. 몇 년을 더 숙고하고 자료를 모아 팔순까지는 손색없는 에세이를 책으로 내어 놓는 것이다. 그것이 도서관 봉사활동의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 인생의 3기 그것은 계절에 비유하면 가을이 되어 단풍이 곱게 물든 계절일 것이고 그것을 하루에 비하면 일몰의 황혼이 물드는 시각이 될 것이다. 길지 않은 인생에서 남은 생을 보다 보람 있고 멋있게 산다는 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때 주어질 것이다.

13

# 책을 읽는다는 건

석수시니어독서클럽 • 박인희

## 건강한 몸과 강건한 마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데에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은 같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 존재라 함은 우선 형체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이고 그 몸이 홀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몸속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 그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몸이 움직여 나간다. 그래서인지 둘을 일러 말할 때 순서를 바꾸어 심(心), 신(身)이라고 한다. 존재의 기본은 건강함이다. 만일 허약하다면 그 존재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 건강한 몸과 강건한 마음, 곧 강건한 정신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정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전자에는 음식물이 연료로 쓰여야 하고, 후자의 정신세계를 튼튼히 하는 연료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깔아준 기본 사양을 이용하게 되지만 그것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생각, 즉 사유(思惟)의 틀을 넓히고 깊이 있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세상만사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적이다. 저자가 경험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이 독서인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다. 큰 얼음덩어리가 떠 있는데 그 얼음덩어리는 밑으로 감추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물 위로 노출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데서 온 말이다.

우리 지성인이라고 하면 그 사유가 남다른 자인데, 그 생각의 창고가 참으로 커서 가라앉은 얼음덩어리처럼 크다. 나는 위로 올라온 부분이 우리가 사유하는 능력의 부분이고 감추어진 부분은 잠재적인 사유의 지원 세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이 잠재적인 사유의 창고를 채워두는 일이다. 그러니 생각으로 하면 이 부분은 무의식 세계에 해당하고 있지만 언제든 필요할 때면 의식의 세계로 떠오르는 사유의 보고(寶庫)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원효의 일체유심조를 생각하며

원효는 어릴 때 황룡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34세가 되던 해에 원효는 8살 아래인 의상과 함께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고구려 땅을 거쳐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1년 뒤 두 번째 유학을 떠나기 위해 의상과 함께 백제의 옛 땅을 거쳐 바닷길로 중국에 가

려고 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날이 저물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맛있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 원효는 너무 놀랍고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하였고, 그 순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제 달게 마실 때나 오늘 구역질이 날 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생겨나므로 모든 것이 생긴다."라고 읊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것을 깨닫게 되어 득도(得道)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지고 있는 마음을 수준 높게 지니게 되면 내가 수준 높은 삶의 경지를 개척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유의 경지가 달라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황홀한 삶의 길이 될 것인가?

수많은 책들 중에 양서를 선택하여 읽음으로써 높은 경지의 사유의 틀이 내 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명령하여 행동해 나감으로써 좋은 결실을 거두는 삶의 작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염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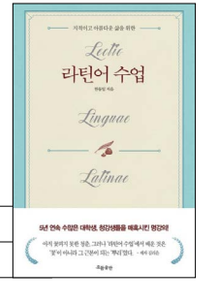


# 2부
# 독서동아리 서평

01

# 행복한 달리기

츄잉북 · 박하은




『라틴어 수업』
한동일
흐름출판

## 만족감 없는 달리기를 이어가는 당신에게

인생을 흔히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앞서기 위해 때로는 추월당하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죠. 요즘은 누구나 숨 가쁘게 바삐 사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생각해보면 달린다는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는 당신은 행복한가요? 만족감 없는 달리기를 그저 이어가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 라틴어 수업을 읽으며

『라틴어 수업』은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가 된 한국인 한동일 신부가 교단에서 가르친 라틴어와 라틴 문화에 대한 강의를 엮은 책입니다. 스물여덟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 독자는 지식과 함께 풍성한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매 강의마다 삶을 관통하는 굵직한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닐 때 우리는 대체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훗날의 영광을 꿈꾸며 현재의 불행을 이 악물고 견뎌낼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으나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 선생님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루를 아등바등 사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달리기의 가치를 고민해보는 것이죠. 다가올 영광이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도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모두에게 있듯 상처를 새로이 해석하는 실마리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그가 과연 나에게 상처를 주었나? (중략)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다 죽는 것은 아닐까?
>
> 『라틴어 수업』에서

'아파하느냐 아파하지 않느냐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미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는 치료해야 하니까요.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희망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책임과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것

선생님이 건네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본 다음 책장을 덮었을 때, 세상이 레이스가 아니라 종합운동장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누군가는 단거리 경주를, 누군가는 마라톤 경주를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축구나 수영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응원석에 앉아 응원

을 하거나 그저 잔디밭에 앉아 쉬기도 하겠지요. 어디에서 무얼 하는 것이 내가 가장 건강하고 만족하는 삶인지 스스로 아는 것, 그 삶을 선택하는 용기, 나아가 내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일, 이 모든 가르침이 『라틴어 수업』을 통해 한동일 신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것입니다. 여전히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달리세요. 다만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달리고 싶은지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고 행복하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을 충실히 하자.

『라틴어 수업』에서



02

#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사회에서

금요일 오후 두 시 · 김창환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 인간관계의 불편함

물리적 허기만큼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번 자격증을 가진 의사나 상담가를 찾을 수는 없다. 끼니때마다 찾아오는 허기만큼이나 잦은 문제라서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다. 일상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해진다. 마찬가지로 삶의 바탕인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마음도 엇나가고 삶도 뒤틀린다.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집밥 같은 치유다. 집밥 같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 적정심리학이다.

## 엄마와 중학교 2학년 아들 이야기

한 엄마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교사의 연락으로는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 청소년 전문 정신과의사를 폭풍 검색했고, 아이를 데리고 갔다. 첫 진료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다시 십여 일 후 검사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원인은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약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과 달리 기분 좋은 행동들이 늘어났고,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도 잘 먹었다. 표정도 밝아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아이가 좋아지니 차일피일 세월만 흘렀다. 그 뒤 엄마는 아이로부터 그때의 느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시간이 좋았다고 했고, 병원 근처의 식당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진료 중에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꼈고 이런 과정은 아이에게 존재감과 안정감을 주어 감정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 무책임한 전문가의 세상

아이에게 정신과의 심리치료, 약물치료보다 엄마라는 더욱 강력한 치료제가 효과적이었고, 부부간의 오랜 냉전이 아이를 사지로 몰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을 먹여야 한다는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진료 시스템이 아이를 더욱 외롭게 만든 것이다. 현대 정신의학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보고, 약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약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우울증으로, 은퇴 후 오는 무기력감과 짜증, 피해의식도 우울증으로,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아이의 우울과 불안도 뇌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에 의한 우울증으로 돌리는 비정하고 무책임한 전문가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먼저 우리는 '당신이 옳다'고 무조건적으로 공감하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상황과 고통, 상처 속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지를 빠져나오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런 '당신이 옳다'고 하는 공감은 적정심리학의 핵심이다. 이런 공감적 언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 주변의 최측근의 위치에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해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위기당사자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이해당사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제3자라면 자신의 손해, 즉 위기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공감적 언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물며 위기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문제들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개입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생각해 안하무인으로 보거나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개입당사자를 오히려 곤궁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약물 의존적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적정심리학 공감 개입은 의료전문가나 가족 또는 최측근의 지인 사이가 아니면 쉽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현대사회의 삭막한 현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감적 개입이 독자인 나에게는 좀 더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기도 한다. 어차피 현대사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대 정신의학의 지나친 약물 의존적 흐름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저서가 아닌가 여겨진다.

03

# 인문학을 공부한다

책도끼 · 박자영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안상헌
북포스

## 인문학의 도움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늘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배우고 익혀야 새로운 내일을 살 수 있다. 배움은 쓸모없이 소모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주고, 일상을 의미로 채워준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삶이 즐거움이고, 내일이 밝음이다.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싶다.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에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분야나 범위가 한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인문학을 접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열정,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나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책을 통해 극복 방법을 제시받았고, 그래서 유연하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



## 답을 주지 않는 인문학

인문학은 자기계발서처럼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인간)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인문학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든,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입문한다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목적은 '새로운 삶을 위한 문장을 얻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단어는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은 생각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자기계발서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는 않지만 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 인문학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해 검증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철학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철학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본질에 가까워지게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역사를 통한 접근법이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문제의 흐름 및 대응책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직접적, 전면적인 접근법이다. 하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관된, 연결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그 답을 얻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

## 더욱 즐겁게 인문학 읽기

작가가 제시한 인문학, 철학, 문학, 역사를 통한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강좌,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보자. 책 읽기가 좀 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참고 도서를 제시한 것은 읽는 사람에게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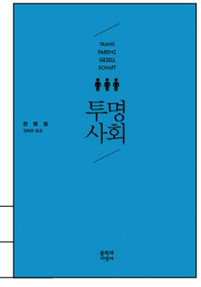
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읽고자 하는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작가의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어 좋았다.



04

# 투명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

책도끼 · 최지은




『투명사회』
한병철
문학과지성사

## 커다란 파문

며칠 전 유명 여자 아이돌 설리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자살의 이유는 악플과 우울증이라고 했다. 대중들은 악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가 싶더니 곧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악플을 달아댔다. 꼭 누군가 한 명을 정해 죽어야만 끝이 나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떼 같아 소름끼쳤다. 이러한 현상들을 살펴보며 한병철의 『투명사회』가 떠올랐다. 설리는 나르시즘적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어린 나이에 그 책임을 모조리 감당하기는 버거웠던 걸까?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투명사회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천천히 무르익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투명성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정보의 자유,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투명성이 신뢰를 낳는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믿음이다."

『투명사회』에서

서문으로 이 책의 포문이 열린다. 하지만 이 책은 투명성이 가진 폭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천천히 무르익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스템의 강제로 원하지 않아도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긍정의 과잉을 추구하는 사회는 곧 획일적 사회가 되고, 모든 것이 전시되는 철저히 투명해진 사회는 외설적이다. 거리가 소멸된 투명사회는 오히려 가까움을 파괴한다. 모든 것을 탈거리화하여 똑같이 거리가 없는 존재, 무의미한 고백의 사회, 노출의 사회, 거리를 모르는 포르노의 사회로 전락시킨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존재로 만들어 환상이라는 자기활동을 차단해 버린다.  투명사회는 불신과 의심의 사회, 신뢰가 줄어들기에 통제에 기대려는 사회다. 도덕적 심급이 허물어지면서 그 자리를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명령이 대신한다.

### 자유는 곧 통제되고, 강제로 전도된다

존경은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 익명성과 존경은 양립할 수 없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촉진되고 있는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존경심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며, 조심성 없고 존중할 줄 모르는 문화의 확산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

『투명사회』에서

대중의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은 천천히 머무름을 즐길 줄 알며 책도 부지런히 읽고 쓰고, 항상 나를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고요한 향기를 풍기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 05
# 반도체 수출규제 사태를 접하며

따뜻한 독서모임 한국친구 일본친구 · 황성연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국중호
한국경제신문

### 분쟁의 씨앗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여러 차례 내세웠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국제법이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다. 국제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문서로 체결된 약속으로서 일종의 조약이다. '조약을 위반하면 국제법위반이다'라는 논리는 한편으로 타당하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 문구를 두고 강제징용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근거로 국내법 또는 국내 법원의 판결을 원

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다. 조약의 위반을 근거로 국내법원의 판결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면서 그 정당화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삼권분립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 외국 국가 자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는 '주권면제이론'으로 강제집행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인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논거 역시 국내법적 근거에 불과하다. 국내법 즉 헌법상 삼권분립을 근거로 조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청구권협정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일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의 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알 수 있다. 결국은 조약 해석의 문제로서 청구권협정상의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사법상 계약의 해석상 "모든, 일체의, 완전한"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계약은 한두 개의 문구로 간단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론을 정해두는 계약이다. 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종적인, 완전한" 이러한 문구는 그 자체로 보면 모든 것을 해결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어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한국 국내법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대법원에 있지만, 조약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대법원에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해석에 일본 정부, 아베 총리가 구속되지는 않는 것이다.



##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은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 사람은 한번 정해진 규칙이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결론이든 나쁜 결론이든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뒤집어 말하는 것 자체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 이 책의 설명이다.

또 한일 양국의 문제는 이렇게 일본 국민의 사고방식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지 단순히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풀기 어렵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한국에는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에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서는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2016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없었다. 현대 일본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것은 분명하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일본도 확고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은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베 총리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입장에서 민주주

의, 삼권분립,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주장해도,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일 것이다.

거꾸로 만약 일본이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면 어떨까? 조약이 체결되고 국가 간에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약의 내용이 인권과 정의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또한 조약 체결 당시의 관념과 해석 당시인 현재의 관념이 많이 다르다면, 그 조약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 존중과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치하는 것이며 또한 진정으로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법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하게 해석을 하고 또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지금 시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핑계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념을 반영하여 한국 대법원은 정의와 인권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국제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 일본의 생각

만약 일본 국민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경위를 정확히 이해한 전제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국민투표를 실시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아쉽게도 보통 일본 사람들은 정부가 정책을 설정하면 잘 따라가기 때문에("관제민추官製民追의 사회", 책 56쪽) 이러한 과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일청구권협정의 문구에 편협하게 매몰되지 않고,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전통(기존 약속)존중과 집단(국가)이익 존중의 의식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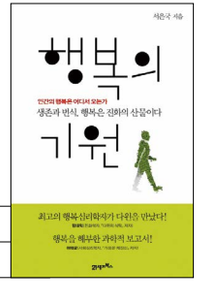
## 차이와 바람

'흐름'의 한국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정의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축적'의 일본은 이에 대해 관제민추에 기초하여 형식적인 국제법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일본 사회가 관제민추가 아니라 비판과 토론이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06

# 우리,

독서시사토론동아리(원페이지북) · 조진호




『행복의 기원』
서은국
21세기북스

## 행복 찾기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데도 친구들이 화났냐고 종종 물어보고, 오늘 재밌는 일 없었냐는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왔다. 아마 서점에서 스쳐 지나간 자기계발서의 문구를 의식한 결과였으리라. 꽤나 오랜 시간 공들였음에도 이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

『법륜 스님의 행복』, 『오늘 더 행복하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의 비밀코드』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행복이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나오는 도서명들이다. 보기만 해도 따뜻해진다. 이 책은 영 딴판이다. 시작부터 행복에 대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여겨왔던 행복을 끌어내려 눈앞에서 샅샅이 해부하였다. 피도 눈물도 없다.



진화생물학의 연구와 통계자료만이 있을 뿐이다. 메스 촉감이 서늘하다.

## 행복이 바뀌다

중간까지 읽을 때만 해도 필자의 주장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순 없나? 행복은 생각과 크게 상관이 없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책장을 덮어버리려다 차분히 무슨 말을 하나 끝까지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참았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필자의 논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진화생물학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부터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생물학적 관점에서, 철학적 논의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생존 그리고 번식 그 자체가 제일의 목적이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행동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그러한 행동을 할 유인이 없다. 그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이용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장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성행위에 쾌감이 수반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진화생물학의 논리에 깊이 공감해오던 사람으로서 위의 깔끔한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정돈된 통계자료를 보면서 필자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안경을 바꿔 쓰고 다시 갈갈이 찢긴 행복을 들여다보았다. 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캄의 칼날'로 부차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난 뒤 행복 그 자체의 본질과 속성을 마주한 것이다. 그거, 생각보다 단순하다.

## 타고난 행복

읽으면서 조금 슬펐던 부분도 있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것이다. 유전적 성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나머지 절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행복감은 유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내가 남들에게 덜 행

복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도, 실제로 스스로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억지로 행복해지자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자도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손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행복감에 대한 서술을 간단히 인용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왠지 한국인의 행복 날개는 접혀 있는 듯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는 부러워할 만한 경제 수준의 나라에,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쾌적한 나라에 산다.

『행복의 기원』에서

물론 진지하게 접근하자면 상당히 철없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점은 잠시 차치하고, 다짐 한마디 해본다. 우리, 자주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07

# 연암을 접속하라

봄날의 곰 · 최현정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북드라망

## 고미숙 작가와 만나다

얼마 전 가을장마와 태풍이 훑고 지나간 자리로 일상이 돌아오고 있다. 아직 피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늘은 한껏 푸르러지고 바람은 더없이 상쾌해졌다. 가을의 궤도에 올라탄 느낌이다.

흔히들 가을이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한다. 특히 9월은 '독서의 달'이라 부르며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독서 축제를 벌인다. 내가 사는 과천에서도 도서관마다 다양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다. 오늘은 내가 속한 독서동아리에서 주관하는 고미숙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다. 작가의 책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 우리는 공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작가는 독서 모임의 초청이라 친구의 초대를 받은 양 참 반가웠다는 얘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라는 개별 존재가 세계와 연결되는 매개로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런 책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 도서관은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들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얘기로 이어졌다. 작가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검색 엔진을 통해 무수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작가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들이 개별 소비되기보다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함께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느낀다는 작가의 말에 나도 그 무리에 낀 것 같은 은근한 동질감을 느꼈다.

## 연암 박지원의 삶

연암 박지원은 양반 신분임에도 '입신양명'이라는 주류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으며, 그래서 자유로웠던 인물이다. 그의 '탈주'는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등 당대 지식인들과의 소통 네트워크인 '백탑청연'이 그것이다. 작가는 본인의 책에서 '중세 지성사의 빛나는 별자리'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우정과 연대를 소개하고 있다.

이같이 지배적인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연암은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과의 접속을 위해 마침내 국경을 넘어 열하로 향하게 된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2천여 리, 연경에서 다시 열하까지 700여 리를 가는 동안 일상과는 구별되는 삶의 새로운 경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 반가운 접속의 장에서 침묵하고 있던 언어와 사물들을 발굴하고, 예기치 않은 담론들을 특유의 사유로 풀어낸 것이 바로 『열하일기』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연암의 '낯설고 새로운 여행기'는 그렇게 탄생되었다.



## 시간을 건너 온 유쾌한 웃음

작가는 『열하일기』의 미학적인 특징으로 웃음과 역설을 얘기한다. 연암이 지닌 유연한 사고와 유머는 기존의 사유를 뒤흔드는 전복적 상상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작가 또한 강연 중강중간 '연암식' 유머를 구사하곤 했다. "꽃길만 걸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을 진짜 싫어한다는 작가는, '꽃길 걷다가 알레르기로 고생한다, 나는 사랑을 하는 존재인데 왜 자꾸 사랑을 받으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전복적인 말들로 사람들에게서 유쾌한 웃음을 끌어냈다.

특히 "낮에 가족들과 있는 거 아니다"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20세기 자본의 통치 전략인 핵가족화는 많은 사람들을 노동과 가족에 매몰시켰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우정'이라는 윤리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 가족 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 떠 있을 때는 가족과 만나지 말자"라는 한마디 유머 속에 녹여내고 있었다.

## 나의 언어를 만들자

강연회에 모인 8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시공간에 모여 같은 강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곳에 있어도 동일한 것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시공간을 경험한다. 연암이 열하까지의 여정을 통해 『열하일기』라는 담론을 생성했다면, 우리는 그와는 또 다른 의미를 변주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가 강조한 마지막 말은 자신의 언어를 창조하라는 것이다. 집을 벗어난 각자의 시공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사유들을 글로 남기라는 것이다. 작가는 말할 수 없이 허무한 인간의 유한성은 책에 담긴 지혜를 통

해 무한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를 만드는 건 문장이며, 그렇기에 오늘을 담은 일상의 글쓰기가 곧 역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모여 일생이 펼쳐지고 역사가 된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작가는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을 당장 하라고 주문한다. '지금, 여기'와 온몸으로 교감하되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한다. 어디서든 집을 짓고 어디서든 길을 떠나는 삶, 그런 유목적 텍스트가 바로 『열하일기』이다. 연암을 온몸으로 체득한 작가는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길이 되고 집이 되는 '노마드'를 권한다. 친숙함과 낯섦의 경계, 삶과 지식의 경계, 삶과 글의 경계에 서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멋지다. 18세기 연암이 가졌던 명랑한 생명력이 21세기의 청명한 어느 가을날 하루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었다. 작가의 유쾌한 지혜 나눔에 감사를 전한다.



## 08

#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금요일 오후 두 시 · 구춘영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일

지난주 화요일 다른 지역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다. 서로의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나는 요즘, 직장에 출근하는 여덟 시간 동안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라는 친구의 말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라며 맞장구를 치며 허탈하게 웃었다. 과중한 업무든, 동료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의지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의 '적응'은 나를 버리고 모든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수용보다 회피를, 대화보다 침묵을 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개별화된 주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주말이 되어 책이 배달되었다. 남편이 주문한 네 권의 책 중 관심이 가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오늘 소개할 『당신은 옳다』였다. 책이 출간된 후 tvN 방송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 작가가 책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개인의 심리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강연이 넘쳐나는 요즘 '정신과의사의 그저 그런 이야기겠지, 잠시 보다 말겠지' 했다가 끝까지 보며 눈물까지 흘렸다. 말솜씨가 좋아서라기보다 작가가 설명하는 개별화된 주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포장을 뜯고 얼른 책장을 넘겼다. 작가 정혜신은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고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작가의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치유의 원리와 구조를 바탕으로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갖는 심리학을 만들어 냈다. 나와 내 옆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소박한 심리학을 적정심리학이라 명명하였다. 거의 모든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뇌에서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약물치료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공감'을 제시한다. 적정심리학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은 어떤 힘보다 강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 장에서 나는 지난주 친구를 만난 상황이 연상되는 이야기를 만났다.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는 출근과 동시에 자기 이름이 아닌 영문 이름 '마이클'로 자신을 설정하고 마이클로 일과를 시작한다. 업무 중 수시로 받는 무시와 모욕을 본래의 '나'가 아닌 '마이클'이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공과 사를 분리하는 프로 의식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었지만 어느 날 출근길에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 갔다.

『당신이 옳다』에서



어쩌면 친구와 내가 알면서도 외면했던 일의 결론을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마주하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를 보호하고 외부와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왜 소중한 나를 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공감을 제시하였다. 경계를 세우고, 진정한 치유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확인하고 온몸과 마음을 실어 "당신은 옳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옳다"라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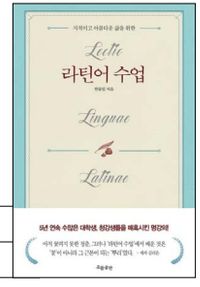
### 강연보다 더 좋았던 책

작가의 글은 강연보다 좋았다. 섬세하고 적절한 비유가 감각적이었다. 주말 동안 작가가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에 푹 빠져서 굳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다시 작가의 프롤로그를 읽었다.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묵직한 울림이 느껴졌다. 아마도 나는 이 책을 한 번 아니 두 번은 더 읽게 될 것 같다. 일상의 소소한 공간에서 내가 희미해지는 경험이 있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09

# 진심이 담기면 굿모닝도 기쁘다

츄잉북 · 오은총




『라틴어 수업』
한동일
흐름출판

## 완벽한 타인

TV 채널을 돌리다가 작년 이맘때 개봉했던 영화 〈완벽한 타인〉이 방송 중인 것을 보았다. 뒤늦게 틀어둔 영화는 이미 클라이맥스에 다다라 있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변호사 '태수'와 서정적이고 순종적인 아내 '수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현을 비난하는 태수에게 수현이 쏟아내는 대사 중 가슴에 꽂히는 구절이 있었다.

근데 문학부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 질문… 애들한테나 하는 거잖아.

<완벽한 타인>에서

꿈과 인생, 사랑의 이야기들은 왜 '애들한테나 하는' 질문이 되었을까? 일이 언제까지 마무리될까요?, 주말에는 뭐 하세요?, 뭐 먹을까요? 내가 가장 최근에 받은 질문들은 대충 이 정도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말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대답하게 되는 정도의 질문들이다. 마음에 머무르지도 않고 떠나가는 말들을 질문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나는 애매하다.

## 물음표

물음표는 힘든 문장 부호이다. 굽어 있는 등에는 이유가 있다. 물음표로 마무리된 문장은 내가 답하기 전까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가슴에 머무른 물음표는 질문이 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기다린다. 그것은 불편하고 가슴 뛰는 경험이다. 그러나 곡선을 견뎌내고 마침표 찍은 적 없는 이들과 듣는 귀 없는 이들의 물음표는 머무르지 않으며 위화감만을 느끼게 한다. 질문 아닌 질문에 이어 스스로 감당해본 적 없는 쭉정이 같은 질문들이 넘쳐난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며 자체로 공허하다. 『라틴어 수업』의 첫 인상은 그래서 특별했다. 책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라틴어 문장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각 장의 구성은 대부분 제목 문장에 대한 라틴어 이야기, 시대 문화적 배경, 저자의 경험,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덕 있는 어른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은 나에게는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 질문을 위한 준비 같았다. 장마다 정성껏 준비된 진심 어린 28가지 질문들은 내가 통과해야 할 터널이었고, 때로는 통과했다 느꼈으나 다시 어두워지는 터널이었다.

## 하나의 수업을 듣다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은 동아시아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는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했고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책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당시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책의 내용을 저자의 스

펙이나 제목으로 미루어 짐작한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지적 성취보다는 저자의 인간됨을 만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만으로 하나의 수업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라틴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이 책은 라틴어에 기초한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의 문학적인 감상과 통찰력이 부담스럽지 않게 곁들여진 해석들은 라틴어를 배우는 일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 나의 공부

책 중간에 나오는 내용처럼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고 각각이 모두 의미 있다. 좋아하는 팝송을 이해하고 따라 부르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다. 비슷하게, '라틴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접한 것들이 저자에게 폭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면 나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펼쳐들어야 하겠지만, 입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업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책의 맨 뒤편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의 편지가 실려 있었다. 물론 저자가 강의할 당시 열정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이겠지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수인 저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고민 많은 학생에게 책을 직접 선물하기도 하는 등의 미담들이었다. 저자의 차분하고 포근한 말투에 속을까봐 마지막까지도 그의 가식을 의심하며 차가운 머리로 글에 접근하던 나의 경계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스스로 짊어졌던 질문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귀를 활짝 열고 물음을 던지는 저자의 진심 어린 태도가 참 좋다. 나는 진심에 약하다. 진심이 담기면 굿모닝도 기쁘다.



## 10
# 이광래 교수님께

Art인문학여행자들 · 박정우

『미술 철학사1』
이광래
미메시스

저는 교수님의 저서, 『미술 철학사』를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얼마 전 집 근처 도서관에서 미술에 관한 책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교수님의 서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책의 제목과 두께에 압도되어 손이 가질 않았으나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먼저 묵직한 책을 한번 만져보고, 목차도 보고 안의 내용도 힐끗 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래 책에 빠져 들었습니다. 현재는 『미술 철학사2 : 재현과 추상』 520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 작가로서 서양화를 주로 그리고 있는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화가라고 할 뿐, 여태껏 개인전 한번 변변히 열어보지도 못했고 그림 한번 제대로 팔아본 적도 없는 완전 무명작가입니다. 어쩌다보니 나이는 들어 올해 어언 70살에 들어섰지만요. 그래도 미술과 예술이라는 정서 속에서 항상 열심히 살고 있고 꾸준히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나는 무엇을 보았고 느낄 것인가, 무엇을 그릴 것

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림 세계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방황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작가라면 마땅히 격어야 할 충실한 사고도 고뇌도 없고 그림에 대한 발전이나 변화의 조짐도 없이 그저 붓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창조적 진화는커녕 날이 갈수록 답보 내지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와중 교수님의 책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헤매던 저의 마음이 마치 환한 불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술 서적이라고 해보아야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정도 읽은 수준이며, 간혹 거장들의 전기나 화집을 보았을 정도의 제 수준에는 교수님 책이 다소 난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몰랐던 단어와 지식은 물론 작가와 그림에 대한 교수님의 철학적인 고찰이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분석과 정의, 방대한 자료와 숨은 이야기 등에 놀랍기도 하고 저절로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밑으로 추락하는 악몽에서 헤맬 때면 교수님 책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책을 읽는 기쁨은 물론이고 이제 이 책을 완독할 즈음이면 저에게도 무엇인가 잡힐 것 같은 예감입니다. 또한 이제껏 제가 그려온 그림은 다 무엇이며,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에 차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나마 교수님의 철학적인 학식과 미술에 대한 이해와 고견, 그리고 방대한 집필을 해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출간된 전문 서적이나 그 어느 외국의 전문 서적보다도 예리하고 심오한 그리고 풍부한 내용의 집필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미술 철학사』 전권을 완독하고, 계속해서 새로 출간된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까지 읽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5일

독자 박정우 드림

11

# 지식보다 아름다운 무지

츄잉북 · 류성두

『이그노런스』
스튜어트 파이어스타인
뮤진트리

##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약을 쓰지 말고 아이를 키우자고 주장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휩쓸었다. 아직도 각종 매체에선 남성은 이성적이며 여성은 감성적이라고 전제하고 연애 조언을 한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외치는 소리는 널리 퍼지지 않는다.

과학자들의 외침이 널리 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외침에 대한 유사 과학자들의 반격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학자들에게 말한다. '어떻게 너희들의 주장만 참이고 우리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들의 주장도 우리 나름의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들의 실험결과가 너희들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과학자 엘리트 집단의 횡포야!'

유사 과학자들의 반격은 너무나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숭고해 보이기까지 하다. 기존의 권위와 맞서 싸워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그렇게 추구하던 모습 아니었던가? 여기서 헷갈림이 발생한다. 만약 어떤 주장이 유사 과학인지 아닌지가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달렸다면, 그 정당성을 누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 과학에 대한 오해

『이그노런스』의 저자는 이러한 혼란은 과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많은 이들이 과학을 '자연의 신비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활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유라는 것이다.

수수께끼의 경우에는 문제의 출제자가 존재하며, 따라서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해답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문제를 낸 주체는 존재하는지에 대한 보장 자체가 전혀 없다. 저자가 자주 인용하는 다음 격언은 이러한 과학의 본질과 과학자들의 어려움을 잘 표현해 준다.

> 캄캄한 방 안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그곳에 있지도 않은 고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
> 『이그노런스』에서

사태가 이러면, 새로운 지식의 추가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이게 정답이죠!"라고 외쳐봤자 "응! 그게 정답이야!"라고 대답해줄 출제자가 없기 때문에(혹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이더라도 그것들이 자연의 진상을 묘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 과학자들의 의미 있는 업적

과학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진짜 과학자들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의 추가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 질 높은 무지다. 예컨대 현대의 물리학은 뉴턴 이래로 수많은 발견을 거듭해왔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우주에 대해 모른다. 예를 들어,

-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 중력파로 끈 이론과 다차원 우주를 검증할 수 있을까?
- 일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
- 양자적 요동과 마이크로배경복사의 편광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불과 백여 년 전만 해도 최고의 석학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존재보다는, 이 괴상망측하고 정교한 질문들의 목록이야말로 과학자들이 일궈낸 의미 있는 업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진리에 가닿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진리에 가닿을 수 있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위급한 수술을 앞둔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에게 평생의 동반자 앨리스 B. 토클라스Alice B. Toklas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답이 뭐래?" 스타인은 이 말에 "질문이 뭔데?" 하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 버전으로 전해지는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똑같다. 질문이 대답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질문은 대답보다 더 거대하다. 좋은 질문 하나가 여러 층위의 대답들을 끌어 낼 수 있고, 수십 년간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탐구 분야를 만들고, 철옹성 같은 사고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대답은 과정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그노런스』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과학과 유사 과학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새롭고 의미 있는 질문을 생산하는지의 여부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보자. 물이 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체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한단 말인가? 약을 쓰지 말고 아이를 키우자는 주장을 보자.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가?

## 이그노런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부는 '질 높은 무지야말로 과학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저자의 주장을 짧은 에세이의 형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저자의 말처럼 '아하 그렇군' 하는 명료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몇 차례 반복해서 듣거나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들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과학의 본질이 정반대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후반부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무지를 다루는지에 대한 사례의 모음이다. 사례들은 과학 실험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엄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파격적으로 깨버린다.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묻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엄격히" 실험을 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 독자는 곱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때론 무모해 보이고, 때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방법으로 과학을 하는데, 그야말로 "캄캄한 방에서 고양이를 찾기 위해 발버둥친다"는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독자들은 금세 공감할 수밖에 없다.

### 괴상망측한 신비의 매력

그렇다. 우리는 몇 백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모르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가 책에서 탁월하게 소개하듯, 그것은 진짜 신나는 일이다. 밤하늘은 그것이 신비를 품고 있을 때 훨씬 아름답게 빛난다. 그리고 막연한 신비보다는 구체적이고 괴상망측한 신비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그노런스』와 함께 그 신비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길 권한다.



## 12

# 나만의 휘게를 찾아서

마중물독서회 · 김보라

『휘게 스타일』
마리 토텔 소더버그
위즈덤스타일

### 자기 집을 안락하게 취향 대로 꾸미기

제주 안덕계곡을 향하는 길에는 작은 동굴이 있다. 선사시대 주거지로 쓰였다는 그 동굴을 볼 때면 저 얕은 동굴을 집으로 사용했던 원시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작은 동굴이지만 비바람도 피했을 거고 아늑한 잠자리로 사용했을 거다. 나에게 집은 동굴의 이미지로 자리한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 어느덧 집은 투자수단이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집의 원관념은 동굴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순진하게 아직도 믿고 싶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안락하게 그리고 취향껏 꾸미는 데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 웰빙과 힐링?

한때 웰빙이나 힐링같은 말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웰빙과 힐링이 주는 묵직한 울림을 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 일본에서 건너온 '미니멀 라이프'도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직도 유행 중이다.)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접하고 미니멀 라이프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만 봐도 말이다. 나도 어수선한 집을 보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겠다고 창고 정리를 하다가 나가떨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물건들에 치여 살다가 깔끔해진 선반들을 보며 잠시나마 미니멀 라이프에 성공했다고 느끼기도 했다.

## 아늑한 동굴, 휘게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는 예쁜 것들을 애정하고,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 살고 싶다는 나의 욕망과 부합하지 않을 때가 다수였고 매번 소유욕과 전쟁을 치르는 일에 염증을 느끼던 나는, 미니멀 라이프 부적합자라며 스스로 백기를 들고 말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지 않았다. 평소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책에 관심이 많은 나는 도서관 신간코너 섹션에서 '휘게'라는 힙한 단어와 마주쳤고 그것은 나의 허세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때 만난 책이 『휘게 스타일』이다.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해져 버린 단어지만, 나에게는 휘게가 새로운 대안 같았다. 미니멀 라이프에 실패해 의기소침해져 있던 나에게 다시금 휘게 열병을 앓게 한 것은 이 책에 나오는 이미지들 때문이었다. 벽난로가 있는 방에서 아이들이 작은 바구니를 욕조 삼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엄마와 아이가 그림책을 읽으며 바닥에 누워 미소 짓는 사진, 귀여운 머그컵에 커피를 마시는 사진들은 집을 아늑한 동굴이라 여겼던 나의 마음속 밑바닥을 간지럽혔다.

덴마크의 작가이자 시인인 토베 디틀레우센은 "휘게는 나 자신, 배우자, 세금 당국, 몸속 소화기관과 사이가 좋을 때 경험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했다. 이 단어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에서 유래했고 만족감, 쉴 수 있는 공간, 휴식, 안전을 추구하는 것,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주거와 관련된 의미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 전반적인 것을 담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덴마크인들은 휘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휘게를 즐긴다. 또 이제는 덴마크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편화된 개념이다. 북유럽에서 저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이 휘게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 나의 스타일에 대한 질문

북유럽 스타일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구나 소품 그릇 같은 것들로 한 시절을 휩쓸고 나갔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까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 라이프 스타일인 휘게에 빠지면서 이 북유럽의 가치관이 과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나에게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미니멀 라이프에 열광했던 것도 일본의 정갈한 인테리어 사진들에 마음을 빼앗겨 시작했던 것처럼, 휘게도 내 취향을 저격했던 몇 가지의 이미지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들.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동경하는 마음들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 평범을 누리기 위해선 끝없는 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쳐버린 우리가(아니 내가) 휘게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들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행복했다. 그저 행복했으니 그만이라며 생각을 멈추거나 미뤄두었다면 나는 휘게 이후에 새로 등장하는 (내 마음을 잡아끄는) 라이프 스타일에 또 빠져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 계속된 질문들과 생각들이 있었다.

### 나만의 휘게를 찾기 위한 노력

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를 그리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환경과 조건은 무엇일까? 결국,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말도 안 되게 크고 철학적이어서 쉽게 답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남았다. 그리고 그건 평생 해소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집이 동굴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자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며 내가 그은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곳이라 생각한다. 밖으로 잘 나가기 위해선 잘 닦아놓은 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았다.

미니멀 라이프도 라곰도 휘게도 단순히 책 몇 권 읽으며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삶에서 적절한 균형과 타협점을 찾는 일, 그리고 남의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 나만의 휘게를 찾는 일이 큰 질문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안에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타국의 환타지에 젖어 있는 것보다 충만함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 예쁜 이미지들이 그득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SNS를 둘러보는 것보다 지루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책 몇 줄을 겨우 읽어내는 것. 낡은 전셋집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포근한 동굴이 되는 집을 사랑하는 일들이 내 휘게의 시작임을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 깨닫는다. 하지만 실패로부터 우뚝 서 나만의 휘게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큰 의미이다.

* 이 글은 독서동아리 '마중물독서회'에서 펴낸 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 13
# 우리가 만드는 이상한 정상가족

책꿈 · 정동재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우리 가족은 정상일까?"

"여러분의 가족은 정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던져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마치 바늘이 와르르 쏟아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마음처럼 위태롭고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요즘은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폭력이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교폭력'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안내한다. 교사들끼리도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 처리인 양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의 고민과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는 태도가 비춰진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날카로운 비판일까?

## 이상한 책을 만나다

얼마 전에 참 이상한 책 제목을 접했다. 바로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다. '이상한 가족이면 이상한 가족이지,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니…….'

"여보~ 지금 내가 사온 책 제목이 뭔지 알아? 이 책 제목이 이상한 정상 가족이래?"

"뭔 책 제목이 그래? 무슨 사연이 있나 보지."

"내가 좀 읽어보다가 얘기해 줄게요."

얼마 읽지 않았는데, 세상 이야기를 묵직하고 날카롭게 이어나가는 작가의 글이 가슴을 후비고 있었다. 한참을 지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책을 읽어보고 얘기해 준다는 사람이 아무 이야기 없이 책만 또 읽고 있어요, 네? 아이고, 또 책 속에 빠졌군요, 빠졌어."

"여보, 알았구요.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맞춰보거나 대답해봐요. 여보는 자신이 애들을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자식' 하잖아. 언제까지 내 자식이야?"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얘네들이 뭐 내 자식이겠어요. 벌써 사춘기에, 엄마 아빠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에, 뭘 하라고 하면 대답도 늦고, 어디 내 마음 같아야 내 자식이지."

"난 우리 아이들이 다 기다리는 짝이 있고, 사회에 나가 할 일들이 있다고 보고, 내가 아니고 각자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는 마음 때문에 자꾸만 내가 책임지려고 내 아이들의 행동에 잔소리를 얹어요. 2년 전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베개로 등을 후려치듯 혼을 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여기 작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꾸 미안한 마음에 그 시절로 돌아가 그냥 안아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구."



"또 이번엔 그 작가가 당신 마음을 후려치고 있구나!"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이라는 소제목에서 보이듯이 각자의 각 가정에서의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훈육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다 널 위한 거라고 가정의 은밀하고 친밀한 폭력, 체벌'이라는 생각까지 다가가니까, 우리의 과거 가정교육이 어떠한 모습을 해왔었는지, 아빠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때로는 형 누나라는 이유로, 자녀와 동생에게 체벌로 질서를 잡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의 가정은 정말 정상이었을까? 아냐, 그게 정상이잖아, 남들도 다 그랬잖아! 하고 외치는 게 당연한 걸까?"

##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의심들

아내와 야밤에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뒤로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간 지 한 시간이 족히 흘렀다. '사랑의 매'라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용인되었던 그 작대기는 뒷마당에서, 들판에서, 뒷산에서 구해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맞아야 된다고 했고, 맞아야 정신 차리는 줄 알고 맞고 살아왔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자책하면서 살아온 것이 정말 정상이었던 것일까? 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맞을 짓을 했다'라는 말을 부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도 그렇게 살아온 것일까? 다수의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의 학대도 그렇게 느끼도록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사회악이라는 생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판독하기 힘든 암호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나는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글 이해 능력을 테스트하고, 도움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대학생 단체를 만났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그 단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 무조건 수긍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

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그들의 가정이라고 한글 이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정말 조심해야 할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글 이해 능력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보다 한국 가정의 학생이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지 잘 모르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자료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앞으로는 함부로 단정짓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대학생들에게 말해주었다.

##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근래 우리 한류열풍으로 드라마, 음악, 영화, 유아 애니메이션, 패션 업계에서 한국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에 무척이나 마음이 뿌듯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연예인들의 사회 일탈 행동과 외교관, 사업가, 교육자들의 성폭력을 통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사회문제까지 유발하는 사건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을 사회 곳곳에서 벌이고 있었는지 여실히 알게 되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 이면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스포츠계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1등만 고집하던 사회의 주변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존재와 인권은 어느 누구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더욱 도덕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협력과 상생을 중시해야 할 사회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1등만 고집하던 사람 주변에는 박수를 쳐주고 찬사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나의 1등을 그 누구도 반가워해 주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정상사회인가 되묻고 싶어졌다. 오연호 작가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서 덴마크의 행복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전반에는 어릴 때부터 소중히 여겨오는 기본 교육 바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루저도 없다'라는 생각이다. 덴마크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성적과 등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떤 사회였던가? 그 엉클어진 맥을 부드럽게 풀어줄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사회도 전통이라고, 달라지자고 하면 전통에 어긋난다고 빗대어 삿대질을 할 것인가?

## 다시 처음으로 우리에게 묻고 싶어졌다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온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얼룩진 모습을 직접 느꼈던 작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회 깊숙이 파고든 찌든 얼룩의 단면을 속속들이 파헤쳐본 심정은 아마도 심장이 찢어지고 가슴을 몇 번이고 내리쳤을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한 우리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말을 보면서,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적어 놓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전문의 내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헌법을 찾아 읽고, 널리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헌법부터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라고 외친 법학자가 있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문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처음으로, 우리에게 묻고 싶어졌다.

"우리 가족은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정상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실에서, 어떤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책에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처럼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들의 인권이 무관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다음 세대로 연결지어지는 핏줄로 얽힌 자녀와 부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본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권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이 묵직했다. 붉은 다홍색 겉표지의 색이 마치 열정을 가져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뜻한다면, 3개의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구멍에 보여지는 흑백 표지 그림은 우리들이 속속들이 챙기고 보살펴야 할 우리 사회의 인권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며 작가와 표지 디자이너의 깊은 생각에 또 한 번 감탄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표지 그림의 디자인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보이게 만들었구나, 이번에 책을 참으로 잘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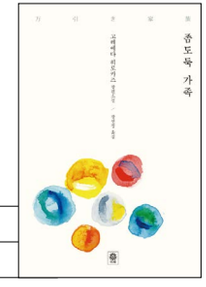
잠을 일찍 청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세 자녀들에게 아빠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 긴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삶이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의 반쪽을 이 메시지가 보여준 인권에 대한 사회적, 법적, 교육적 행동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율과 인권이 허락되지 못했던 가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함을 깨닫는 길에 함께 가자고 외쳐본다.



## 14

# 사실로 다 알 수 없는 이야기의 조각들

츄잉북 · 이선우



『좀도둑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비채

### 좀도둑 가족 뉴스

"가족 행세를 하며 80대 여성 노인의 집에 살던 일당 덜미."

"40대 중년 남성 A씨와 여성 B씨, 10대 여학생, 8살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 모두 아무 연관 없는 사이로 드러나… 모두 가명 사용."

"8살·5살 아이는 A씨가 유괴해 함께 사는 것으로 밝혀져."

"B씨 과거 살펴보니… 남편 살해 후 집행유예. 가담했던 A씨와 도주."

"10대 여학생은 가출 후 성매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A씨는 아이들에게 소매치기 가르쳐."

"80대 노인은 한 달 전 사망, 그러나 연금은 계속 타 가던 '가짜 가족'."

"8살 남자아이 소매치기 도중 사고로 병원에서 신원 밝혀져."

### 사실이 곧 이야기는 아니다

이야기라는 건 오묘하다. 사실이 곧 이야기는 아니다. 『좀도둑 가족』의

이야기를 냉정하게 사실만 나열해 뉴스의 형식으로 전달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 문장들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저지른,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던 노부요의 모성, 본래의 집에서 상처받고 자랐던 아키의 사연, 남몰래 비상금을 챙겨 유산으로 남기던 하쓰에의 마음 같은 것은 이 안에 없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을 다뤄야 하는 뉴스에서 굳이 설명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각자의 사연과 그 속에 담긴 애매하고 복잡한 '마음의 것'들은 뉴스, 즉 '사실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기름기와 더불어 물기까지 쏙 빠져 담백하다 못해 퍽퍽하고 바스락해진 상태의 사실을 받아 본다.

그러나 소외된 감정적 영역들이 실제로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누구나가 그렇듯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성급하고, 또 조금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일들. 그런 각각의 마음들을 무시한 채 이해하려 하니 이야기는 뒤틀리고 비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듬성듬성 이가 빠진 퍼즐을 들이밀며 다 맞춘 것이라 우겨대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진 우리는 무턱대고 A씨와 B씨만 개자식이라며 욕하게 되는 것이다. 굳이 이런 거창한 사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너무나 자주 개자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 이해할 수 있는 조각들

『좀도둑 가족』은 비상식적인 사실들에 담긴 '이해할 수 있는 조각'들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준다. 전혀 상관없는 6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럴 법한 사연들, 함께 살면서 느낄 법한 당연한 애착들, 비록 가끔은 게을렀고 서툴렀지만 그럭저럭 자신의 상황에서 살아내려 했던 미지근한 삶의 모습



같은 것들.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까 생각했던 개자식은 번듯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사람 꼴은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 좋은 환경에서조차 번듯한 사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 나 역시도 저들의 상황에서는 개자식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은 덤.

## 소설은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

예능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에서 소설가 김영하는, "소설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서 나와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인물에게 감정이입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이 사람에게 있어야만 하고, 또 사람이 여전히 소설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는 사실의 나열만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다. 즉 '이야기'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소설은, 가끔은 세상에는 사실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각들이 있다고, 그 퍼즐 조각들을 받아들이고 맞추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또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나의 세상을 이해해주기를, 그래서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주기를 기대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15

#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희망의 카메라

젤리에서 젤리로 · 최봄이

『꿈을 지키는 카메라』
김중미
창비

## 주목받지 못한 이들이 주인공

김중미 작가의 작품은 항상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번 작품에서는 재개발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 아람이가 주인공이다. 아람이의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명품반, 상·중·하반으로 구분하여 보충학습을 진행한다. 명품반에는 실력 좋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수업을 담당하고, 수업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을 하반에는 초임 교사를 배치한다. 심지어 하반에게는 교실이 부족해 창고를 개조한 교실 아닌 교실을 배치한다. 책 몇 장을 넘기자마자 수준별 보충수업을 듣도록 설득하는 담임 선생님에게 "솔직히 하반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학교에서도 하반에는 신경 안 쓰잖아요."라며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만드는 핵직구 발언을 던진다.



## 현재의 학교, 나의 생활

나 역시 학창시절 우열반을 경험했고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정글 같은 학교에서 수업 중에 날뛰는 학생들을 만날 때면 다른 학생들 피해 안 되게 그들만 따로 빼놓고 수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며 들어온 교직 생활이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지는 내 모습이 떠올라 고민해보게 만들었다. 하반에 속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반을 맡은 초임 교사는 박탈감과 낙인찍힘을 당했다는 느낌에 모두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람이의 학교 밖 현실도

아람이의 현실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그리 편하지는 않다. 학교에선 성적순으로 구분짓고 차별했다면 학교 밖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아버지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공부를 곧잘 하는 언니의 꿈은 교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CEO나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재개발이라는 이슈 속에 한 사람을 넘어 한 가정의 모습이 변했고, 오랜 시간 함께 추억을 쌓고 공유했던 이웃은 갈라지게 되었다.

이는 실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년 전 발생한 용산 사태에서는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재개발로 발생되는 갈등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경제적 논리 앞에서 누군가는 오랜 시간 살아왔던 소중한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다. 나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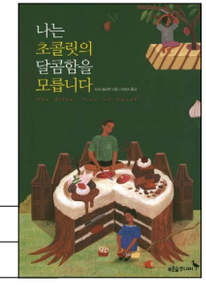
### 꿈을 지키는 카메라가 보여주는 재개발 사회문제

그러한 점에서 『꿈을 지키는 카메라』는 재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몰랐던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읽으며 관심을 갖게 하는 가치 있는 작품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다른 이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시야를 확장시켜 나와 주변을 넘어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모인 작은 관심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아람이가 좋았던 점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다는 점이다. 나 역시도 아람이처럼 현실에 순응하기보단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작은 움직임을 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해본다.



## 16
# 달콤함의 담보

젤리에서 젤리로 · 임지연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타라 설리번
푸른숲주니어

### 초콜릿의 이면

우리가 급하게 당을 충전한다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흔히 먹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초콜릿이다.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근처 슈퍼 어느 곳을 가더라도 흔히 살 수 있다. 나 역시도 많은 양의 초콜릿을 구입하고 섭취하고 있지만 어떻게 초콜릿이 만들어졌으며 '과연 어디에서 초콜릿의 원료가 왔을까?'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의 원료는 보통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농장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장이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일꾼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강제 노동 수준으로 인신매매나 헐값에 팔려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폭력과 함께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 초콜릿의 먹이사슬

이 책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청소년 노동 착취와 학대의 실상뿐만 아니라 초콜릿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과 중간 상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용하여 값싼 인건비로 이익을 취하려는 카카오 농장주를 통해 부조리한 거대 먹이사슬에 대해 고발하는 작품이다.

집안이 가난으로 어려워지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큰 꿈을 품고 동생과 함께 부자 나라인 코트디부아르로 가게 된 주인공 야마두는 브로커에게 속아 카카오 농장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여기서 일하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음식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갖은 폭력과 야생동물이 우글거리는 숲에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빚을 갚으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사장의 말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얼마나 빚을 갚았는지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밤이 되면 한 오두막에 일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는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야마두는 카카오 농장에서 하디자라는 여자 아이와 만나게 된다. 동생인 세이두가 한쪽 팔이 잘리는 사고를 겪은 것을 계기로 야마두, 세이자, 하디자가 농장을 탈출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 나의 일상생활은 누군가의 담보로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노동 착취 실태와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쉽게 살 수 있는 것들 중 아이들의 고통과 목숨을 담보로 한 값싼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 아직도 존재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농장에서 키워 온 카카오가… 잠들지 못하는 도시 아이들을 위한 거였다는 뜻인가요?"라고 말했던 야마두의 말처럼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직도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이 책은 강제노역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를 통해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17

# 살수록 모르는 게 많아야 정상 아닌가

좋아진다 · 문가람

『2019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박상영, 김희선 외 5명
문학동네

## 고전의 맛, 현대의 맛

나는 고전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고지식한 사람이고 싶었다. 왠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고전을 읽는다거나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대단히 문학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긴 하다. 까뮈의 『페스트』도 너무 좋았다. 모두 명작이지만, 그 모든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했고, 작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모든 고전이 다 재밌게 읽히진 않았다. 『데미안』은 읽고 나서 '내가 무엇을 읽은 거지'싶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작들에서 눈곱만큼의 감흥도 얻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목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다. 짧은 생의 동안 깨달은 게 있다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 내가 아는 것 이상을 보고 싶어서 큐레이터나 가이드, 해설가 등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비싼 돈 주고 큐레이팅이나 가이딩을 왜 받는가 했는데 점점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쳐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냥 예쁘면 예쁜대로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나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젊은 작가들의 주는 새로운 세계

자신의 현 상태의 앎을 습자지가 젖어가듯 점점 넓혀가고 싶다면 그렇게, 새로운 앎에 자신을 던져 넣고 스포이드처럼 쪽 빨아들이고 싶다면 그렇게. 사는 데 정답은 없다. 이것 또한 짧은 생에 깨달은 진리 중 하나다. 아무튼 그러한 고전에 여러 번 데이고 나서 스멀스멀 손을 대기 시작한 게 현대문학이다. 나의 바로 윗세대들의 이야기는 조금은 내가 아는 이야기들이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서 쉬이 존경할 수도 있었다. 그러다 점점 작가의 연령대가 낮아졌다. 아무래도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적은 노력으로도 훨씬 많은 것들이 보이고 들렸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 특유의 거리낌없는 글사위와 실험적 구성들이 신기하고 재밌다. 이 소설집의 소설들도 판에 박힌 소설의 느낌이 아니라서 생경하고 재밌었다.

## 묘한 동지애와 위안

「넌 쉽게 말했지만」은 정말 정말 내 얘기가 아닌가 싶었다. 내게 글재주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쉬고 있는 나의 변명과도 같았다. 다른 이에게서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얻을 땐 엄청난 위로를 받는데, 이 소설 또한 '나만 유별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묘한 동지애와 위안을 안겨주었다.

나는 단지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고, 그러나 그 후의 삶이 두려워 자주 울었다. 그런 나의 매일에 대한 말들은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하면 안 되는 것에 가까웠다. 언젠가 결국엔 '그만하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였다. 그즈음엔 내가 몇 년 전, 오래 알고

지낸 후배에게 들은 "누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복기했다. 쉽게 뱉은 말이었을까, 어렵게 꺼낸 말이었을까, 나를 비아냥댄 걸까, 내게 상처를 받았던 걸까.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우리가 바쁜 일상에 내주고 있던 것들이, 어느 스님 말씀처럼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일을 그만두고 저녁을 해먹다가 눈물이 날만큼 벅찼던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올려준 레시피 대로 간장 한 숟갈, 설탕 한 숟갈… 그렇게 만들어 낸 대단하지 않은 밥상이었다. 그냥, 그렇게 저녁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일찍 퇴근해도 밥을 해먹으려면 힘에 부쳐서 라면이나 끓여 먹었고, 그마저도 야근으로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매일 먹는 주변 식당들의 음식은 학교 급식보다도 질렸다. 어느 식당이나 같은 조미료를 쓰는 건지 하나같이 맛이 같게 느껴졌다. 정말이지, 그만 먹고 싶었다. 이제 하다하다 유기농 식재료까지 먼 길 자전거 타고 가서 실어오곤 한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진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행복하다.

##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일

어쩌면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그런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된 것 아니냐고. 내 오랜 친구가 말했다.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그런 일은 겪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나는 대답했다.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내뱉는 것 같지도 않고, 문장에 너무 힘을 주지도 않는다. 단조롭고 잔잔하지만, 그래서 더 내 이야기 같고 우리 일 같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은 쉽다. 하지만 '그렇게'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답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여 이제 당신의 답이 궁금해진다. 자신의 삶을 존엄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대학 때 선배로부터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떠오르는 거 보면 악의 없었을 그 말을 내가 얼마나 곱씹었던 걸까. 얼마 전 다른 선배로부터 "아니 혼자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해?"라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 툭 내뱉은 한마디에 기승전결을 가져다 붙이면서 재주에도 없는 극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나에게 해준 얘기다. 타인은 타인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주위에 있지도 않고, 그걸 딱히 바라는 것 같지도 않다. 내가 그러듯이, 타인은 남의 인생이니까 쉽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 남의 말 하나하나를 담아두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였다.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알아서 살면 되지. 얼마 전 만난 선배의 말처럼 '살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야 정상' 아닌가. 삶의 정답을 누가 아나. 그런 게 있기나 한가.

살수록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가는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을 힘주어 말하는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자기 합리화인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아보련다.

18

# 나와 다르다고 하여 틀린 것은 아니다

의정부 목요 독서모임 아침에 · 권윤경

『종의 기원』
정유정
은행나무

## 심각한 결핍의 삶이 궁금하다

정남규, 유영철, 고유정 그리고… 1990년대, 경기 화성을 '공포의 연쇄살인사건'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범인! 이춘재까지. 사이코패스들의 강력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기에.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심각한 결핍의 삶을 살았나? 사이코패스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책, 정유정의 『종의 기원』을 얘기해 보고 싶다. 언젠가 독서모임의 자유토론 시간, 강력 추천을 받았던 적이 있다.

## 악에 대하여

진정한 악이란? 악은 어떻게 존재하고 점화되는가? 사전적 의미의 악을 찾아보았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고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 책에서 일명 사이코패스, 악으로 규정되는 인물은 한유진(26세)으로, 이야기는 철저히 1인칭 시점, 한유진의 독백으로 진행된다. 다른 이의 관점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살해된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인지 메모인지 알 수 없는 유진의 26년 인생을 기록해 놓은 다이어리가 전부이다. 어느 날, 머리가 깨질 듯한 강력한 두통으로 깨어난 유진은 온몸이 피투성이, 밤새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으나 방 밖으로 나온 후,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한다.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유진과 어머니, 단 둘 뿐. 집 밖에서 연락을 주는 이는 친형과 마찬가지인 해진(양아들)과, 어머니의 동생(이모) 두 사람. 유진은 망각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며 범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결국 엄마와 이모는, 유진에게 살해되었다. 유진과 어머니는 친 형과 아버지를 16년 전 사고(유진의 관점)로 잃고 '군도신도시'라는 고립된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유진은 그 무렵부터 발작을 막고자 (본인은 천식으로 알고 있는) 신경안정제(리모트)를 먹게 된다. 그러나 그는 늘 우울감의 부작용 등을 호소한다.

## 유진의 기원

우연히 전지훈련에 약을 미처 챙겨가지 못했던 유진은 바로 그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상승되며 수영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게 되는 행운을 거머쥔다. 그의 행복감과 우월함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어머니에게 유진은 의문을 느끼고, 어머니 몰래 수시로 약을 끊고, 다른 수영 경기대회에서 큰 발작을 일으킨다. 이 사고로 유진은 수영을 관두게 되고, 어머니는 이후부터 약의 개수를 세는 등의 강박적인 억압을 이어나간다. 견디기 힘들어진 유진은 약을 먹지 않고, 야밤의 외출까지 감행한다. 그곳에서 유진은 쇠 냄새이자 피 냄새를 좇게 되고, 결국 포식자로서의 본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묘한 것은 유진은 사전적 의미의 악인이 아니라는 점-작가는 '특별한 악인'이라고 표현-이다. 결코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양심을 속이지 않고 타인에게 도덕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 게다가 잔인하고 특이한 그림을 그렸다(7살)거나, 불행한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10살)받는다고 하여, 그를 사이코패스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

### 잊히지 않는 유진의 울부짖음

물론 이야기가 유진의 관점으로 진행되어서일 수 있으나, 책을 읽는 동안 유진의 울부짖음이 잊히지 않았다. 그것(형의 죽음)은 사건이 아닌, 사고였음을. 누군가(엄마임이 틀림없지만) 형의 죽음에 대해 유진에게 물었다면. 그리하여 유진에게 '무조건적 억압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다면' 유진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가족의 이름으로 포식자 기질을 잠재우려 했으나 도리어 이 방법이, 그에게 분노의 삶을 살게 한 것은 아닌지. 유진은, 친형과 다름없는 해진(양아들)만은 죽이지 않기 위해 그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하고 그의 이름으로 외국행 비행기를 티켓팅하여 주고, 어머니의 유산도 해진의 이름으로 남겨준다. 그리고 본인의 죽음을 차분히 준비한다. 실패로 돌아간 죽음의 위장은, 명백한 증거로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해진만을 남겨둔다.

###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기질도

사실 사이코패스가 기질적으로 살인 욕구를 타고났는지, 불우한 환경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어 살인 욕구가 폭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쫓아가기 힘들만큼 급변하는 삶, 견디어 내는 삶, 우리보다는 '내 개인의 삶'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 나와 다르다고 하여 틀리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성격과 기질도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한다면, 누구도 그를 소외시키지도 힘겹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내내 든 생각이다.



## 19

#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하는 용기

마중물독서회 · 강해숙

『몬스터 콜스』
패트릭 네스, 시본 도우드(구상)
웅진주니어

### 뛰어난 상상력을 엿보다

삶은 말로 쓰는 게 아니다. 삶은 행동으로 쓰는 거다.

네가 무얼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몬스터 콜스』에서

처음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어둡고 우울하며 단순한 괴물 이야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을 구입하여 읽고 영화도 보게 된 계기는 배우 리암 니슨이 〈몬스터 콜〉 캐스팅 당시 시나리오를 읽지 않고 출연을 했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리암 니슨은 〈몬스터 콜〉의 원작 『몬스터 콜스』를 읽고 뛰어난 상상력의 스토리에 반해 영화화 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 책은 2012년에 영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카네기상'과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책에 수여되는 '케이트그린어웨이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다. 이 책은 '시본 도우드'가 인물, 틀, 시작 부

분까지 구상했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작품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이후 패트릭 네스가 작품을 완성시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을 쓸 때 패트릭 네스는 '시본 도우드'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쓰자는 기준으로 책을 완성했다고 한다.

## 너의 진실을 말하라

이 책의 주인공인 코너 오말리는 부모는 이혼했고, 이혼한 아빠는 미국으로 떠났다. 엄마는 암 투병 중이고, 강압적이고 엄격한 외할머니가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릴리는 코너의 엄마가 아프다고 학교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실수를 저지른 후 코너와 멀어진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인 해리와 그 패거리들에게 폭력과 따돌림을 당한다. 어린 코너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아픈 엄마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생활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같은 악몽을 반복하며 꾼다. 항상 12시 7분이었다. 그 시간의 의미는 책 말미에 나온다. 꿈속에 나오는 몬스터는 앞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며, 마지막에는 코너 오말리 너의 이야기를 말하라고 한다. 즉, '그냥 진실이 아니라 너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어느 왕국의 새 왕비와 왕손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목사와 약제사 이야기이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몬스터는 "진실이지. 진실은 속임수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믿음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역경을 맞닥뜨리자마자, 믿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그걸 저버렸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실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 네가 겪은 소외감,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

사람들은 어릴 때는 옛날이야기처럼 모든 일에 대해 권선징악이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도 선악으로 구별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사람들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 마지막 이야기에서 코너의 진실한 마음이 나온다. 몬스터는 "진실을 말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 말해야 한다. 코너 오말리 말해라 반드시 해야 한다." 코너는 "엄마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도 견딜 수가 없었어! 그저 끝나길 바랐어! 다 끝나길 바랐다고!" "내가 엄마를 놓았어. 붙잡을 수 있었는데 놓아버렸어." 코너의 엄마는 병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코너를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악몽을 꾸고 그 악몽 속에서 엄마의 손을 놓은 것이다. 몬스터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다. 네 고통. 고통 때문에 네가 겪는 소외감을 끝내고 싶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다."라고 한다.

##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

가족 중에 시한부 환자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된다. 환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 환자의 죽음에 대해 인정하기가 힘이 든다. 그것을 극복하고 환자를 위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편히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한 소년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진실의 힘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통해 성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옳고 그름, 사람들의 행동과 진실, 가족의 사랑과 죽음, 내면의 성장, 친구와의 우정, 진실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는 진정한 용기, 사람 내면의 선과 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어른이 된 지금도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하기는 어렵다.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때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고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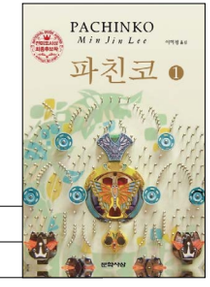
* 이 글은 독서동아리 '마중물독서회'에서 펴낸 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20

# 재일교포, 그들에게 조국은 어디였는가

너나우리 · 고광윤




『파친코』
이민진
문학사상사

## 망설임 없이 계속 읽게 되는 소설

첫 번째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2권에서 계속'이라는 여태까지의 책의 글자와 다른 두꺼운 글씨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다음 책을 손에 집어들었다. 책이 두 권으로 나뉜 나머지 첫 번째 책이 끝나는 순간 내 모든 흐름이 뚝 끊어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더욱 부랴부랴 두 번째 책의 첫 장을 펼치고 다시 선자와 그녀의 가족들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1권에서 느꼈던 그 수많은 감정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소설『파친코』는 그런 책이었다. 약 750쪽 분량의 다소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1910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과 재일교포들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빛어내는 희망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알 수 없고 매우 낯선 감정이었다. 나는 태어난 후로 한국 이외의 타지의 땅을 밟아본

경험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고 고향인 서울을 멀리 벗어나본 적도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한국을 떠나 오사카로 향한 선자와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조선인으로서 갖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녀의 가족들의 절절한 슬픔과 억울함을 무슨 수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책을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가면서 참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 선자와 가족들의 애환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남편 부재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선자가 발버둥을 치는 장면에서도, 고구마 농장주인 '다마구치'가 조선인들을 내려다보며 꺼리다 자신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선자의 가족들을 받아주었을 때도, 솔로몬의 직장 상사인 '가즈'가 토지 거래에 그를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부당 해고를 시키는 장면에서도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순간순간 울컥하는 듯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단순히 그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차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드는 동정심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완전한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세태에 휩쓸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본으로 떠나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자신들을 그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사회에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 속에서 맛문하고 불한숨을 내뿜는 순간조차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선자와 그 가족의 모습에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애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 재일교포의 삶을 보다

'파친코', 소설의 제목이 매우 낯익다. 나는 머릿속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 단어를 계속 떠올렸다. 이내 그것이 일본에서 수입된 구슬을 이용한 일종의 도박 게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제목의



의미를 떠올리고 나자 오히려 의문은 더욱 커졌다. 왜 제목이 파친코인가. 그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책을 읽고 나서야 깨달음의 감탄사를 내뱉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자이니치(在日), 즉 재일교포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고향인 부산의 섬 영도에서 일본으로 떠난 선자와 그녀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 당시 재일교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소설의 제목 파친코는 이 책에서 매우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선자의 아들인 노아와 모자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파친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후 파친코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당시에 일본의 파친코 산업은 일본 내에서 심각한 차별과 억압에 시달렸던 재일교포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웠기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업계가 축소되어 대부분의 일본인 업자들이 손을 뗀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 파친코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애증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소설에서 파친코는 말 그대로 재일교포들의 주요 일자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다고도 생각했다. 돈이 걸린 상황에서 구슬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파친코처럼 앞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재일교포들의 위태위태한 풍전등촉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 역사가 우리를 아프게 해도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책의 1장을 펼치고 나서 볼 수 있는 문장이었다. 이 첫 문장에서 주는 강렬한 느낌에 몇 번이고 다시 책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 이 문장을 되새기고 곱씹어보곤 했다. 그들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시받

고 멸시받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다. 당대의 역사가, 일제강점기 시절의 척박했던 한국과 전쟁으로 인한 대혼란의 시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문장은 또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역사가 평범하고 근면 성실한 선자를 고난으로 내몰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듯이 타지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궂은일을 마다않고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간다. 그녀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적인 곳으로만 향하지는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은 다시 결혼하여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은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 차별 없이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하며 부유한 십대를 보낸다. 마치 역사가 우리를 아프게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솔로몬은 선자와 이삭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모자수가 유미와 만나 낳은 아들이다. 『파친코』를 읽으며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모두 넘기고 표지를 덮고 나니 이때까지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의 한 필름처럼 재생되면서 내 머리를 훑고선 빠르게 지나갔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자 나는 재빨리 영화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머리를 싸매고서 노트를 끄적이며 솔로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전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실이었다. 나는 『파친코』를 읽으며 재일교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 깊이 공감하였다. 그들이 일본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반감은 어떠할지 애절하게 느끼며 읽었다. 그런 나의 생각에 금이 가게 만든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은 한국계 일본인이다.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 처음부터 일본의 사회와 언어,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인물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인이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적응도 쉽게 이루어



졌고, 밟아본 적도 없는 한국이라는 조국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에 대한 애착이나 자긍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의 여자 친구 피비에게 더 공감이 갔다. 미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와 받은 차별로 더욱 주눅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피비가 일본에 대해서 반정을 표현할 때 솔로몬은 일본을 두둔하며, 일본인 상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순간에도 일본인이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토록 사람들이 말했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무엇인지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다.

### 경계선에 놓인 삶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간 선자와 같은 인물들은 타지인 일본보다는 고향이 있고 조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 그립고 잊을 수 없는 곳일 것이다. 하지만 세대가 점차 흐르고 책에서의 시간도 흐르게 되면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은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어쩔 수 없이 파친코 사업에 뛰어든 노아나 모자수와 달리 파친코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재일교포가 3, 4세대로 흘러가면서 점차 변화해가는 그들의 생각에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그러면서도 책 속 하나가 솔로몬에게 하는 "넌 언제나 외국인으로 살아야 할 거라고. 절대 일본인이 되지 못해. 알겠어?"라는 말에서 완벽한 한국인이 될 수도 일본인이 될 수도 없는 그들의 경계선에 놓인 삶은 내게 또 다른 씁쓸한 감정을 입 안 가득 감돌게 하였다.

파친코는 마치 바다와 같은 이야기이다. 잔잔하게 흘러가다가도 갑작스레 휘몰아치는 굵직한 사건과 감정의 파도가 예고 없이 덮쳐오고, 그 안에서 새겨지는 또 다른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재일교포들의, 어두운 심해 속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 책이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슬펐다. 책을

읽기 전의 내 모습을 반성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는데도 난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였다.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말처럼 내국인이면서 이방인으로 남게 되어버린 그들의 힘겹고 뼈저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훗날 이삭의 묘지에서 옛날을 추억하는 선자를 만난다면 오랜 세월을 버텨온 그 거치면서도 부드러울 애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



21

# 고유의 신념,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츄잉북 · 이진영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페르난두 페소아
민음사

## 일방적인 혼잣말처럼

70개의 이명을 사용했다는 페르난두 페소아의 난해한 시들을 처음 접해보면서, '시'라는 문학 장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보통 시라는 장르에 대해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들이 아름답게 쓰인, 정리가 잘된 시이다. 그러나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에서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고, 단지 일방적인 혼잣말과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시집 뒤에 따라 나오는 해설을 읽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인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비평가로 시작한 페소아는 무명 혹은 저평가된 시인들을 알아보고 발굴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자기만의 문학 계보를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 또한 초창기에는 이명이 일종의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광대극으로 여겨지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이명을 사용했던 복수성이 그의 고유한 특징 및 업적이 되었다. 특히 3부에 나오

는 다음의 시 구절에서 페소아 안에 수없이 많은 영혼, 인격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셀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산다. … 나는 그저 느끼거나 생각하는 하나의 장소.
나에게는 하나 이상의 영혼이 있다. 나 자신보다 많은 나들이 있다.
… 그들이 입 다물게 해 놓고, 말은 내가 한다."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에서

### 외로움을 달랜 것일까

현대사회에서는 다중인격, 정신분열 등 정신적 증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으며 정신적 질환으로 구분짓게 되는데, 1900년대는 그러지 않고 무지했었던 시기이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페소아의 이명, 즉 다중인격이라는 시기법이 기발하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다만 1부의 다음의 구절은 페소아의 삶과 시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해준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마치 낙서처럼 부담 없이 끄적이며 쓰며 외로움을 달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된다.

"생각한다는 건 … 비 맞고 다니는 일처럼 번거로운 것.
내게는 야망도 욕망도 없다. 시인이 되는 건 나의 야망이 아니다. 그건 내가 홀로 있는 방식."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끔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데 성공하며, 때로는 뒤죽박죽 잘못 얘기하며,
나도 모르게 내 시들을 쓴다."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에서



### 예술을 이해보려는 노력

한편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의 저자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떠오른다. 샐린저는 미국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는 불후의 명작 『호밀밭의 파수꾼』을 출판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뒤로는 외진 곳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며 출판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 글쓰기는 종교와 같은 것이 되었으며 출판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글쓰기에 삶을 바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페소아의 신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다. 시인이 되어 야망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 시는 단지 소박하게 자기 자신을 홀로 있게 해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도록 철저히 계산되어 제작된 감성을 자극하는 시, 노래, 예술작품들을 좋아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해도, 돈을 벌지 못해도, 자신의 예술 세계 속에서 고유한 신념에 따라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예술가들이 많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술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세계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

22

# 심장이 따뜻하게 뛰고 있는데, 왜 춥겠니

메리트 공주님 · 변춘희

『삐삐는 어른이 되기 싫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시공주니어

### 삐삐의 이야기

난 아저씨들이 꼭 '택'(스웨덴어로 고맙다는 뜻)이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틱'이라는 말 정도는 해야죠. 아저씨들은 시계만큼도 철이 없군요. 어쨌든 안녕히 가세요.

『삐삐는 어른이 되기 싫어』에서

금화를 세고 있는 삐삐를 본 도둑들이 시계를 보러 왔다며 둘러대고는 그냥 나가자, 삐삐는 도둑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친다. 삐삐는 예의 없는 어른에게도 친절하다. 어른들은 삐삐에게 예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삐삐 이야기에는 예의 없는 어른과 욕심 많은 어른이 자주 나온다. 뒤에서 가정부 욕을 하는 부인들, 삐삐의 땋은 빨간색 머리를 잡아당기며 막 불붙인 성냥 같다며 너같이 못생긴 아이는 처음 본다고 말하는 신사, 삐삐네 집 마당 떡갈나무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신사, 삐삐의 금화를 탐내고,



삐삐는 팔 생각도 없는 뒤죽박죽별장을 헐값에 사려고 하고, 아이들의 구슬치기 장난감인 진주를 빼앗으려고 한다. '스핑크'가 뭔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어른, 대뜸 화난 목소리로 말하는 약사 어른. "잘 봐라, 애들아. 똑똑히 봐야 한다. 아저씨가 총 쏘는 기술을 너희들한테 처음으로 가르쳐 줄 테니."라며 무턱대고 어린이를 가르치려 드는 어른, 누가 공부를 잘하고 착한지, 누가 가난한지를 가리는 어른 등 닮고 싶지 않은 어른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어른들에게 삐삐는 친절하다. 욕심 많고 무례한 어른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응대한다. 얼굴이 벌게져서 소리치는 약사에게 삐삐는 "어유, 성질 한번 고약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꼭 나쁜 짓을 한 것 같잖아."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다시 약사를 부르는 초인종을 누르고는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뒤죽박죽별장을 사려온 무례한 신사에게 삐삐가 아저씨랑 나랑 둘 다 허풍선이인 것이 닮았다고 말하자 신사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 당장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지."라며 화를 내는데, 삐삐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버릇 고치기는 언제 시작할까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대꾸한다. 진주를 훔치러 온 어른들이 "진주는 어딨어, 이 조그만 괴물딱지 같은 녀석아! 너하고 말을 다 죽여 버릴 테다!"라고 버럭 소리를 질러도 삐삐는 "구슬치기를 못해서 좀이 쑤시는 것도 아니면서…. 장난도 정도껏 치셔야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구슬 살 돈 15요레만 달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쉬워요."라고 말한다.

### 삐삐가 보여주는 힘과 돈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힘이 약하고 돈이 없다. 그런데 삐삐는 어린이가 갖지 못한 힘과 돈을 가지고 있다. 삐삐는 어른보다도 훨씬 많은 힘과 돈을 가지고 있다. 삐삐는 힘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준다.

삐삐는 당당하다. 상대의 무례에 휘둘리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재치 있게 응대한다. 뒤죽박죽별장을 사려는 투기꾼이 마당의 떡갈나무를 잘

라 버리겠다고 협박하자, 토미와 아니카는 나무를 베지 말라며 애원을 하고 울지만, 삐삐는 대꾸 없이 열심히 뛰뛰기를 한다. 토미가 삐삐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하자 삐삐는 열심히 뛰박질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냐며 토미에게도 어렵지 않으니 뛰어보라고 한다. 그리고 무례한 신사에게는 신사 주위를 뛰어다니며 이 집 주인이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 말한다. 무례에 응대하는 삐삐의 방식을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

### 더불어 즐겁게 지내기

삐삐는 자신이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는 데 사용한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즐겁게 놀 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한다. 대나무집을 짓고, 상어가 못 오도록 바다에 그물을 쳐서 아이들이랑 즐겁게 놀고, 토미와 아니카가 홍역에 걸렸을 때 창밖에서 묘기를 부리고, 경찰 아저씨들과는 지붕을 오르내리며 술래잡기를 한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나 말에게 채찍질로 화풀이를 하는 사람은 대여섯 번 하늘로 던져 올린다. 과자를 굽고 선물을 챙기고 파티를 준비한다.

삐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를 가려 선물을 주고, 몸무게를 재서 가난하고 빼빼 마른 아이를 가려서 스프를 먹게 하는 로셈블롬 할머니가 학교에 오자, 삐삐는 할머니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해서 창피를 당할 뻔한 아이들에게 가서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고는 선물을 준다. 사탕을 18킬로그램씩 두 번이나 사서 동네 아이들과 나눠 먹고,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피리를 선물한다. 토미와 아니카에게도 선물을 아끼지 않는다.

### 심장이 따뜻하게 뛰는 동안은

삐삐랑 함께 있으면 뭐든지 재밌다. 쿠르쿠르두투에서도 재밌고 뒤죽박죽별장에서도 재밌다. 삐삐는 신나게 노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다. 동굴에서 바다까지 줄사다리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대나무로 오두막을 만들고, 통 속에 들어가 폭포를 타고 내려가기도 한다. 삐삐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 그래서 삐삐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신나고 재미있다. 스핑크라는 모르는 단어를 만들어서 찾아다니고,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어른이 안 되는 약과 주문을 만들어 낸다.

토미와 아니타와 삐삐는 어른이 되기 싫다. 삐삐는 어른이 안 되는 약 칠릴러그를 토미와 아니타랑 함께 먹으며 '끄기 싫다'는 주문을 외운다. '크기 싫다'라고 주문을 잘못 외우면 한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실 칠릴러그는 너무 오래돼서 약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만 어른이 안 되는 방법을 시도한다. 토미와 아니타와 삐삐가 어른이 되기 싫은 이유는 언제나 재미있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새로운 걸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해보는 삐삐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재미있다. 그건 몸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 어린이냐 어른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하고 뭔가 새롭고 낯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해보고,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나쁜 어른에게 휘둘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어린이로 살고 있는 셈이니까. 오랫동안 비워둔 깜깜하고 추운 뒤죽박죽별장에 혼자 들어서면서 삐삐가 말한다. "심장이 따뜻하게 뛰고 있는데, 왜 춥겠니?"라고. 심장이 따뜻하게 뛰고 있는 동안 춥지 않게 따뜻하게 살고 싶다.

# 2019년
# 독서동아리
# 토론 도서
# **5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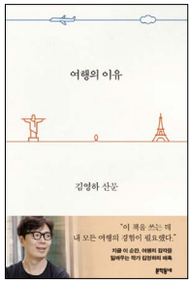
# 2019년 독서동아리
# 토론 도서 50선

올 한해 독서동아리들이 함께 읽고 토론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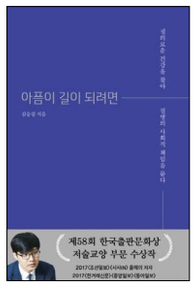
**『강신주의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인문
행복꽃 책갈피 외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소설
라온누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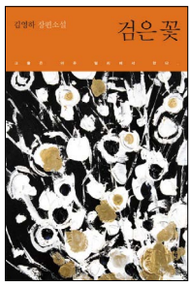
**『일취월장』**
고영성, 신영준
로크미디어
경제/경영
다독다독독서모임 외




**『여행의 이유』**
김영하
문학동네
시/에세이
독서풍경, 후뢰쉬맨 외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인문
책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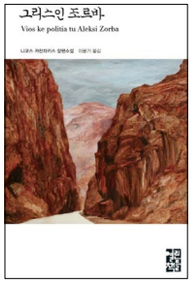



**『검은 꽃』**
김영하
문학동네
소설
혜윰인 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사계절
정치/사회
신선한 책읽기1.5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지혜
시/에세이
독서풍경, Pitta 외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정치/사회
TEDers, 독서풍경, 비책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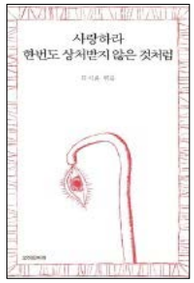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열린책들
소설
남산북클럽,
끝장보는 독서 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소설
공책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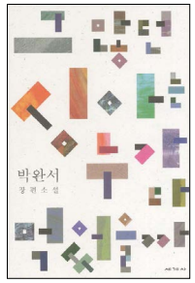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민음사
소설
애기보따리 18기,
세화독 외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정치/사회
모여, 부너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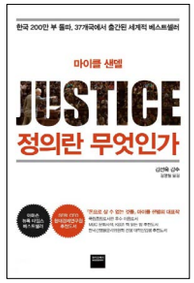
**『빨강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더클래식
소설
삼대독서, 천천히 외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오래된미래
시/에세이
꽃들의 서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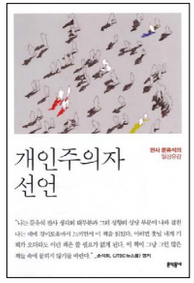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세계사
소설
무지개독서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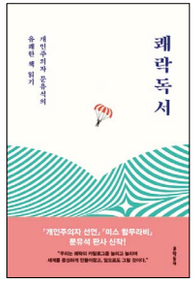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인문
BAD-TEAM 외

**『달 샤베트』**
백희나
책읽는곰
그림책
책마중, 꽃들의서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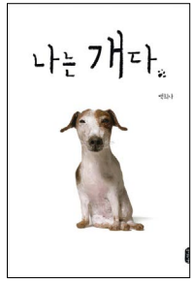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문학동네
인문
다스름 외

**『알사탕』**
백희나
책읽는곰
그림책
Book-sory, 삼대독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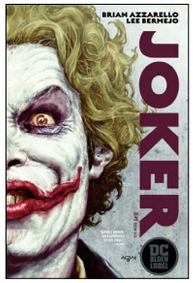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인문
북적북적 외




**『나는 개다』**
백희나
책읽는곰
그림책
엄마마중, 책마중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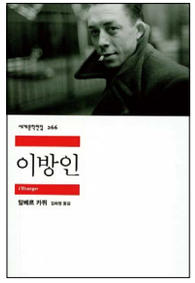

**『조커』**
브라이언 아자렐로
시공사
만화
아름다운독서 외

**『행복의 기원』**
서은국
21세기북스
인문
글을 음미하다 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청아출판사
시/에세이
행복꽃 책갈피,
BAD-TEAM 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돌베개
시/에세이
기역니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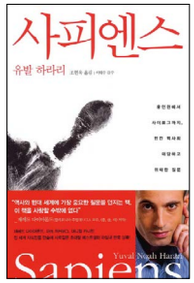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위즈덤하우스
시/에세이
다본책 외




**『이방인』**
알베르 카뮈
민음사
소설
바람풀 외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새움
소설
Pitta 외

**『자기 앞의 생』**
로맹 가리(에밀 아자르)
문학동네
소설
도토리독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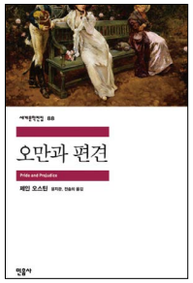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인문
인자한토론, 모글리 외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
인문
공공책빵, 동그라미 외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블랙피쉬
예술/대중문화
박학다식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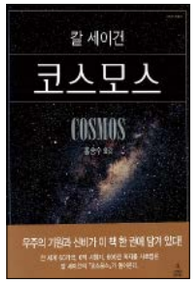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인문
박학다식 외

**『글쓰기의 최전선』**
은유
메멘토
인문
박학다식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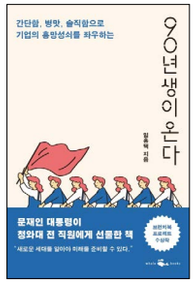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민음사
소설
비책 외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문학동네
소설
독서풍경 외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과학
독서미식회,
고스트유니버스 외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웨일북
경제/경영
신선한 책읽기1.5 외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소설
질문이 샘솟는 시간,
독서마라톤, 책크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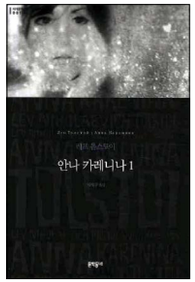
**『광장/구운몽』**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소설
다스름 외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엘리
소설
아침에 외

**『열두 발자국』**
정재승
어크로스
인문
라온누리 외

**『세 여자』**
조선희
한겨레출판사
소설
다섯수레, 모여 외

**『포노 사피엔스』**
최재붕
쌤앤파커스
경제/경영
함께읽기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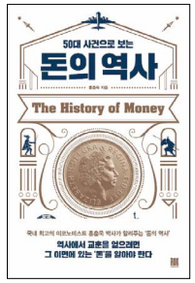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
문학동네
소설
무지개독서회 외

**『걷는 사람, 하정우』**
하정우
문학동네
시/에세이
이방인의자유독서 외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푸른숲
시/에세이
서삼독 외

**『라틴어 수업』**
한동일
흐름출판
인문
후뢰쉬맨,
아름다운 독서 외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로크미디어
경제/경영
다독다독독서모임,
들고파다 외



# 2019년 전국 독서동아리 **목록**

서울 (140개팀)
부산 (16개팀)
대구 (14개팀)
인천 (11개팀)
광주 (7개팀)
대전 (10개팀)
울산 (7개팀)
세종 (3개팀)
경기 (81개팀)
강원 (16개팀)
충북 (16개팀)
충남 (8개팀)
전북 (19개팀)
전남 (9개팀)
경북 (10개팀)
경남 (29개팀)
제주 (4개팀)

# 서울

**10人會** | 마포구, 2016, 홍대입구역 근처 카페

나이, 직업은 다르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로 엮여 매월 1회 독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

**1주 1책** | 동작구 사당동, 2013, 동작구 일대 카페

2030 직장인들이 일주일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금요일 밤에 독서와 토론으로 풀고자 하는 모임

**Book-sory** | 도봉구, 강북구, 2017, 회원의 집 또는 사무실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글을 편견 없이 읽고 다양한 소리를 내보자는 의미를 가진 동아리

**IT여성독서모임** | 중구 쌍림동, 회사 또는 카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IT인들이 모여 만든 독서동아리

**Minimize Impact** | 용산구 용산동, 2019, 회원의 집

살아가는 지구에 최소한의 발자취를 남기며 어울러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탐구하는 독서모임

**Pitta** | 노원구 하계동, 2019, 카페

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 위함

**Sapientia** | 은평구 응암동, 2018, 카페 혹은 사무실

나와 너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40·50대가 모여 함께 인생의 전환기를 토론하고 행동하는 동아리

**The울림** | 종로구 당주동, 2016, 북바이북 광화문점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을 원칙으로 함

**가리비 프로젝트** |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8, 카페

우리를 낯설게 하는 모든 것을 배워보자는 뜻을 갖고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독서동아리

**갈 길이 구만리** | 중구, 강남구, 가끔 충청권, 2017, 북카페, 세미나실, 토즈

대안학교 중학교에서 만난 부모들의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아이를 키우는 길이 너무 멀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해뜰이랑 다독다독** | 강서구 방화동, 2019,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3층 해뜰작은도서관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정기적인 봉사를 하는 독서동아리

**건대 독서스터디** | 광진구 화양동, 2018, 카페

20~30대 직장인, 대학생 등 6인으로 구성된 각자 삶의 가치관 및 방향성을 가다듬는 독서동아리

**검은독서단** | 강남구 도곡동, 2017, 스터디 카페

중학교 1~3학년으로 구성,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 누나, 친구 사이로 같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함

**경공모(경제공부모임)** | 종로구 옥인동, 2011, 길담서원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예상치 못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는 동아리

**고궁독서** | 관악구 신림동, 2012, 일반 카페

곤궁을 달게 여기고 학문에 힘쓰자는 뜻으로 11명의 사회인이 모여 7년째 독서동아리를 하는 중

**고용불안** | 성북구 석관동, 2019, 카페

20대 후반에서 30대 프리랜서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고용불안' 속에서도 늘 독서를 하는 이들의 모임



**공간** | 서울 서초구 방배2동, 2017, 방배2동 공공작은도서관

방배2동 공공작은도서관에서 토지 20부의 완독을 주된 목표로 진행된 독서동아리

**공공책빵** | 은평구, 2019, 은평뉴타운도서관 동아리실, 연신내 북카페

은평구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자발적인 독서동아리 모임, 북큐레이션 방법에 대한 고민 등 사서들이 교류하기 위한 장

**공책** | 마포구 잔다리로, 2018, 부대표 작업실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각자의 속도로, 각자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임

**공책 : 공공일호 책모임** | 종로구 동숭동, 2019

공공일호 코워킹스페이스 입주 멤버 중, 공간 기반 커뮤니티 조성과 공간 재생 사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모임

**그녀들의 우아한 사생활(여우생)** | 구로구 오류동, 2019, 회원의 집

결혼 및 육아생활로 지친 심신을 독서 활동으로 회복하고자 모인 20년 지기 친한 친구들의 모임

**그만사(그림책으로 만난 사람들)** | 구로구 구로1동, 2017, 그래그래작은도서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림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독서동아리

**그사맘(그림책을 사랑하고 읽어주는 엄마들)** | 마포구 상암동, 2019, 마포중앙도서관

그림책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임

**글을 음미하다** | 용산구 한남동, 2016, 복합문화공간 나인로드

책 한 권을 다 읽고 오는 것이 아닌 한 주마다 읽은 부분에서 느낀 것들을 나누는 동아리

**기역니은** | 성북구 보문동, 2018, 회원의 집

기역과 니은이 합쳐지면 미음이 되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모임

**꼬꼬맘스** | 서초구 방배동, 2019, 방배3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책을 통한 공동육아를 함께함으로써 엄마의 역량을 향상할 목적으로 구성

**꽃들의 서재** | 강북구 미아동, 2019, 서울송천초등학교

정보만이 아닌 감정을 소통함으로서 많은 역할 속 지친 일상으로부터 나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모임

**낭독나들이** | 서울, 2017, 북카페

자녀교육,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가볍게 시작한 모임

**너나우리** | 중구 신당동, 2019, 장충고 꿈담카페

바쁜 생활로 인해 책 읽기 힘든 교사, 학부모들도 아이들과의 약속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하고자 결성

**노동자독서모임** | 종로구, 2019, 카페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모임

**느티나무 독서동아리** | 서초구 내곡동, 2018, 서초구립내곡도서관

바쁜 육아와 직장생활로 인해 엄마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의 독서를 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활동하는 동아리

**니꼴(니, 책, 끌리는대로)** | 강서구, 2018, 강서도서관

청소년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청소년의 시각을 느껴보고 이해해보고자 모인 성인 독서동아리

**다독회** | 영등포구, 2019, 영등포승무사업소 내 교양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점차 고갈되는 인문학적 지식과 감성을 다시 채우고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임

**다른 목소리로** | 마포구 합정동, 2018, 카페

페미니즘과 비혼주의 삶에 관한 독서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30대 여성 독서모임

**다본책** | 영등포구 양평동, 2017, 인근 카페

서로가 추천한 책을 다 읽겠다와 다양한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아리

**다북다북** | 동작구 동작동, 2019, 국립서울현충원 청사 2층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감사하고 있는 모임

**다섯수레** | 종로구 율곡로, 2016, 한국산문 사무실 대관

다섯 수레에 실을 만큼 많은 책을 읽자는 의미로 매주 수요일에 모여 각자의 독후감을 발표하는 동아리

**도전천권** | 서대문구 노고산동, 2013, 신촌역 주변 스터디룸

지속성, 다양성, 주체성을 모토로 하는 고향 같은 독서모임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픈 독서동아리

**도토리 아빠 책모임** | 마포구 성산동, 2018, 도토리방과후조합 내(또는 각 아빠집)

책을 통해 다른 아빠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바람에서 결성된 책모임

**도토리독서모임** | 성북구 종암동, 2017, 카페, 학교 스터디룸

책이 다람쥐가 숲속에 숨겨놓는 도토리와 같다고 생각하며 편독을 경계하며 다양하게 책을 읽고 있는 동아리

**독독독讀讀讀** | 마포구, 2019, 이대역 인근 스터디룸

20,3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필사, 강의 후기, 서평, 감사 일기 등 글을 나누고 있는 모임

**독서모임 북괴(Book Monster)** | 서대문구 연희동, 2015, 북카페

북(Book) 단어와 우뚝하다는 뜻을 가진 괴(塊)의 합성어로 각 분야의 전공과 전문성을 갖춘 직장인 중심의 모임

**독서삼도** | 중구 회현동, 2012, 도서관 세미나실 등

마음을 집중하고, 눈을 집중하고, 입을 집중하며 다양한 책을 읽고 나에게도 사회에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독서회

**독서탐구반** | 구로구 가마산로, 2019, 구로도서관 등

교내 독서탐구동아리로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인 순수 문학과 동서양 고전 책을 구입하여 읽고 공유

**독수리맘** | 송파구 풍납동, 2018, 퍼스트페이지 카페

각자 읽던 책을 함께 모여서 읽기 시작하며 공감이 더해진 독서하고 수다 떠는 이웃 엄마들의 모임

**동·네·북 청소년 독서동아리** | 강서구, 양천구 일대, 2019, 강서도서관 등

마을학교 재능기부 청소년 25명 내외, 성인 5명 내외 총 30여 명의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에 만나 독서하는 모임

**동그라미** | 종로구 북촌로, 2018, 정독도서관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 꼰대가 아닌 꽃대로 살면서 인생 백 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독서동아리

**동네북** | 양천구 목동 등, 2014, 카페

정기적인 회비도 없고 의무적인 규율도 존재하지 않지만 5년 동안 꾸준히 독서모임을 이어감

**두잉 여성주의 책읽기** | 강남구 청담동, 2019, 카페

여성으로의 삶에 관하여 고민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독서모임

**똘레랑스** | 강남구 삼성동, 2011, 이브자리 코디센 삼성점 갤러리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졸업생들끼리 모여 꾸준하게 토론모임을 진행



**라온제나 책모임** | 종로구 종로 2가, 2019, 카페드람브르

다양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부모로서 한층 더 성장하며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모임

**라페** | 마포구 서교동 등, 2019, 카페, 학교 강의실

항상 앞부분만 읽고 꽂아두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자는 의미를 지닌 독서동아리

**러닝피플(독서마라톤)** | 강동구 천호동, 2019, 교보문고 천호점

바쁜 삶 속에서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독서모임

**렘군(REM郡)** | 강남구, 2017, 강남역 부근 스터디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서로 신뢰하고 열정을 지닌 생산자가 되자는 독서모임

**만남의책읽기** | 마포구 노고산동, 2017, 단체 공간

다양한 유형의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모여 월 1회 일상을 나누며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눔

**맹신자들** | 마포구 합정동, 2017, 카페

지방에서 서울로 와 직장을 다니게 된 초년생들이 2017년부터 소설 읽기 모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옴

**메리트공주님** | 동작구 사당동, 2018, 아파트 회의실

어린이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것을 즐거움으로 삶의 문제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책 토론 모임

**모두가 다른 우리** | 관악구 조원로, 2018, 북카페

한의원 직장인 독서모임으로 시작하여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 소아마비를 가진 사람들, 교직에 있는 사람들로 확장

**모여(모두가 모여 여성학)** | 은평구 불광동, 2019, 서울청년허브 나눔방

평화와 여성, 군사주의와 젠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여성학 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뜻을 모은 북클럽

**문학살롱** | 관악구 봉천동, 2019, 살롱드북

Salon의 어원처럼 지식인들의 사교와 문학적 소통의 장으로 지속적인 독서모임 진행

**문학인 북클럽** | 관악구, 2018, 동네서점

매월 문학인이 되기 위한 시, 소설, 에세이, 동화를 함께 읽는 독서모임

**바람풀** | 종로구 명륜동, 2019, 책방 풀무질

연극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아리, 희곡, 소설, 시 등 관련 분야에 대해 함께 공부

**박학다식** | 용산구 용산동, 2018, 카페, 회원의 집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독서동아리를 통해 꾸준히 책을 읽으며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음

**별빛독서단** | 구로구 고척1동, 2019, 도서관, 회원의 집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학부모로 이루어져 책 속에서 다양한 어휘를 접하며 표현의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모임

**보라책방** | 중구 명동, 2019, 명동 일대 카페

비영리 기관에서 성평등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임

**부유자들** | 마포구 연희동, 2017, 카페 보스토크

예술을 사랑하는 작가와 기획자들이 인문학 책을 읽고 철학 사이를 부유하듯 떠다니며 수다하는 사람들

**북소리** | 강동구 천호동 등, 2011, 천일어린이도서관

책 속의 다양한 삶과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꿈꾸는 독서모임

**북악하늘북스터디** | 성북구 정릉동, 2019, 북악하늘작은도서관

자유롭게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정리하는 모임

**북적북적** | 도봉구 창동, 2018, 카페

바쁜 현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서량이 부족한 회원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량 증진을 목적으로 개설

**붓(읽고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 | 용산구 한강로동, 2019, 주민센터 북카페 등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된 글을 사랑하는 그림작가들의 모임

**비읍** | 서울 등, 2017, 책 내용에 따라 정함

필요한 한국문학을 발굴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관심받는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

**빛나는 책갈피** | 마포구 대흥동, 2016, 동 주민센터, 카페

대학 연합 책 읽기 모임으로 시작하여 10개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졸업생, 직장인이 함께함

**사철의 봄** | 서대문구 냉천동, 2018, 카페, 회원의 집

'사회과학과 철학의 의미를 봄'의 줄임말로 이름 그대로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30대 직장인 모임

**사회적 독서회** | 마포구 망원동 등, 2015, 공공기관, 서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책을 통하여 대화를 늘림으로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결성

**삼대독서** | 도봉구 창동, 2019, 회원의 집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대가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삼사당** | 동작구 상도동, 2017, 상현초등학교 학부모실 등

새로운 책 읽기, 도서관 탐방 등 다양한 주제로 궁극의 목적은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인 동아리

**새.여.사(새벽을 여는 사람들)** | 종로구 동숭동, 2017, 소공연장

일요일 아침 일찍 매월 또는 격주로 책 한 권 읽기를 실천하는 모임

**생각의숲** | 중구, 2016, 서울시의회 회의실 등

여성, 환경,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해외의료지원 등 다양한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샤인리딩클럽** | 송파구 위례신도시, 2015, 수도원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상처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나아가 자신의 전문성도 계발하는 시니어 독서동아리

**서행(書行)** | 관악구, 2019, 관악구 인근 도서관

독서를 좋아하고 나의 아이들도 책을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엄마, 다섯이 모여서 만든 모임

**성장하는 사람들** | 동대문구 제기동, 2018, 글놀이작은도서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로 삶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는 데 독서가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모임

**세상의 모든 작가** | 동작구 사당동, 2017, 사당동 소재 스터디룸

격주, 두 달간 총 4회의 모임을 한 작가의 책으로 선정하여 작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독서동아리

**속빈강정** | 동작구 사당동, 2015, 카페

늘 스스로를 속 빈 강정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정진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픈 독서동아리

**수요평화모임** | 종로구 통일로, 2018, 레드북스

격주로 모여 모든 폭력과 차별에 맞서 평화를 지킬 궁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숙고라** | 용산구 청파동, 2019,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아고라의 지적인 열기를 고전 읽기와 질문하기를 통해 표방하는 독서동아리

**詩몰이** | 종로구 인사동, 2002, 카페

매월 만나 시를 낭독하고 감상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

**시월애** | 서초구 서초동, 2012, 회원의 사무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차이를 알고 책모임을 하게 된 동아리

**실버북토킹** | 금천구 가산동, 2017, 금천구립가산도서관

이사도 도서관 중심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독서를 통해 성숙과 소통을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동아리

**실험실 옆 작업실** | 마포구, 서초구, 2019, 마포중앙도서관 등

물리학, 생물학, 회화, 뉴미디어아트, 클래식 음악을 하며 과학, 예술, 사회에 관한 고전과 최신의 책을 읽고자 하는 모임

**아독자(아주독한자매들)** | 마포구 공덕동, 2019, 동네책방 등

혼자서는 읽기 힘들었지만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동아리

**아르쿠스** | 강남구 압구정동, 2018, 회원의 집

책에 대한 관심, 지식에 대한 열망,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5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까지 독서동아리

**아리아리(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아가자는 의미)** | 광진구 화양동, 2018, 건대입구역 근처 카페

기존의 독서 커뮤니티에 아쉬움을 느낀 몇몇 청년들이 모여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형식의 독서모임을 만듦

**아빠들의저녁식사** | 영등포구 당산동, 2018, 당산동 인근 카페

무의미한 술자리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지식을 습득의 기회로 갖고 의견을 모아 시작하게 된 독서모임

**아책(아무도 안 읽는 책 읽기/내책我冊)** | 은평구 녹번동, 2018, 혁신파크 소모임방

누구의 권유나 강요가 아닌 온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독서동아리

**앙가주망** | 중구 을지로동, 2019, 사옥라운지

실존적 자유를 토대로 한 행위,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사회문제에 참여하여 조금씩 세계를 변화하기 위한 모임

**애팅(aeting)** | 서울, 1977, 대학 강의실 등

서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시작한 40년 전통의 서울권 연합 사회과학 독서 토론 동아리

**어머니와 함께 독서** | 서울, 2017, 회원의 집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함께 독서하고 아이들과 책을 소통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임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 강남구 논현동, 2017, 카페, 회원의 집

마음이 잘 맞는 다양한 직급의 여성 직장인 6인이 여자 선배 롤모델이 없다는 기치 아래 독서모임 결성

**엄마페미니즘탐구모임 부너미** | 종로구, 2017,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터디 카페

결혼한 여성들이 아내, 엄마, 며느리의 역할에서 벗어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모임

**에창방(SF를 읽고 창작하는 방)** | 마포구 대흥동, 2019, 세운북라운지 등

SF와 과학서를 읽고 SF를 창작하는 모임

**다락방의 미친 언니들** | 마포구 동교동, 2018, 책방

매주 월요일 아침, 경의선 숲길에 있는 옛 책방에서 국내외 여성 시를 함께 나누는 시 모임

**역사사랑** | 중구 장충동, 2016, 장충중학교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교사와 일본문학 번역가가 참여하는 독서동아리

**연지(연필과 지우개)** | 마포구 합정동, 2018, 몽당연필 사무실

재일조선인, 조선학교와 관련된 문학, 문화, 역사,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

**오즈(oz)** | 마포구, 2016, 카페

다양한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6명이 모여 각자가 속한 현장의 어려움을 책으로 해소

**이그나이트 동작** | 동작구, 2016,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등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아이들과 여전히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의 책모임

**인문학 연구회** | 동작구 흑석동, 2018,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발적으로 인문학 책을 읽고 싶은 학우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독서동아리

**인문학공동체 모모** | 종로구 종로2가, 2018, 카페 세미나룸

빈틈없이 아주 여무진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모도리들이 모였다는 의미로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독서모임

**인생 300** | 용산구 원효로, 2019, 용산꿈나무도서관

용산꿈나무도서관에 자주 다니다가 책에 대한 갈망을 느껴 자발적으로 만든 독서모임

**읽는 사람 000** | 마포구, 2019, 카페

다양한 주제, 다양한 책을 말하며 공평한 발언권을 위해 15분씩 모래시계를 돌리는 독서동아리

**정말** | 서대문구 대흥동, 2019, 카페, 스터디룸

세상에 빛나는 고전들이 많이 있음에도 장벽이 있어 그 간격을 좁히고자 활동하는 희곡 낭독 모임

**조용한 혁명** |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7, 하자센터 마을책방

조용하지만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전달할지 고민하며 각자의 혁명을 이뤄내고자 하는 독서모임

**좋아진다** | 동작구 사당동, 2018, 카페

육아휴직으로 일터를 떠나 혼자서 육아하는 이를 응원하기 위해 책을 들고 집을 방문한 것으로 시작한 독서모임

**중독(중랑구 독서)모임** | 중랑구 중화동, 2019, 카페 메이

왜 우리 동네는 문화공간이 없을까의 물음으로 없으면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독서모임

**채식한권** |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8, 하자센터 마을책방

비건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 인간 중심적이고 종차별적인 사고와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모임

**책 속의 세상 읽기** | 광진구, 2019, 카페, 회원의 집

따지고 보면 그리 다른 세상도 아닌데,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감이 있었다. 이를 좁히기 위해 시작한 독서모임

**책과 노니는 사람들** | 마포구 성산동, 2013,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청소년 책을 읽으며 청소년 자녀에 대해 고민을 나누다 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된 모임

**책과 당신의 이야기** | 송파구 문정동, 2017, 카페

송파구와 하남시를 기반으로 2주에 한 번, 카페에 모여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책과 더불어 행복 나눔** | 강남구 율현동, 2019, 회장 집, 못골도서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각자 직장은 달라졌어도 정기적으로 모여 인문학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



**책글삶** | 서대문구 창천동, 2015, 토즈

사고와 지식의 폭을 넓히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 또 하나의 가족같이 하는 독서모임

**책놀이연구모임** | 송파구 가락동, 2018, 마을예술창작소 심지

책 속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공부하는 모임

**책두런** | 마포구 서강동, 2008, 마포구립서강도서관

11년 동안 매주 한 권씩 읽으며 한 달에 한 번 서강도서관과 함께 외부 사람과 소통하는 독서모임

**책둥지 부모둥지** | 강서구 화곡동, 2019, 회원의 집

학부모가 아닌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들을 책과 강연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함께 나누는 동아리

**책벙크** | 마포구 합정동, 2018, 합정 디벙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회원으로 다른 목적이 아닌 진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싶어 하는 독서동아리

**책소리 그림여울** | 은평구 구산동, 2014, 구산동도서관

그림책을 사랑하는 엄마들로 이루어져 그림책과 그림책 놀이를 매개로 마을살이를 하면서 성장 중인 동아리

**책읽는토요일** | 종로구 소격동, 2019, 카페

언제 어디서든 혼자여도 할 수 있는 책 읽기지만 다양한 견해를 나누고 유쾌하고 지적인 경험으로 함께 읽기를 하는 모임

**책좀바라** | 은평구 대조동, 2019, 사무실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있는 독서동아리

**책키라웃** | 강동구 상일동, 2019, 청년마루, 카페

고등학생부터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책을 읽어온 후 논제를 발제해 사고를 확장하는 젊은 동아리

**천천히** | 종로구 청운동, 2016, 카페

초등학생 발달장애아동을 키우면서 정보공유 및 힐링을 하고자 시작된 엄마들의 독서모임

**청맥중독** | 동작구 흑석동, 2018, 동네책방

순문학, 인문학, 예술 서적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며 자유로운 해석과 의견을 주고받는 모임

**청춘의 독서** | 강남구 역삼동, 2019, 공유오피스

비지니스 위주로 돌아가는 독서모임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끼리 인생을 나누면서 나이 드는 삶을 지향하고자 결성

**청포도** | 서대문구 창천동, 2017, 스터디룸 대관

대한민국 가장 평범한 청년들이 모인 독서동아리

**추리소설동아리** | 은평구 구산동, 2018, 구산동도서관마을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읽는 사람이 많은데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동아리는 볼 수 없어 만듦

**츄잉북** | 마포구 서교동, 2014, 플랫랜드 카페

대학생 모임으로 시작하여 1년의 휴지기 외에 4년 동안 매주 꾸준히 모임을 하는 곳

**카페에서 함께 읽기** | 강남구, 2018, 카페

번개 모임 형식으로 각자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들고 와 한 공간에서 독서하는 모임

**코레일 청량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독서회** | 동대문구 전농동, 2005, 승무사업소 내 독서회방

도서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대여해주며 다양한 도서를 함께 읽고자 하는 직장 독서회

**토요살롱** | 강동구 천호동, 2018,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2주에 한 권씩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읽고 소개하는 모임

**토요인지독서모임** | 강남구, 2019, 카페

인지과학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모임

**프루스트를 읽는 네 번째 가능성** | 용산구 해방촌 등, 2018, 카페, 회원의 집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이와 관련한 책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

**한권읽기** | 양천구 목동, 2017, 카페, 회원의 집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퇴사 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기 위해 만든 모임

**화요일을 사랑하는 독서모임(화사모)** | 동작구 노량진동, 2009, 동작어린이도서관

긍정적인 자아 찾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실존적 삶을 찾기 위한 주제로 꾸준히 독서 활동하는 동아리

## 부산

**가온** | 사하구 감천동, 2019, 삼성여자고등학교

책을 좋아하는 13명의 삼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독서동아리

**격주마다 격한독서** | 부산진구 전포동, 2019, 카페

책을 공통 주제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해주고 사고를 확장하며 깊은 인간관계를 다지는 모임

**느티나무책모임** | 해운대구 반송동, 2016, 느티나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독서동아리

**당리작은도서관 독서모임** | 사하구 당리동, 2015, 당리작은도서관

바쁜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독서모임

**독서병아리** | 금정구 구서동, 2018, 금정도서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교류하며 삶의 작은 행복을 키워가는 모임

**독서회 열림** | 동래구 명장동, 2018, 카페

행복한 삶에 대해 고민하던 지역의 주부들이 독서를 통해 그 답을 찾고자 시작한 강독 모임

**부산양협 강독 동아리** | 해운대구 중동, 2017, 부산양서협동조합카페 인

명서를 발견하는 즐거움, 나와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활동해온 사람들과 같은 구절을 곱씹어 나누는 즐거운 강독 모임

**북세통(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 동래구 사직동, 2019, 카페, 회원의 집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문을 만들면서 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사하구청 우리말살이** | 사하구, 2013, 사하구청, 동사무소, 카페

사하구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모여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운동과 사회복지 정책 제안에 대한 학술 활동을 하는 모임

**산호초0125** | 부산진구 , 2019, 카페

책을 매개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며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충돌하고 연결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독서동아리



**세 계절 읽기 모임** | 중구 중앙동, 2015, 또가또가 예술창작촌

한 계절은 글을 쓰고 세 계절은 책을 읽자는 취지로 활동하는 독서모임

**수요독서회** | 수영구 남천동, 2006, 에코토피아

삶의 한 부분으로써의 책 읽기를 지향하며, 단순 자기계발과 만족을 넘어 사회, 지구,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임

**이른 아침 참복지국가를 꿈꾸다, 참복국** | 부산진구 양정동, 2017, 부산참여연대 회의실, 인근 카페 등

우리가 왜 사회복지를 하는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과 반성에서 시작한 독서동아리

**조맹희녕 독서동아리** | 사하구 하단동, 2018,

부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적인 작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결성

**책담(책을 담다)** | 부산진구, 2018, 서면 스터디 카페

바쁜 일상 속에 책을 매개로 삶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독서 공동체

**책읽는 재송동젊은이** | 해운대구 재송동, 2019, 영커피

재송동에 사는 사람들 중 평소 독서에 관심이 큰 이들이 모여 교류하고 독서 열풍을 이끌고자 함

## 대구

**BAD-team(Book A Dream)** | 중구 달성동, 2019, 직장 내 카페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과 함께 제과제빵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앨리롤하우스 내 독서동아리

**고스트유니버스** | 중구 동문동, 2019, 책방 고스트북스

우주·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

**구산건강독서회** | 북구 읍내동, 2018, 구수산도서관 1층 세미나실

각자가 지정 독서에 관한 습득 정보의 공유를 위해 정기 모임을 가지며 올바르고 실천적인 건강 정보를 널리 공유

**끝장보는 독서** | 북구 복현동, 2018, 카페

글쓰기 강의에서 만난 인연이 이어져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서평을 쓰는 독서모임

**남산 북클럽** | 중구 남산동, 2018, 토요일 오후

직장생활, 대학생활, 가정생활에 지친 남성들이 모여 차 한잔 하면서 책을 읽는 모임

**라온누리** | 북구, 2018, 회원 사무실

한 달에 한 권은 제대로 읽자는 생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여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마실 나간 인문학** | 동구 봉무동, 2019, 대구시민인문학연구센터

봉무동 주민을 중심으로 인문 고전 읽기와 토론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는 독서동아리

**아름다운 구속** | 달서구, 2017,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독서를 통하여 의견 공유,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발성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직장 내 독서동아리

**영어비(永語備)** | 남구 대명동, 2019, 회원의 집, 공공도서관

대구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독서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목표로 활동하는 모임

**우짤란교** | 달서구 용산동, 2018, 동네책방, 카페

지역의 환경(미세먼지)과 생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는 독서모임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수성구 매호동, 2010, 회원의 공방

아이들을 위한 독서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너무 좋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만을 위한 독서를 하고 있는 동아리

**책가방** | 달성군 유가면, 2019, 카페, 회원의 집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편견 없이 듣고,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끌어내는 지혜를 키우기 위한 모임

**카르페디엠** | 중구 남일동, 2017, 카페

대구시 청년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지적 계발을 돕는 동아리

**큰다람쥐들** | 달성군 다사읍, 2018, 회원의 집, 공공도서관

2010년생 아이들이 주가 되어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책 선정을 하며 함께 읽는 독서동아리

## 인천

**군고구마** | 서구 검암동, 2019, 회원의 집

군고구마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하다 탄생한 독서모임

**다독다독 부평 독서모임** | 부평구 부평동, 2017, 카페

나이, 성별, 직업 관계없이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하는 독서모임

**들고파다** | 서구 청라동, 2019, 공공도서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단편적인 교과과정을 넘어 더 심층적인 지식을 갖고 싶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

**북아름** | 미추홀구 학익동, 2012, 미추홀구 관내 도서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연구하며 활동하는 독서동아리

**신선한 책읽기 1.5** | 연수구

평소에 읽어보지 않았던 주제, 장르 등 편향된 책 읽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심사를 접하며 스펙트럼을 넓히는 독서를 목표

**얘기보따리** | 연수구 연수동, 2013,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그림책을 읽다가 분야를 확장하여 고전을 읽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화 되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는 중

**유라시아 읽기 모임** | 서구 검암동, 2018, 셰어하우스 모임 공간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유라시아 공부를 하며 관광 위주의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임

**책마중** | 인천시 부평구, 2017, 희망세상어린이집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매월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동아리

**책크인(책으로 크는 사람들)** | 강화군 길상면, 2019, 대표회원의 집

책 읽기 좋은 강화도에서 책을 통해 질문과 토론하며 크는 사람들의 독서모임

**행복꽃책갈피** | 남동구 만수동, 2019, 인천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회복자로 구성되어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매일 센터에 나와 책을 읽는 분들과 함께함



**혜윰인** | 중구 해안동, 2018, 카페, 한국근대문학관 등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을 하고 답사를 다니는 동아리

## 광주

**나루회** | 남구, 2002, 느티나무주간보호센터, 카페

17년을 함께 읽으며 문학동인지 11집을 발간하고 책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사는 동아리

**독서공작소** | 동구 동명로, 2016, 책방 심가네박씨

책과의 대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책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건과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동아리

**버닝썬** | 북구 두암동, 2019, 회원의 사무실

초등학교 동창들과 지인들이 만나 책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

**삼다문학회** | 북구, 2018, 아름다운가게 등

다독, 다작, 다상량을 이르는 말로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을 일상화하기 위해 모임

**소리 내 讀하다** | 동구 동명동, 2018, 카페 스터디룸

좋은 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 보면 온몸으로 소설을 꼼꼼하게 읽게 되는 동아리

**처음 읽는, 어린이책** | 서구 치평동, 2018, 카페, 공유 오피스 세미나실

어린이책의 경향과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제보다 내일 더 밝은 눈을 지닌 독자가 되기 위해 모임

**페이퍼로드(책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다)** | 동구 황금동, 2015, 카페 드롭탑

의료, 교육, 금융, 사무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16명의 회원들이 매주 월요일 책을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독서모임

## 대전

**DIVA독서포럼** | 유성구 가정동, 2009, 교수 연구실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각 분야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있음

**KRISS BOOK(크리스북)** | 유성구 도룡동, 20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 표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동아리 구성원이 대부분 과학자들이며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

**The같이가치** | 중구 대흥동, 2019, 카페

독서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참석을 통해 성장하고자 운영하는 독서모임

**공랩** | 서구 둔산동, 2018, 스터디룸, 카페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곳, 내가 생각하는 공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공부를 하고자 모임

**독토리** | 동구 가양동, 2019, 카페, 강의실

취업이라는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포기하는 청년들과 독서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모임

**별 헤는 밤** | 유성구 신성동, 2009, 대전시민천문대 세미나실 등

천문학 관련 강의를 분기별로 진행하며 주로 과학 관련 서적을 읽고 영화 감상 등을 함께하고 있음

**새여울 아줌마들의 힘** | 대덕구, 2019, 회원의 집

근현대사 연구 및 탐구를 주제로 아줌마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모임

**젤리에서 젤리로** | 중구, 2018, 학교도서관, 서점 등

제일로 리딩을 싫어했던 아이들이 제일로 리딩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서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모임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 | 서구 도안동 등, 2018, 카페, 회원의 집 등

서점에서 그림책을 통해 만나게 된 아기 엄마들의 모임으로 새벽에 탈출하여 책을 읽는 동아리

**책향기** | 유성구, 201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도서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의 연구원들이 독서를 통하여 소통과 교류를 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하는 동아리

## 울산

**2019 태백산맥** | 중구 성안동, 2019, 북카페

한 달에 한 권씩, 태백산맥 열 권을 읽고 벌교로 꼬막 먹으러 가고자 결성했다가 무거운 질문을 안게 된 독서동아리

**과시적독서모임 이방인** | 북구 강동, 2018, 레드브릭카페

온전한 내가 사라진 것 같아 뽑난 아줌마들이 모여 책을 읽는 독서동아리

**살방살방 책모임** | 울주군 소호리, 2018, 마을도서관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독서동아리

**수북회** | 북구 농소1동, 2012, 농소1동도서관

2012년 주부독서회로 태어나 지금은 남성 회원도 있는 지혜까지 수북이 쌓여가는 모임

**어독(어울림독서모임)** | 북구 호계동, 2019, 카페, 회의실 등

사회복지사들이 직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책 읽고 이야기 나누려고 결성한 모임

**인문학 '틔움'** | 중구, 2015, 독서동아리 전용 공간

좋은 책이지만 함께 읽기 부담스러운 책을 함께 읽기 위해 소리 내 낭송하는 독서모임

**책갈피** | 중구 성안동, 2018, 책방 다독다독

혼자만의 책 읽기에서 벗어나고자 용감한 도전을 한 울산 주부들의 독서동아리

## 세종

**강독(講讀)-Reader&Leader** | 한솔동, 2016, 세종보사업소 수다방

직장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책 읽기가 버거워진 워킹맘들이 함께 읽기 위해 모인 동아리



**살롱H** | 한솔동, 2019, 회원의 집

다양한 문화 활동과의 접목, 타 동아리와의 교류, 전문가 자문 등 활동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독서 모임

**세종의 꿈** | 조치원읍, 2018, 조치원 작은도서관

지역 작가 및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

## 경기

**Art인문학여행자들** | 용인시 기흥구, 2018, 보정역생활문화센터

고대부터 현대까지 예술과 연관된 인문학 도서를 함께 낭독하고 연관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있는 동아리

**KAMA** | 용인시 수지구, 2017, 단국대 스터디북룸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과 인문적 소양을 기르는 데 부족함을 느낀 대학생들이 모여 함께 읽는 동아리

**Livre pour tous** | 용인시 수지구, 2018, 카페

누구나 편하게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동아리

**Psynapse** | 구리시 교문동, 2019, 서울삼육고등학교 도서관

함께 책을 보며 생각을 공유하고 삶의 지혜를 교류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독서동아리

**RW CD(Reading&wrting하며 creative dream을 실현하는 워킹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018, 카페, 작은도서관

의사결정권을 갖고 싶은 워킹맘들의 독서모임

**TEDers** | 안양시 동안구, 2019, 범계중학교 도서관

혼자서 읽기 힘든 책들을 읽고 싶어하는 학생들, 꾸준한 독서 실력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 등이 모인 독서동아리

**갓독** | 고양시 일산동구, 2017, 카페

혼자서 책을 읽는 것보다 여럿이서 읽고 이를 공유하면 한 권 이상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모임

**곰돌이 독서회** | 파주시 문발동, 2016, 회사 도서관, 세미나실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직장인 독서동아리

**그마음그림책동아리** | 용인시 기흥구, 2018, 힐숲작은도서관

그림책 활동가인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림책을 찾아서 읽으며 이론과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

**길과 주먹밥** | 고양시 일산동, 2019, 카페

엄마들이 아이들의 독서를 위해서 모이다가 엄마들도 필요성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모인 동아리

**까치북클럽**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7, 구미1동 주민센터

워킹맘들이 아이가 친구들과 책과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을 안겨주고 싶어 시작한 모임

**낭랑공독** |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2017, 용인시여성회관

혼자 읽기 힘든 고전을 모두의 목소리로 나누어 읽는 모임

**느린 달팽이** | 용인시 수지구, 2018, 수지도서관

20대 젊은 시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꾸준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50대 동료들이 책 이야기하는 모임

**다다다새싹 다문화독서동아리** | 안산시 원곡동, 2014

9개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민이 그림책을 읽으며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해가는 독서동아리

**도담** | 과천시 중앙동, 2013, 학교 도서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독서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겠다는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도란도란**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017, 수원역 인근 카페

취업을 하고 나니 독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던 7명이 모여 만든 독서 토론 동아리

**도시인문학 모임**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018, 한양문고 스터디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독서모임

**讀舞(책이 우리를 춤추게 하리라)** | 화성시 기산동, 2019, 기산중학교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하게 된 독서동아리

**독서마라톤 걷기편** | 광명시, 2016, 복합문화공간 등

책을 통해 '생각나기'가 아닌 '생각하기'의 과정을 거치며 나다움을 만들어감.

**독서미식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7, 안양시 삼덕도서관

20대에서 40대까지 대학생에서 직장인,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독서 토론 모임

**독서풍경**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2018, 약대 신나는가족도서관

3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 여성들이 매주 모여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동아리

**독십하자** |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2019, 학교 동아리실

고3 친구들과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면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진로에 맞는 여러 책을 찾아보다가 만들게 된 동아리

**돌파구** | 평택시, 2017, 평택시립도서관, 카페

수업을 하면서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평택 20·30대 교사들이 모여 만든 독서동아리

**동산서뜰** | 고양시 덕양구, 2019, 회원의집

아이들을 기다리며 학교 앞 공원에서 각자 읽은 책에 대해 서로 추천을 해주며 이야기를 하던 중 결성

**듬book담book** | 의정부시, 2019, 경민대학교도서관 그룹스터디룸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책을 통해 힐링하고 마음을 채우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

**따독임** | 수원시 팔달구, 2016, 수원역 인근 카페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목표로 수원역 인근에서 활발히 활동 중

**따뜻한 독서모임 <한국친구, 일본친구>** | 파주시 와동동, 2018, 회원의 집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마을 공동체 책모임**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018, 회원의 집

마을에서 책을 읽으면서 함께살이를 꿈꾸는 엄마들의 독서모임

**마중물 독서회** | 광명시 철산동, 2013, 광명시 철산도서관

작은 마중물이 큰 물줄기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함께 읽어나가는 책 속에서 공감하고 위로받는 모임



**만나다** | 고양시 관산동, 2019, 관산동 카페

책과 영화가 만나다는 뜻과 우리와 우리가 만나다는 뜻을 가지고 모인 청년 동아리

**모글리** | 안양시 동안구, 2014, 카페, 박물관 등

책은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명서가 되기도 하고 평서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고 서평을 쓰는 동아리

**목요일의 책** | 파주시 운정동, 2019, 한빛도서관

30대에서 60대까지 폭넓은 계층이 모여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미교독 키즈(아빠와 함께하는 초등 독서모임)** | 하남시 학암동, 2018, 지역 커뮤니티 공간

아빠들이 작당하여 초등 자녀들이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모임

**복세편살** | 부천시 역곡동, 2019, 가톨릭대학교, 카페

대학교 동기들끼리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마음가짐으로 독서동아리를 개설

**봄날의 곰** | 과천시 별양동, 2016, 과천 교육도서관

인문학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모임으로 주로 인문고적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동아리

**북소리방**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019, 카페

내가 들어가고 싶거나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 없어서 직접 인원을 모아 만든 낭독 독서모임

**불독** | 용인시 기흥구, 2016, 공공도서관(기흥도서관)

독서열이 불타는 독서회라는 의미이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처럼 독서에 대한 맹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아리

**비책** | 안양시 동안구, 2018, 카페

직장 내에서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자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모여 책 내용을 나눔

**사연(사람을 연구하는 모임)** | 여주시 교동, 2019, 카페

책과 더불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찾아보는 독서모임

**서삼독** | 동두천시 상패동, 2006, 신한대학교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선정하고 택하여 각자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며 논제를 만드는 독서동아리

**석수시니어독서클럽**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16, 안양석수도서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 월 1회 자유 독서 후 독후감 제출 및 발표를 하며 모임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함

**세화독**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015, 카페

부천의 공단 지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독서모임

**센북클럽(센트럴타운북클럽)** | 성남시 여수동, 2015, 회원의 집

아파트 내 입주민 독서모임으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바탕으로 회원 세대가 번갈아가며 독서 토론을 진행

**수북하다**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018, 수원역 스터디랩

전시회, 독립영화 관람과 같은 독서 관련 문화 활동을 병행하며 독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

**수상한 책마실** | 파주시 문발동, 2015, 파주교하도서관

인문 고전을 중심으로 역사, 심리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는 낭독 동아리

**숲이랑 우리랑 어린이집 책사랑방** | 용인시 기흥구 중동, 2014, 회원의 집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성장 중인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독서동아리

**시나브로** | 광명시 철산동, 2017, 카페

학교를 졸업한 후 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실이 슬프고 안타까워 시작하게 된 독서동아리

**심심해서 산책(take a walk, purchased book)**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2017, 서종 작은도서관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 만든 독서동아리

**아름다운 독서** | 안양시 부림동, 2019, 카페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서 같이 봉사했던 멤버들이 다시 모여 독서모임을 진행하고자 함

**안녕아몬드** | 동두천시 지행동, 2018, 서점, 카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모여 있는 독서모임

**안산독서포럼** | 안산시 상록구 사동, 2013, 안산 서점 세미나실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 걸친 다양한 독서 이력을 가진 회원들이 책 한 권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는 동아리

**알사탕** | 포천시 신읍동, 2018,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등

함께 읽고 토론하고 감상평을 써서 나누는 독서모임

**야자수(야망넘치는자식들의수업)** | 의왕시 청계동, 2019, 카페, 회원의 집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자 다른 성향과 재주들이 있어 서로 배우며 책도 읽는 야망 넘치는 동아리

**에피쿠**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018, 카페, 회원의 집

세계빈곤, 성평등과 페미니즘, 환경문제, 아동보호, 동물과 함께 사는 삶 등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여인사(여성, 인문학, 사모임)** | 파주시 교하로, 2019, 파주시립도서관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을 중점을 두어 모이게 된 동아리

**여주 고전의 발견** | 여주시, 2016, 여주시립여주도서관

40대 주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책 읽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모인 동아리

**예대의 철학가들**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18, 서울예대도서관

서울예대 극작과 학생들이 모여 독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

**오독회** | 광명시 소하동, 2017, 카페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과 뭔가를 먹을 때 나는 소리의 의미를 담아,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며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독서회

**오래된 독서모임** | 파주시, 2017, 오래된 서점

매월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작가의 작품을 깊이 읽고 각자 필사노트에 필사를 하는 독서모임

**오름** | 평택시 용이동 등, 2018, 카페, 회원의 집 등

자녀와 엄마가 함께하는 독서동아리로 즐겁게 읽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모임

**와우북클럽**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019, 와부도서관

인생에서 가장 바쁜 40대 사람들로 구성된 책을 사랑하는 동아리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서관에서 만남

**월평 독서모임** | 양주시 옥정동, 2019, 회원의 집

1994년 대전 월평동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친구의 우정이 각자 바쁜 일상으로 소원해질 즘, 독서를 계기로 알차지자고 만듦

**유난히**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017, 초등학교 교실

유난히 어린이책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독서모임



**의정부 목요 독서모임 아침에** |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7, 카페

저녁이나 주말이 아닌 평일 아침에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독서모임

**이방인의 자유독서**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2018, 카페

2030세대로 묶기엔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책을 골라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모임

**인자한 토론**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2019, 정명고등학교

자연계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독서동아리로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할 만한 쟁점을 찾음

**일취월장** | 화성시, 2019, 하지공업 세미나실

하지공업(주)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결성

**정글북** | 성남시 신흥동, 2018,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정글 모험처럼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워감

**졸투 매일책읽기**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018, 스터디룸

오늘 읽을 분량을 올리면 온라인상에서 각자가 마음에 드는 문장 또는 문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모임

**줄탁동시** | 용인시 기흥구 삼가동, 2019, 카페

닭이 품어주는 알을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 세상의 품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나와 사랑하고 공감하며 살고 싶은 독서모임

**지수모(지적인 수다를 위한 모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2017, 회원의 집

10년 전 연극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구성원이 연극 활동 대신 영통에서 꾸준히 독서와의 만남을 이어감

**책갈피** | 김포시 고촌읍, 2016, 카페

대학생활 중에도 꾸준히 책을 읽기 위해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사회인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음

**책동행** | 과천시 원문동, 2016, 정보과학도서관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군포, 안양, 과천에 사는 성인들이 모여 함께라서 용기 낼 수 있는 책에 도전하고 있는 모임

**책모이** | 여주시 천서리, 2019, 회원의 집

책을 영혼과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서로 모여 책 속의 생각을 곱씹고 요리하고 재가공하여 맛있게 먹는 책모임

**책수다** | 파주시 목동동, 2017, 해솔도서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방면의 사회활동을 마치고 정년을 맞이한 60대 연령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

**책의 대화**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019, 포천시립영북도서관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을 읽으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독서동아리

**탐구생활자**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17, 좋은 날의 책방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하면서 실용예술이라는 분야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에 매주 놀라는 독서모임

**토도독**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019,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

비에 젖듯 책의 감성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싶은 독서동아리

**토요미스터리북클럽**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2008, 동네작은서점

공단노동자,다큐감독,사서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책읽는 즐거움 하나로 한 달에 한 번 모여 미스터리 분야의 책을 읽는 곳

**화만독(화요일에 만나는 독서모임)** |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2019, 카페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깊은 사색을 병행하는 독서동아리

**후뢰쉬맨** | 부천시 상동, 2019, 상동도서관

늘 철없이 느껴졌던 친구들과 책을 통해 교류하며 성장하고 있는 모임

## 강원

**YBG(Yonsei Book Gym)** | 원주시 매지리, 2017, 강의실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독서공동체'의 소속감을 나누고 싶은 독서동아리

**건목회** | 춘천시 우두동, 2018, 두미르작은도서관

건강한 목요일의 만남으로 노년의 인생을 새롭게 즐기고 있는 독서모임

**그림책과 꿈여행** | 춘천시, 2018,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실버들이 소개하는 그림책을 아동, 주부, 노년층과 다양하게 즐기기를 바라는 독서동아리

**금독모(금요일의 독서모임)** | 춘천시 효자동, 2014, 카페

춘천시의 직장인, 대학생 등이 모여 금요일마다 만나 독서를 하는 동아리. 매주 각자 읽은 책의 좋은 부분을 공유함

**다스름** | 동해시 묵호동, 2018, 카페, 도서관 등

20대에서 50대까지 개성이 다양한 남녀 8인이 책을 통해 모임

**매화독서회** | 동해시 부곡5길, 1991, 동해교육도서관

1987년부터 도서관과 시간을 함께하며 독서생활로 저력이 생긴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

**봄내독서소모임 책담** | 춘천시 효자동, 2017, 카페

각자가 고유의 '나'로 존재하기를 희망하며 서로의 감상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독서 활동을 지향함

**북포인트** | 춘천시, 2019, 카페, 강원대학교 도서관 등

책을 통해 서로의 글쓰기, 동영상 등 자신의 콘텐츠를 심화하는 모임

**서로** | 원주시 반곡동, 2008, 카페

'책의 길', '함께'라는 뜻으로 책과 함께 인생이란 여정을 같이 헤쳐나가자고 마음을 모은 동아리

**엄마마중** | 정선군 사북읍, 2017, 사북공공도서관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의 소중함을 실천하려는 엄마들의 그림책 독서동아리

**우언's**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017, 사북공공도서관

그림책과 다양한 주제가 담긴 책의 매력에 빠져 지역의 아이들 교육과 문화 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동아리

**위로** | 원주시 관설동, 2019, 카페

소설과 인문학 서적을 중심으로 자기계발과 올바른 시민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소규모 모임

**차근차근** | 춘천시, 2019, 신촌정보통신학교(소년원)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친구들로 구성된 동아리. 함께 소리를 내어 읽으며 정서를 공유함

**책바라기** | 삼척시 성내동, 2011, 삼척교육문화관

거창한 목표나 목적 없이 사람이 좋아서, 책이 좋아서 모인 책바라기들



**책순** | 원주시 학성동, 2019, 틔움카페

혼자서는 읽기 힘든 책을 같이 모여서 읽는다는 것, 책을 가지고 책 나눔을 한다는 것을 큰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춘천주부독서모임** | 춘천시 후평동, 2017, 독서클럽

두 아이의 아빠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통해 주부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공감하여 만들게 된 주부를 위한 독서모임

## 충북

**Book Diary**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18, 카페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일기처럼 남기기 시작한 독서모임

**류선열 + 문학연구회** | 제천시, 2018, 제천시립도서관

지역의 출신 동화, 동시 작가인 류선열의 작품을 함께 공부하며 문학정신을 연구하고 기리기 위한 모임

**미호공감** | 청주시 강내면, 2017, 미호중학교 도서관

미호중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독서동아리

**서재만들기** | 청주시 서원구, 2019, 충북대학교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모임

**숲속작은책방 북클럽** | 괴산군 칠성면, 2016, 숲속작은책방

괴산 산골에 있는 숲속작은책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만나 소감을 나누는 것이 주된 활동

**시스터 후드** | 옥천군 옥천읍, 2019,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벙

옥천에서 나고 자랐거나 귀촌한 여자들이 모여 함께 읽고 싶었던 책을 꺼냄

**아지트** | 흥덕구 강내면, 2019, 카페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모여 함께 읽으며 학생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연구하는 독서동아리

**은세계독서동아리** | 청주시 흥덕구, 2013, 은세계작은도서관

은퇴한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을 돕고 독서 생활화로 노후생활을 의미있게 보냄

**질문하는 책들**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017, 카페 발룸

책 읽기를 통하여 지적인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지향함

**책 읽는 자유** |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2017, 회원의 집

격주로 모임을 갖고 1인당 두 권의 책을 읽은 후 각자 읽은 책을 나눠 한 번의 모임에 약 열 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임

**책,꿈(책 읽는 교사, 꿈이 있는 학교)** | 제천시 청전동, 2016, 제천시립도서관, 카페 등

책 나눔을 통해 어린이와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와 고민을 나누며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임

**책이 꽃이라면**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2017, 성무책마루작은도서관

공군사관학교 관사에서 책을 좋아하는 군 가족의 모임

**책읽는 사서들의 모임** |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2017, 카페

충북 지역 사서들이 모여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하며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모임

**철학세미나** | 청주시 흥덕구, 2018, 충북NGO센터 작은도서관

충북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과 존엄의 삶을 위한 책 읽기 모임

**청춘의 독서**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018, 작은도서관청춘

2030 청년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독서동아리

**페미니_줌** | 상당구 운천동, 2017,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지역에서 페미니즘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페미니즘 독서동아리 집담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모임

## 충남

**고전독서모임** | 서천군, 2019, 카페

인생에 전반적인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고전이라 생각하여 모인 30~40대 주부 독서모임

**그람**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016, 북카페 산새

고전문학과 회원 추천을 번갈아 읽으며 폭넓은 독서를 통해 서로에게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모임

**글톡말톡** | 아산시 용화동, 2018, 아산 중앙도서관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자까지. 글쓰기 강좌를 함께 들었던 수강생들이 모여 만든 서평 쓰기 동아리

**당진 책가방** | 당진시 읍내동, 2018, 우두동 할리스 카페 등

당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환영하며 힘든 세상 속에서 편하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모임

**도시와 마을 읽기** | 공주시, 2019, 카페

원주민, 이주민, 30~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장함

**독서시사토론동아리** | 아산시 신창면, 2017, 경찰대학도서관

경찰대학 독서시사토론 동아리로 주로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읽으며 발제하고 토론을 하는 모임

**숲에서 놀자** | 홍성군, 2017, 갓골어린이도서관

시골에서 즐겁게 아이들과 혼자 놀아주기 어렵다고 생각한 엄마들이 모여 만든 독서동아리

**콩세알** | 서산시 석림동, 2008, 충남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어린이책을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읽으면서 어린이의 권리, 인권에 대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엄마들의 결로 바라보기 위한 모임

## 전북

**Book소리** | 익산시 부송동, 2009, 희망연대 회의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독서모임

**knowledge to act** | 전주시 완산구 중동, 2019, 한국 농수산대학 도서관

독서를 습관화하여 명저들을 읽으며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를 분석 주도하며 삶의 통찰력과 견문을 넓히는 모임



**LinkBook 동아리**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016, 회원의 집, 호성작은도서관 등

책과 연결되면 내가 변하고 모두가 변하게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변하자는 사회인들의 독서모임

**고의(高懿)적 독서동아리** | 전주시 진북동, 2019, 작은도서관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가지고 독서 관련 봉사, 토론회 개최 등 복합적인 활동을 지향

**늘품누리**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016, 따숨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어른들의 모임에서 시작해 월 2회씩 책을 읽는 독서동아리를 꾸림

**다독다독** | 군산시 대야면, 2017, 학교 도서관

논, 밭에서 일하다가도 모임 날이 되면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에 와서 그림책을 공부하고 함께 읽는 엄마들의 독서모임

**도란도란 그림책 깊이 읽기** | 장수군 계북면, 2018, 작은도서관, 회원의 집

아이들에게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 읽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시작한 새내기 시골 엄마 독서모임

**마음(사랑)의 양식** | 완주군 소양면, 2016,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대회의실

정신과 분야에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이 마음이 아픈 환자의 상태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독서 활동을 펼침

**무지개독서회** | 군산시, 2010, 군산시립도서관

같이 읽고 싶은 책이나 사회 이슈와 관련된 책을 추천하여 진행하는 독서동아리

**블루베리나이츠** | 전주시 덕진구, 2019, 카페

혼자 책을 읽기보다는 읽고 난 후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폭 넓은 사고를 경험하는 독서동아리

**빨간약독서회** | 전주시 완산구, 2018, 카페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처럼 아프지만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의 독서모임

**事人如天** | 정읍시 상동, 2017, 수목토작은도서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동학의 정신을 존중하는 독서모임

**엄마의 방학** | 완주군 봉동읍, 2018, 카페

엄마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기 위해 모이게 된 독서동아리

**이음**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019, 카페

청년과 사회를 잇고 너와 나를 잇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역사책을 읽고 있는 독서동아리

**전북경찰청 다독임**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017, 무궁화도서관

전북 경찰들의 독서모임으로 책을 읽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힘

**책시(전북 책을 읽는 시간)** | 전주시, 2018, 카페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 자율적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

**함열 책담터** | 익산시 함열읍 와리, 2018, 마한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도서관)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여 서로 좋아하는 책 읽고 추천하며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동아리

**헐스토리**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019, 카페

역사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모임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여성들의 스토리를 알아가고 있는 독서동아리

**흰구름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2016, 흰구름작은도서관

도서관 내의 청소년 동아리 '일이삼백'과 성인 동아리 '함께 읽기'가 연합하여 격주로 만나 열심히 함께 모이고 있는 독서동아리

## 전남

**광양멘토스** | 광양시 광양읍, 2018, 카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문화와 책을 교류하는 독서동아리

**독토리** | 무안군 무안읍, 2018, 초당대학교 중앙도서관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여 독서를 통해 삶의 지식과 교양을 쌓는 독서동아리

**목원동책모임** | 목포시 목원동, 2019, 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는 책모임

**북코러스** | 보성군 보성읍, 1995, 보성공공도서관

다양한 소재의 폭 넓은 주제 토론과 윤동주, 백석 시인 바로 알기 등의 강의도 병행하는 독서모임

**생각&채움** | 고흥군 동강면, 2018, 고흥군립북부도서관

원주민들과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책을 낭독하거나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연대감을 쌓는 모임

**알음알음** | 광양시 광양읍

서로 아는 관계라는 뜻으로 용강 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독서동아리

**완도살롱 독서모임 '완독'** | 완도군 완도읍, 2018, 지역서점

10대 청소년부터 40대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도 지역민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는 모임

**책나눔(책의기쁨을나누는모임)** | 진도군 진도읍, 2014, 진도공공도서관

어른들이 모여 그림책과 어린이책을 공부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려 애쓰고 있는 독서모임

**행복한인문학독서회** | 영암군 영암읍, 2016, 영암공공도서관

다양한 의견 교류와 토의를 거쳐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고 각자의 의견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서회

## 경북

**똑똑똑** | 구미시, 2019, 카페

아름답게 독서의 문을 두드리며 새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독서모임

**띵가띵가** | 안동시 송천동, 2019, 쉐어하우스 공유공간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인문, 사회, 생태를 주제로 돌아가며 책을 선정하고 읽는 독서모임

**묘책 - 묘한 책읽기** | 포항시 북구 덕수동, 2013, 북카페

다양한 연령, 취미, 직업을 가진 포항시민들과 함께 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임

**베네딕트** | 포항 흥해읍 남송리, 2018, 한동대학교 오석관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 등의 분야에서 회원들이 원하는 책을 선정하여 격주로 책을 읽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보릿고개 인문독서 모임** | 안동시 북후면, 2018, 섭헌우작은도서관

젊은 세대들이 사라진 농촌의 적막함과 빡빡한 삶 속에서 책을 통해 가교 역할과 작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동아리

**북적북적** | 경산시 대동, 2016, 카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깎아내리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아리

**안동 책삶모임** | 안동시 정하동, 2018, 안동강남어린이도서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책을 통해 삶의 또 다른 에너지를 발견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독서동아리

**알이즈웰** | 의성군 의성읍, 2018, 의성군립도서관, 카페 등

웰 던 라이프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인 독서동아리

**질문샘(질문이 샘솟는 시간)** | 경주시 서악동, 2018, 마음샘 연구소, 카페

천천히 깊게 읽기를 통하여 나는 왜 책을 읽는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독서동아리

**책나무** | 영천시 중앙동, 2017, 영천시립도서관

청소년 자녀를 이해하고자 청소년 소설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독서동아리

## 경남

**곰내 책 울타리** |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2018, 아파트 도서관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유기적인 결합과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자 만든 독서모임

**금빛바다** | 김해시 삼계동, 2019, 대학도서관 그룹 토의실

인문, 사회, 철학, 시 등 넓은 분야의 독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넓은 시야로 삶을 개척하고 사회를 바라보기 위한 독서모임

**금요일 오후 두 시** | 양산시 소주동, 2019, 웅상도서관 등

정신질환을 안고 있지만 책을 가까이하고 좋아하며 지역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 독서동아리

**더Bro** | 진주시 가좌동 등, 2019, 카페

경남 지역 사회문제와 역사 사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론화하기 위해 모인 독서동아리

**독서, 빛장** | 거제시 옥포동, 2019, 독립책방

'함께, 성장'이라는 취지로 각자의 삶에 맞는 빛깔을 찾아내어 서로 함께 무한 성장을 할 독서동아리

**맘스 힐링수다** | 창원시 진해구 석동, 2019, 카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자녀와 부모의 양방향 소통으로 공감 대화를 많이 하게 된 독서동아리

**먼북소리** | 진주시 강남동, 2017, 카페

교사, 목사, 농부, 공무원, 교수, 자영업자 등 다양한 구성으로 사람들이 모여 같은 책을 읽기도 하며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동아리

**목향(목요일 책의 향기에 끌림)** | 김해시 내외동, 2017, 내외작은도서관

영혼의 숨길을 찾아 도서관의 서가를 뒤적이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임

**밀양인문독서동아리** | 밀양시 삼문동, 2015, 카페

개인의 정신적 성장, 타인과의 소통, 건강한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독서모임

**반딧불이가 켠 등불** | 진주시, 2015, 청담사상연구소

독서 활동을 통해 40대 이후, 삶의 내적 가치와 질을 높이고 참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이웃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독서회

**별글바라기** | 진주시 충무공동, 2019, 카페

내면이 아름다워지자는 의미에서 별처럼 아름답고 빛을 내는 글과 함께하고자 하는 독서동아리

**상상체想像體** | 밀양시, 2013, 밀양시립도서관

밀양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민담을 모티브로 한 글쓰기 모임에서 출발하여 고전 읽기로 방향을 전환한 독서모임

**어깨동무** |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2019, 어깨동무학교

매월 두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서로의 글을 발표하며 성장하기 위해 만든 독서동아리

**여벤져스**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018, 회원의 집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생각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성장하는 독서모임

**여성주의독서모임** | 진주시 가호동, 2018, 카페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함께 모여 책을 읽으며 배우고자 하는 모임

**연다(연암처럼 다산처럼)** | 김해시, 2017, 북카페, 동네책방

책이 좋아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빛깔의 생각들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바라보는 독서동아리

**연필자국** | 진주시 칠암동, 2019, 모두의아지트

함께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나누는 독서모임

**울타리 부크루** |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018, 카페

소수자의권리에대해관심을두고일상에가까이하며살아가고있는사람들이모여서로존중하는법에대해이야기나누고있는독서모임

**늘품** | 진주시 신안동, 2019, 학교도서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이라는 뜻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학교 내 독서동아리

**있다** | 산청군, 2018, 있다 아지트

산청군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재미있는 놀거리를 구상하는 독서모임

**잉클링스** | 창원시 일대, 2017, 북카페, 모임공간

모호하고완성되지않은암시와아이디어를찾는사람들이란뜻으로,책을좋아하는주부들이만나책과자신의이야기를하는즐거운모임

**자연과학세상** | 창원시 성산구, 2019, 회원의 집

자연과학의 시선으로 세상 보기를 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통섭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모임

**지미공(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공주들)** | 김해시, 2017, 도서관, 카페 등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젊고 발랄하게 지성까지 겸비하여 배려하는 어른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책을 읽고 있는 모임

**책 바람난 사서들** | 거제시, 2019,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매월 1회, 한 작가를 지정하여 그의 저작들을 모두 읽은 후 내용 및 저자의 특성과 생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모임

**책과 함께** | 김해시 부원동 등, 2019, 회원의 집

세상을 탓하고 교육제도를 탓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책을 읽고 변화하고자 모인 주부들의 독서동아리



**책도끼** | 김해시 삼계동, 2016, 삼계푸르지오작은도서관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에 대한 토론과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독서동아리

**하랑한빛** | 진주시 금산면, 2018, 위브글마루도서관

매월 두 권의 책을 선정해 완독한 후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고 그에 관한 UCC를 제작하는 독서동아리

**항해** | 양산시 북정동, 2019, 북정로 11길 일대

배가 바다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듯, 수많은 책 중에서 유익한 책들을 선정하여 독서토론을 하는 동아리

**해결** | 진주시 가좌동, 2018, 대학교 회의실, 카페

논제를 설정하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을 위해 책을 읽고 경청 연습을 하는 동아리

## 제주

**고치 책읽엉 요망져불자(함께 책 읽고 똑똑해지자)**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19, 회원의 집

작은 항구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모임

**우렁더우렁**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014, 수산초등학교 도서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행복한 집, 학교,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독서동아리

**원더랜드** | 제주시 조천읍, 2019, 회원의 집

최근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게 된 30대 중반의 엄마와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그림책을 먼저 찾아 읽고자 만든 독서 모임

**제주아즈망 혼디 고르멍 드르멍** | 제주시, 2019,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30대부터 60대까지 제주 아즈망들이 이 세상의 좋은 책을 읽고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독서동아리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독서동아리가 쓰다

## 독서동아리 글모음


| | |
|---|---|
| 발행일 | 2020년 1월 |
| 발행처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40 2층 |
| | 책읽는사회문화재단(동숭동, 일석기념관) |
| 전 화 | (대표전화) 02-3675-8783 |
| | (독서동아리지원센터) 02-3675-8784 |
| 팩 스 | 02-3675-8788 |
| 누리집 | www.bookread.or.kr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 | www.readinggroup.or.kr 독서동아리지원센터 |
| | www.bookstart.org 북스타트코리아 |
| | www.nabeeya.net 책 읽는 사회를 위한 북메거진 나비 |
| 전자우편 | (대표) bookread3@daum.net |
| | (독서동아리지원센터) readinggroup@daum.net |
| 디자인 | 디자인집 |



©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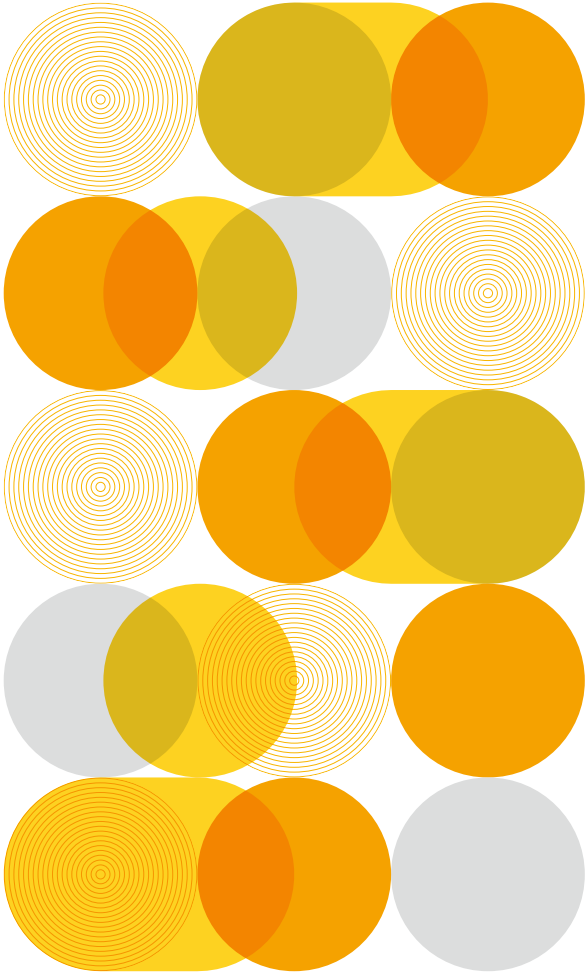


이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2019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독서동아리가 쓰다

## 독서동아리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